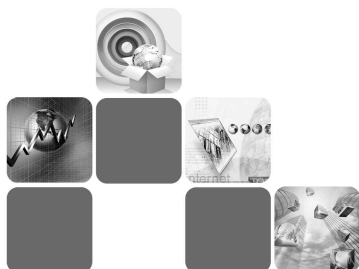


# 월간 ICT 산업 동향





## Contents

### I. 수출 동향 ..... 1

- |              |        |
|--------------|--------|
| ① 개요         | ② 반도체  |
| ③ 디스플레이 패널   | ④ 휴대폰  |
| ⑤ 컴퓨터 및 주변기기 | ⑥ 이차전지 |
| ⑦ SW         |        |

### II. 트레이드 GPS ..... 32

1. 중국 - 카메라모듈 ..... 33
2. 축전기(MLCC) ..... 38
3. Ex-Briefing ..... 43

### III. 부록 ..... 49

1. ICT 생산 통계 ..... 50
2. 2023년 2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 51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 58
4. ICT 부분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구매 금액 .. 66
5.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 67





I

# 수출 동향



## I 수출 동향<sup>1)</sup>

### 1 개요

□ '23.2월 ICT 수출은 128.2억 달러(△32.0%), 수입은 110.0억 달러(△3.6%) 기록

- (수출) 글로벌 경기 침체, 고물가·고금리 등 소비 둔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32.0% 감소한 128.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8개월 연속 하락
  - 품목별로는 이차전지가 증가한 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이 감소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 수출이 감소

표 1-1 주요 ICT 품목별 및 국가별 수출

구 분 (억 달러, %)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이차전지	전 체
전세계	61.1 (△41.5)	13.0 (△42.2)	10.3 (△5.5)	6.5 (△58.6)	8.7 (25.3)	128.2 (△32.0)
중국(홍콩)	32.4 (△45.0)	4.6 (△49.5)	6.2 (7.5)	1.8 (△61.1)	0.3 (△43.0)	51.3 (△39.4)
미국	3.3 (△51.6)	0.1 (9.9)	1.2 (73.5)	1.6 (△69.6)	4.0 (84.7)	16.5 (△20.7)
일본	1.0 (△3.8)	0.1 (△51.8)	0.1 (△53.2)	0.3 (△23.7)	0.3 (34.2)	3.1 (△4.8)
EU	1.7 (△17.5)	0.3 (△42.6)	0.6 (△62.8)	1.2 (△55.4)	2.3 (3.6)	9.3 (△23.5)
베트남	8.4 (△35.8)	6.9 (△39.0)	1.4 (△14.4)	0.5 (35.8)	0.3 (△21.2)	21.1 (△31.7)

자료 : IITP, KTSPI

- (수입)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한 1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내림세 지속
  - 컴퓨터 및 주변기기(16.3억 달러, 6.1%↑), 이차전지(7.5억 달러, 100.4%↑) 등은 증가한 반면 반도체(49.4억 달러, △10.4%), 휴대폰(5.8억 달러, △11.1%), 디스플레이(2.6억 달러, △33.4%) 등은 감소
- (무역수지) 중국(홍콩 포함, 12.5억 달러), 베트남(10.7억 달러), 미국(10.4억 달러), EU(3.7억 달러) 등 주요국에 대해 흑자 기조를 지속하며 총 18.2억 달러 흑자를 기록

표 1-2 ICT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구 분 (억 달러, %)		2023년		2022년	
		2월P	1~2월P	2월	1~2월
수출	전체 산업	501.0 (△7.5)	963.8 (△12.1)	541.6 (21.1)	1,096.1 (18.2)
	ICT	128.2 (△32.0)	259.1 (△32.6)	188.5 (23.6)	384.6 (21.9)
수입	전체 산업	554.0 (3.6)	1,143.3 (0.2)	534.8 (26.1)	1,140.9 (31.3)
	ICT	110.0 (△3.6)	232.2 (△2.2)	114.0 (24.0)	237.4 (18.9)
무역수지	전체 산업	△53.0	△179.6	6.7	△44.8
	ICT	18.2	26.9	74.5	147.2

자료 : IITP, KTSPI

1) 관세청 통관 기준 통계를 IITP가 ICT 분류체계에 맞게 재가공하여 작성

## 1) 수출 환경

### □ '23년 반도체 시장, 글로벌 경기 침체 심화로 4년 만에 하락 반전 전망

- (시장 전망)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문제 등 업황 둔화 요인 장기화로 '23년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6.5% 하락한 5,627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Gartner, '22.12월)
  - 고물가·고금리, 러·우 전쟁 장기화 등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세트 제품 수요 약세 및 수급 불균형이 연쇄적으로 발생. 이에 따라 메모리·비메모리가 동반 하락하면서 반락을 예상
  - (메모리 반도체 : 1,213억 달러, △18.7%) IT제품 수요 감소,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서버 시장의 저조한 교체 수요 등 업황 둔화 요인이 지속되면서 메모리 시장은 내림세가 지속될 전망
  -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의 감산에 따른 생산량 조절에도 불구하고 D램은 '23.2분기, 낸드플래시는 3분기 까지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서 '23년에도 수급 불균형의 완전한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
    - ※ 메모리 반도체 수요 대비 공급 비율 추이(Gartner, '22.12월) : (D램) '20년 100.8% → '21년 98.4% → '22년E 112.1% → '23년E 102.8%, (낸드) '20년 98.7% → '21년 98.4% → '22년E 106.6% → '23년E 102.3%
  - (비메모리 반도체 : 4,414억 달러, △2.5%) 5G·AI·IoT 및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이어왔으나,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재고가 상승. 이에 따라 선단 공정부터 성숙 공정까지 파운드리 전 공정에서 주문이 감소하면서 시장은 하락 반전을 예상
    - ※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규모 추이(TrendForce, '23.1월) : ('21년) 26.1%↑ → ('22년E) 28.1%↑ → ('23년E) △4.0%
  - 주요 고객사의 주문 축소로 90%를 상회하던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도 '22.4분기 87.8%로 하락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80% 초반대를 유지할 전망

그림 1-1 전체 반도체 시장 및 품목별 증감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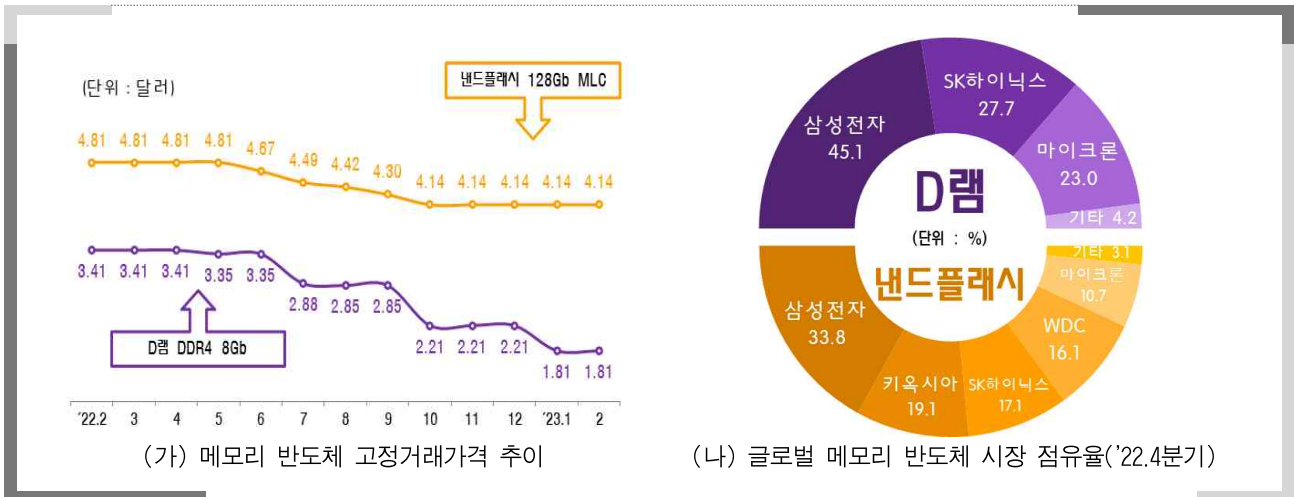
자료 : Gartner, 2022.12.

## □ 메모리 가격 하락 등 불황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확대

- '23.2월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가격은 D램 및 낸드플래시 모두 보합을 기록(Dramexchange, '23.2월)
  - 코로나19 특수 종료, 글로벌 인플레이션, 고금리 등으로 IT제품 수요가 위축되는 등 메모리 반도체 누적 재고 소진이 장기화. 이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하락과 보합을 반복하며 하락 흐름 지속
  - (D램) PC용 범용제품(DDR4 8Gb 기준)의 고정거래가격은 '23.1월 1.81달러로 전월 대비 18.10% 감소했으나, 2월에는 고객사들의 재고 과잉에 따른 업체 간 신규 협상 부재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
    - ※ D램(DDR4 8Gb 기준) 고정거래가격 추이(전월 대비) : ('22.1월) 3.41달러, △8.09% → (5월) 3.35달러, △1.76% → (7월) 2.88달러, △14.03% → (8월) 2.85달러, △1.04% → (10월) 2.21달러, △22.46% → ('23.1월) 1.81달러, △18.10%
  - (낸드플래시) 메모리카드·USB 범용제품(MLC 128Gb 기준)은 '21.7월부터 11개월 연속 4.81달러를 지속하다 '22.6월 4.67달러로 반락. 이후 10월까지 내림세를 이어가다 5개월 연속 4.14달러로 동가 유지
    - ※ 낸드플래시(MLC128Gb 기준) 고정거래가격 추이(전월 대비) : ('22.6월) 4.67달러, △2.91% → (7월) 4.49달러, △3.85% → (8월) 4.42달러, △1.56% → (9월) 4.30달러, △2.71% → (10월) 4.14달러, △3.73%
  - '23.3월에는 공급 및 구매 업체가 '23.2분기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나, 공급 과잉 지속으로 재고 처분을 위한 공급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가격 반등이 어려울 전망
  - 한편 낸드플래시의 경우 D램 대비 큰 가격 탄력성, 공급 업체들의 공격적인 감산 등으로 '23.1분기에는 전 분기(20~25%) 대비 가격 하락폭이 줄어든 10~15% 감소를 예상. 이에 따라 D램보다 조기에 가격 하락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TrendForce, '23.1월)
- 가격 하락 등 메모리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점유율을 늘리며 선두를 유지
  - 전 세계 반도체 수요 위축에 따른 가격 하락 등 메모리 시장 불황이 지속되면서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 등 글로벌 선두 업체들은 투자 축소 및 감산을 진행. 이에 따라 전 분기 대비 '22.4분기 매출 및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하락(TrendForce, '23.3월)
    - ※ '22.4분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매출 규모는 품목별로 D램(112억 8,100만 달러)이 전 분기 대비 32.5%, 낸드플래시(102억 8,730만 달러)가 25.0% 감소
  - 반면 삼성전자는 인위적 감산을 진행하지 않는 전략과 함께 공격적인 가격 경쟁을 펼쳐 출하량을 늘리며 ('22.3분기) 40.7% → (4분기) 45.1%로 점유율을 확대
    - ※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불황 종료 후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익성 대신 점유율 확대에 집중
  - 한편 삼성전자도 메모리 가격 하락 등으로 '22.4분기 D램 매출이 전 분기 대비 25.1% 감소한 55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SK하이닉스(△35.2%), 마이크론(△41.2%) 등 경쟁 업체보다 양호
  - 또한 삼성전자는 '22.4분기 낸드플래시 시장에서도 전 분기 대비 2.4%p 상승한 33.8%로 상위 업체 중 유일하게 점유율을 늘리며 1위를 수성. 다만 키옥시아(△30.5%), SK하이닉스(△30.9%) 등과 같이 매출은 34억 8,000만 달러로 전 분기 대비 19.1% 감소를 기록

※ 삼성전자는 기술력을 앞세운 고용량 낸드플래시를 주력으로 원가 우위를 점하면서 업계 선두를 유지

그림 1-2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가격 추이 및 시장 점유율



자료 : Dramexchange 재인용, 고정거래가격, 2023.2. / TrendForce, 2023.3

## □ 미국은 시설 공개·이익 공유·가드레일 등을 포함한 반도체 보조금 세부 계획을 공개

- '23.2월 미국이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 세부 지침을 발표했으며, '23.3월 말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
  - '23.2.28일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부 지원 계획을 공고했으며, 소재·장비, 연구·개발시설 투자 계획은 차후에 발표 예정
    - ※ '22.8월에 발표된 반도체과학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390억 달러, 연구·개발 지원금 132억 달러 등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
  - 경제·국가 안보, 상업적 타당성, 재무건전성 등 6가지 보조금 지급 조건을 제시했으며, 협상을 거친 뒤 지원 규모, 방식, 기간 등을 정하고 보조금, 대출, 대출 보증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
    - ※ 보조금은 설비 투자액의 5~15% 내에서 지원하되, 전체 비용의 35%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미국은 세부 지침 공개와 함께 사전 의향서 접수를 시작했으며, 본 신청서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이 '23.3.31일부터, 최첨단 외 반도체 및 후공정 제조 시설이 '23.6.26일부터 제출 가능
- 생산·연구 시설 공개, 초과이익 환수 등 과도한 개입을 요구하는 독소 조항도 포함
  - 세부 기준에 따르면 미국은 보조금 지급 시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장기적 공급 등 자국의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첨단무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반도체 기업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
    - ※ 미국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심사 기준 중에서도 경제·국가 안보 달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둘 것임을 강조
  - 기업은 보조금을 받으면 5년간 반도체 생산·연구·개발 외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 매입에 사용이 금지



- 한편 기업의 생산·연구 시설 접근 허용을 요구하거나, 1억 5,000만 달러 이상 보조금 수령 기업은 당초 전망치를 넘어서는 초과이익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할 것을 명시하는 등 독소 조항을 포함
  - ※ 미국은 보조금 신청 기업의 재무 건전성 검증이 가능한 수익성 지표, 예상 현금흐름 전망치 등 상세한 재무 정보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유할 초과이익 비중을 설정. 이때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환수가 가능
- 또한 경제적 약자 채용, 공장 직원과 건설 노동자에 대한 보육 서비스 제공, 인력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및 미래 투자 의지를 심사하는 조항도 존재
- 미국은 중국과의 분리에도 큰 비중을 두며 미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반도체 우려국에서의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설정
  - ※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23.3.21일 중국 내 공장 기술 발전을 허용하는 등 완화된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후 60일간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
- 한편 첨단 기술 확보가 관건인 반도체 시장에서 생산설비, 상세한 재무 정보 등을 공개하는 것은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존재

**표 1-3 | 美 반도체 보조금 신청 요건 관련 세부 내용**

기 준		내 용
심사기준	경제·국가 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 등 안보기관에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이 가능한 기업</li> <li>• 정부기관에 실험·생산시설 접근권 제공</li> <li>• 국가안보 임무를 위한 상업시설 적용</li> </ul>
	상업적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인 현금 흐름 및 지속적인 투자 계획</li> <li>• 공장의 장기간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li> </ul>
	재무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상 현금 흐름, 자본금, 수익률, 수익성 지표 등 상세한 재무제표 공유</li> <li>※ 1억 5,000만 달러 이상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익을 올릴 경우 美정부에 초과이익을 공유</li> <li>• 민간 부문 기여를 촉진하는 프로젝트</li> </ul>
	기술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설비 등을 포함한 건설안, 인허가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요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실행 계획</li> <li>• 환경 규제 통과 가능 여부</li> </ul>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지역단체, 노동조합 등과 함께 반도체 인력 육성 프로그램 마련</li> <li>• 1억 5,000만 달러 이상 보조금 신청 기업은 공장 직원, 건설 노동자에 대한 보육 서비스 제공</li> <li>• 숙련된 기술 인재 확보, 경제적 약자 채용 등 다양성 확보</li> </ul>
	파급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내 R&amp;D 시설 건설 및 지원, 미국산 철강 및 건설자재 사용 등 미래 투자 의지와 지역 사회 공헌</li> </ul>
가드레일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수령 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li> <li>- 투자 규모가 10만 달러를 넘어설 경우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생산 능력 확장이 불가능. 다만 생산 능력을 반도체 생산에 투입되는 웨어퍼의 양으로 규정함에 따라 기술 발전은 허용</li> <li>- 신규 생산 라인 증설도 제한했으나, 범용 반도체의 경우 해당국에서 생산량의 85% 이상이 소비되는 경우에는 신설이 가능</li> <li>- 범용 반도체의 기준은 비메모리 반도체 28나노 이상, D램 18나노 초과, 낸드 플래시 128단 미만으로 설정</li> <li>• 우려국 관련 단체와 공동 연구(2인 이상 참여), 기술 특허 사용 계약 등을 금지</li> </ul>

자료 : 언론 보도 정리



- (참고) 미국의 까다로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국내 업체의 부담이 과중
  - 삼성전자는 '21.11월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를 투자하여 파운드리 신규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후 기초 공사를 진행 중이며, '22.7월 향후 20년간 1,921억 달러를 투자해 11곳(테일러 9, 오스틴 2)의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미국에 제출
  - SK하이닉스도 '22.7월 1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 부지 및 조건 검토를 진행
  - 미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업체들이 미국 보조금을 포기하기는 어려우나 재무정보 제공, 초과 이익 일부 공유 등 독소 조항으로 보조금 효과 반감뿐만 아니라 손해를 볼 가능성이 존재
  - 특히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으로 중국 내 대형 생산 기지를 보유한 국내 업체들이 보조금 신청 시 공장 운영 및 발전에 타격 예상
    - ※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쑤저우에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다롄에 낸드플래시, 충칭에 후공정 공장을 운영
  -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해 중국 내에서 최첨단인 230단 낸드플래시, 10나노 초반대 D램보다 기술 수준이 낮은 제품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첨단 반도체로 분류되어 5% 이상 생산 능력 확대가 불가능
    - ※ 중국 내에서 삼성전자는 128단 낸드플래시를, SK하이닉스는 10나노 중·후반대 D램, 96단·144단 낸드플래시를 생산

## 2) 수출 동향

### □ 메모리 및 시스템 동반 하락으로 '23.3월 반도체 수출은 7개월 연속 하락

- (품목별) IT 시장 둔화 등과 더불어 역대 2월 반도체 최고 수출을 달성한 '22년의 높은 기저 효과로 '23.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1.5% 감소한 61.1억 달러를 기록
  - ※ 전체 반도체 역대 2월 상위 수출(억 달러) : (1위, '22년) 104.5, (2위, '18년) 91.4, (3위, 21년) 84.4
- (메모리 반도체 : 29.2억 달러, △53.9%) 글로벌 경기 둔화 등에 따른 PC·스마트폰 등 전방 산업 부진, 재고 누적 등으로 D램·낸드플래시 등 주요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내림세 지속
- (시스템 반도체 : 26.9억 달러, △25.5%) 급격한 소비 침체 등에 따른 전 세계 반도체 칩 수요 감소로 파운드리 등이 부진함에 따라 '23.1월 반락 후 2개월 연속 하락
- (지역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국내 업체의 생산 거점인 베트남 등 주요 지역 수출이 감소
  - 중국(홍콩 포함, 32.4억 달러, △45.0%)은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D램·메모리·MCP·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50.8%)와 시스템 반도체(△32.8%)의 동반 하락으로 감소세 지속

- 베트남(8.4억 달러, △35.8%)은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IT 기기 수요 감소 등으로 D램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52.6%)와 시스템 반도체(△18.7%)가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 하락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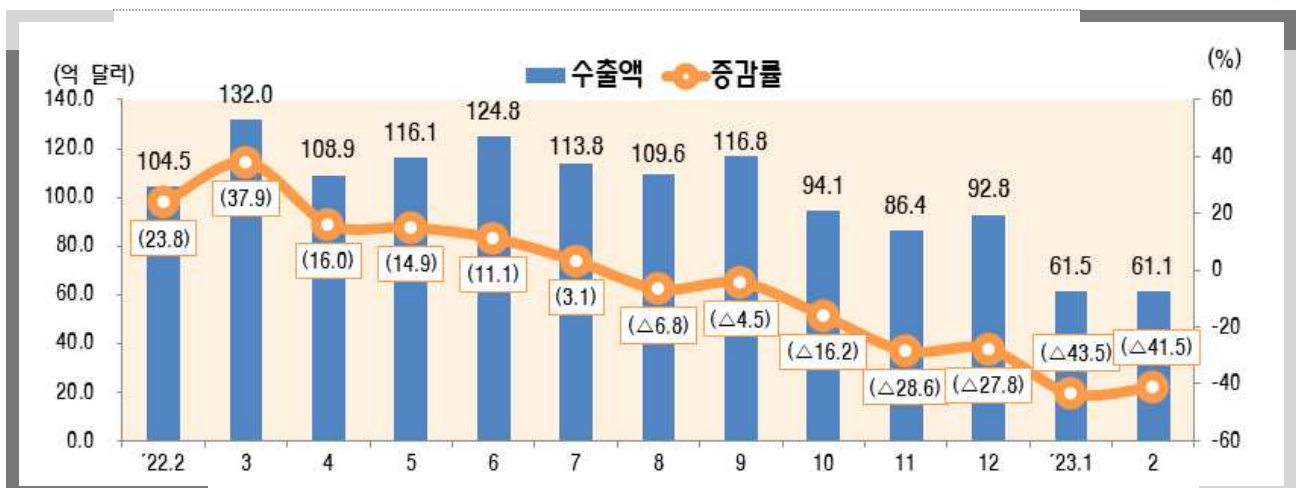
**표 1-4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반도체	104.5 (23.8)	132.0 (37.9)	108.9 (16.0)	116.1 (14.9)	124.8 (11.1)	113.8 (3.1)	109.6 (△6.8)	116.8 (△4.5)	94.1 (△16.2)	86.4 (△28.6)	92.8 (△27.8)	61.5 (△43.5)	61.1 (△41.5)
메모리	63.3 (21.3)	82.0 (34.0)	63.8 (7.7)	72.8 (10.8)	77.9 (3.2)	61.7 (△13.5)	57.5 (△24.7)	66.2 (△16.7)	44.7 (△35.7)	38.4 (△49.7)	44.4 (△47.2)	27.7 (△57.3)	29.2 (△53.9)
D램	31.8 (40.1)	38.9 (44.3)	32.4 (12.9)	37.1 (27.9)	38.8 (14.9)	32.7 (△7.0)	27.9 (△26.0)	31.1 (△17.6)	20.7 (△41.9)	18.2 (△51.0)	24.5 (△40.8)	11.7 (△63.6)	12.6 (△60.5)
낸드	6.3 (36.9)	7.5 (68.8)	7.4 (51.0)	8.0 (36.8)	7.9 (32.0)	7.4 (49.3)	6.2 (9.3)	6.7 (2.4)	5.7 (△10.6)	5.2 (△16.8)	3.5 (△45.8)	3.6 (△30.3)	4.9 (△21.8)
메모리 MCP	21.1 (△1.5)	30.5 (19.9)	19.8 (△9.9)	24.1 (△11.9)	25.1 (△21.9)	18.3 (△32.6)	20.8 (△26.5)	24.7 (△18.7)	16.5 (△30.0)	13.5 (△55.4)	14.9 (△52.6)	11.1 (△53.9)	10.6 (△49.6)
메모리 MCOs	4.0 (20.3)	5.1 (19.1)	4.1 (15.3)	3.5 (3.4)	6.1 (72.5)	3.2 (△20.5)	2.5 (△46.6)	3.6 (△24.5)	1.7 (△56.3)	1.5 (△47.3)	1.5 (△70.1)	1.2 (△65.7)	1.0 (△75.9)
시스템 반도체	36.1 (33.9)	44.5 (53.5)	40.0 (36.4)	38.3 (26.8)	41.8 (33.3)	46.8 (40.4)	46.6 (31.0)	45.1 (20.2)	43.8 (17.6)	42.3 (8.3)	42.7 (9.9)	29.0 (△25.0)	26.9 (△25.5)
개별 소자	1.4 (0.2)	1.6 (2.9)	1.5 (△3.6)	1.5 (3.7)	1.4 (△5.4)	1.3 (△21.6)	1.3 (△12.8)	1.4 (△8.1)	1.3 (△11.2)	1.3 (△9.5)	1.2 (△17.6)	1.2 (△14.0)	1.2 (△8.9)
광전 소자	2.0 (△23.1)	2.0 (△24.7)	2.0 (△21.1)	1.8 (△27.5)	2.1 (△22.6)	2.3 (△5.8)	2.4 (△7.9)	2.5 (2.0)	2.7 (6.3)	2.9 (16.2)	3.0 (22.4)	2.2 (△5.9)	2.2 (9.3)

자료 : IITP, KTSPi

**그림 1-3 반도체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5 반도체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2년 연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521.5	3.8	39.8	중국	25.8	-39.7	42.3	50.7	-43.1	41.3
2	홍콩	194.3	-26.9	14.8	베트남	8.4	-35.8	13.7	17.5	-35.2	14.3
3	베트남	162.8	16.0	12.4	홍콩	6.5	-59.2	10.6	13.2	-59.5	10.8
4	대만	124.0	15.9	9.5	대만	5.2	-45.9	8.6	10.3	-45.2	8.4
5	미국	95.5	0.3	7.3	미국	3.3	-51.6	5.4	7.0	-44.8	5.7
6	싱가포르	59.3	54.7	4.5	싱가포르	2.5	-36.8	4.1	6.0	-25.9	4.9
7	필리핀	37.4	-1.4	2.9	말레이시아	1.5	5.0	2.5	3.0	7.3	2.5
8	인도	22.7	79.8	1.7	인도	1.5	-11.4	2.4	2.7	-20.7	2.2
9	말레이시아	19.2	16.2	1.5	필리핀	1.4	-58.1	2.3	2.9	-59.4	2.3
10	일본	13.5	-2.9	1.0	일본	1.0	-3.8	1.7	1.7	-18.0	1.4

자료 : IITP, KTSPI

### 3 디스플레이 패널

#### 1) 수출 환경

#### □ '23년 패널 시장,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 OLED 생태계 확장 등으로 완만한 회복 기대

- (시장 전망) '23년 디스플레이 시장(1,276억 달러, 3.2%↑)은 반등 전망(OMDIA, '22.12월)
  - 올해 글로벌 경기 회복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나 TV 시장에서의 OLED 침투율 상승, 전장용·IT용 신수요 증가, 폴더블 폰 등 이형(異形)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OLED 패널(464.1억 달러, 7.5%↑) 수요를 중심으로 '23년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은 성장 전환할 전망
    - ※ 글로벌 TV용 OLED 패널 출하량은 '23년 910만 대 → '27년 1,410만 대(CAGR 11.6%↑)로 증가할 전망(유비리서치, 3.6일)
- (TV 시장) 삼성전자의 국내 OLED TV 시장 재진입 행보에 주목, 프리미엄 시장 격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 글로벌 경기 불황 속 프리미엄 활로 모색을 위해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국내 OLED TV 시장에 재진입해 눈길(3.9일). 55·65·77인치 라인업으로 구성해 출시
    - ※ 삼성전자는 '13년 OLED TV 신제품을 국내에 선보였으나 번인 현상 등 기술 문제와 시장성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LCD 기반의 프리미엄 QLED TV 등의 판매에 주력하며 17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 수성. 그러나 OLED TV 수요 급성장, 소비자 취향의 다양화 등을 이유로 기존 전략을 뒤엎고 지난해 북미·유럽 지역에 55·66인치 퀀텀닷(QD)-OLED TV를 출시('22.3월)하며 OLED TV 시장에 재진출
  - 이에 따라 프리미엄 시장에 이어 국내에서도 OLED TV 1위를 수성하고 있는 LG전자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미·유럽 등지의 수요 견조세 등이 더해지면서 '23년 OLED TV 시장(741만 대, 14%↑)은 상승 곡선이 지속될 전망(연합뉴스, 3.7일, 원소스 OMDIA)
    - ※ '22년 1,000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TV 중 OLED TV 비중을 살펴보면 서유럽은 51%, 북미는 44%를 기록. 유럽·북미 등 주력 프리미엄 시장에서 OLED TV가 대세화되고 있는 추세 관측(머니투데이, 3.6일, 원소스 OMDIA)

그림 1-4 | 글로벌 패널 시장 전망 및 OLED TV 출하량과 매출액 비중 전망



(가) 글로벌 패널 시장 전망



(나) OLED TV 출하량과 매출액 비중 전망

자료 : OMDIA, 2022.12. / 전자신문, 2023.3.14. (원소스 OMDIA)

## □ 국내 업체들은 디스플레이 시장 주도권 수성을 위해 EX(확장형)-OLED 전략을 도모

- 중국의 OLED 추격 가속 속, 국내 업체는 TV·스마트폰에 이어 노트북 등 IT기기로의 사업 확장 전략과 더불어 QD-OLED, 투명 OLED 등 기술 초격차 전략을 구사
  - (삼성디스플레이) 아이패드·맥북 등 IT기기 수요를 겨냥해 8세대 OLED 투자를 준비 중인 동 사는 현재 日 캐논토키와 ‘수평’ 증착<sup>2)</sup> 장비 도입을 위해 최종 가격을 조율 중인 것으로 관측
    - ※ 동 사는 지난 1년 이상 ‘수직 증착’ 신공정 개발을 업계 최초로 추진해왔으나 기술적 한계, 고객사 문제 등으로 OLED의 표준화된 공정 방식인 ‘수평 증착’으로 선회
  - 뿐만 아니라 대형 패널 시장에서도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QD-OLED TV 국내 출시(3.9일) 등에 힘입어 QD 기술력을 기반으로 OLED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
    - ※ QD-OLED 패널 생산 능력은 '23.하반기 월 41K, '24.상반기 월 45K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유비리서치)
  - (LG디스플레이) 투명 OLED를 주력 제품으로 내세운 동 사는 '23년 내 투명화율 40%→45%(55인치 기준)까지 개선한 신제품을 출시할 것이라 예고 해당 패널은 사무실, 소매점,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모빌리티, 홈 등 5개 부문의 신수요를 집중 공략할 방침
  - 또한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MLA, Micro Lens Array)’ 기술 등을 적용해 밝기를 대폭 향상시킨 3세대 OLED.EX 패널('23.1월 공개)이 LG전자의 신제품 ‘에보 G3('23.3.8일 출시)’에 채용돼 눈길
    - ※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크기의 울퉁불퉁한 렌즈 패턴 위에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물을 증착해 빛 방출을 극대화하는 고난도 기술. 동일 밝기 기준의 전작 대비 에너지 효율도 약 22% 개선
- 애플, ‘아이폰15’ 전 시리즈에 ‘홀’ 디스플레이<sup>3)</sup>를 적용할 방침. 국내 업체 수혜가 기대
  - 지난 '22.9월 출시한 ‘아이폰14’의 경우 프로·프로맥스 모델 2종에만 홀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였으나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15’는 4종 전 모델에 홀 디스플레이 확대 적용을 예고해 눈길
    - ※ ‘아이폰15’는 기본 6.1인치, 플러스 6.6인치, 프로 6.1인치, 프로맥스 6.6인치로 전작과 크기가 거의 비슷
  - 해당 물량은 국내 업체가 대부분을 도맡을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디스플레이는 4종의 전 모델을, LG디스플레이는 고급형(프로·프로맥스) 2종을, BOE는 일반형(기본·플러스) 2종을 맡을 전망
    - ※ 다만 현재 BOE가 펀치홀 기술 구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정 내 정상적인 양산 차질에 대한 우려 제기. 구현에 실패할 경우 해당 물량(약 1,000만 대로 추정)은 삼성디스플레이가 넘겨받을 공산이 높아 반사이익이 기대
  - 또한 '24년 출시 예정인 아이패드에 OLED 패널을 처음으로 채용할 것이라 밝혀 주목. 국내 업체는 투 스택 탠덤<sup>4)</sup> 구조 등 OLED 패널 신공정 개발을 진행하며 애플向 수주 확대에 집중

2) OLED 디스플레이 생산 시 가장 핵심이 되는 공정 방식으로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 수증기가 뚜껑에 이슬로 맺히는 것과 같이 수평 증착은 진공상태에서 유기 재료를 가열해 상단에 있는 패널 기판에 부착하는 방식을 의미

3) 디스플레이 상단에 구멍을 뚫은 것 같은 디자인을 의미하며 애플의 경우 전면 카메라와 페이스ID(안면인식) 기능 구현을 위해 '22년 처음으로 탑재

4) 투 스택 탠덤(Two-Stack Tandem)은 OLED 발광층을 2개층으로 쌓는 방식으로, 기존 OLED 대비 밝기와 수명이 각각 2, 4배 향상되며 소비전력도 30% 절감 가능

## 2) 수출 동향

### □ '23.2월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 대비 42.2% 감소한 13.0억 달러로 9개월 연속 하락

- **(품목별)**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전방 산업 악화 등으로 2월 수출은 '01.11월(0.2억 달러, △44.8%)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
  - (LCD 패널 : 3.0억 달러, △43.0%) LCD 패널 수익성 위축에 따른 국내 업체의 LCD 패널 생산 중단 및 감산과 IT기기 수요 둔화 등이 복합 작용하며 9개월 연속 내림세
  - (OLED 패널 : 8.0억 달러, △39.3%)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세트 업체의 OLED 패널 재고 부담이 증가하면서 재고 소진을 위한 주문 감소 등으로 2개월 연속 10억 달러대 하회
  - (부분품 : 2.1억 달러, △50.4%) 전방 수요 둔화 등 비우호적인 환경 속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하락
- **(지역별)** 미국·폴란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베트남 등) 수출이 큰 폭 감소
  - 베트남(6.9억 달러, △39.0%)은 OLED 패널(6.4억 달러, △36.0%)의 하락폭 확대, LCD 패널(0.3억 달러, △62.2%), 부분품(0.2억 달러, △60.7%) 등의 가파른 내림세 등으로 7개월 연속 감소
  - 중국(홍콩 포함, 4.6억 달러, △49.5%)은 LCD 패널(2.2억 달러, △44.7%), OLED 패널(1.1억 달러, △54.4%), 부분품(1.4억 달러, △52.1%) 등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10개월 연속 역성장 기록
  - 멕시코(0.4억 달러, △20.7%)는 부분품 수출(0.1억 달러, 7.9%↑)이 반등했으나 LCD 패널(0.1억 달러, △41.8%) 하락세, OLED 패널(0.2억 달러, △23.8%)의 반락 등으로 3개월 만에 감소 전환

**표 1-6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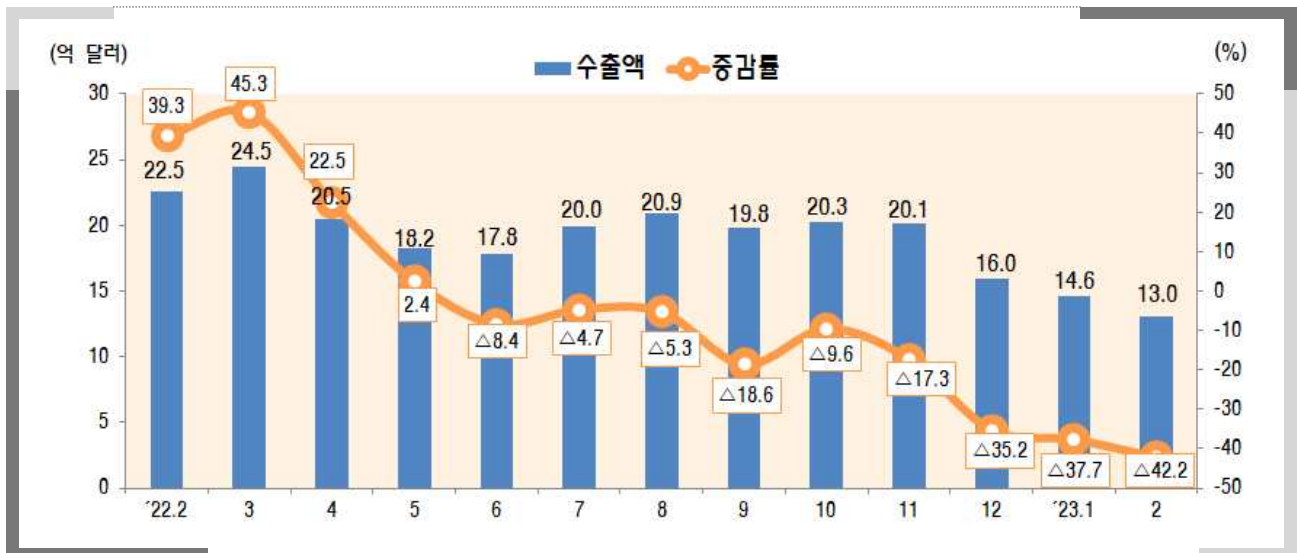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패널	22.5 (39.3)	24.5 (45.3)	20.5 (22.5)	18.2 (2.4)	17.8 (△8.4)	20.0 (△4.7)	20.9 (△5.3)	19.8 (△18.6)	20.3 (△9.6)	20.1 (△17.3)	16.0 (△35.2)	14.6 (△37.7)	13.0 (△42.2)
LCD	5.2 (15.8)	6.1 (24.2)	5.2 (5.4)	4.9 (3.0)	4.3 (△9.0)	4.8 (△8.7)	5.4 (12.5)	3.5 (△27.3)	3.6 (△30.4)	3.6 (△33.5)	3.4 (△39.6)	3.0 (△44.5)	3.0 (△43.0)
OLED	13.1 (56.3)	14.2 (69.0)	11.7 (38.8)	9.9 (2.1)	10.9 (△2.4)	12.5 (2.7)	12.6 (△10.0)	13.5 (△16.5)	14.3 (2.9)	14.1 (△7.6)	10.2 (△33.7)	9.6 (△31.3)	8.0 (△39.3)
부분품	4.2 (27.9)	4.2 (18.1)	3.6 (6.7)	3.4 (2.4)	2.6 (△26.4)	2.7 (△24.1)	2.9 (△11.6)	2.8 (△16.2)	2.4 (△29.8)	2.3 (△34.2)	2.4 (△35.3)	2.1 (△50.3)	2.1 (△50.4)

자료 : IITP, KTSPI





그림 1-5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7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2년 연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베트남	128.9	2.9	52.8	베트남	6.9	-39.0	53.3	15.7	-33.5	56.6
2	중국	89.6	-12.3	36.7	중국	4.5	-47.1	34.4	9.1	-48.7	32.9
3	멕시코	6.5	153.2	2.7	멕시코	0.4	-20.7	2.7	0.7	2.6	2.7
4	홍콩	4.0	-22.0	1.6	인도	0.2	-28.5	1.6	0.4	-25.4	1.4
5	헝가리	2.9	239.5	1.2	홍콩	0.2	-77.5	1.3	0.3	-81.8	0.9
6	인도	2.6	128.2	1.1	헝가리	0.2	-57.9	1.2	0.2	-62.0	0.6
7	미국	1.7	-23.5	0.7	미국	0.1	9.9	1.1	0.3	7.9	1.0
8	일본	1.6	59.8	0.7	일본	0.1	-51.8	0.6	0.2	-35.7	0.6
9	슬로바키아	0.8	172.6	0.3	슬로바키아	0.1	-24.5	0.4	0.1	-12.3	0.3
10	말레이시아	0.7	147.6	0.3	폴란드	0.1	60.0	0.4	0.1	53.2	0.4

자료 : IITP, KTSPI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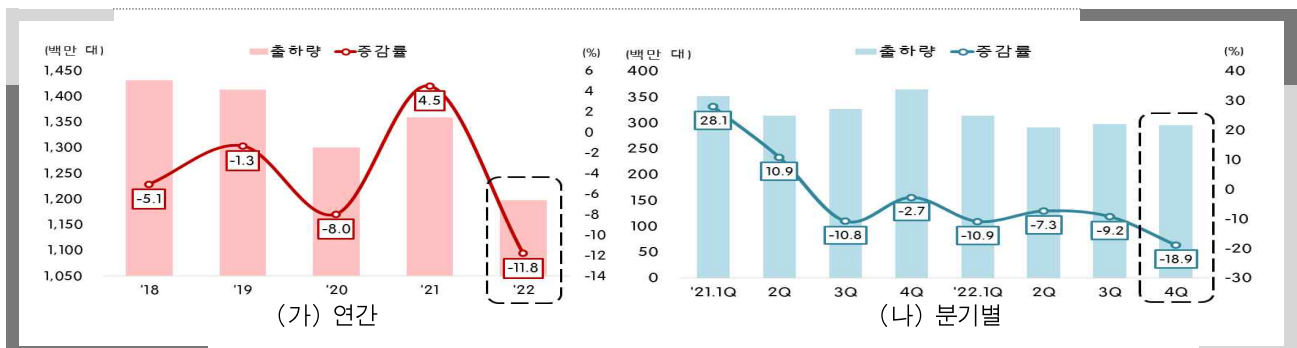
## 휴대폰

## 1) 수출 환경

## □ '22년 스마트폰 시장, 전 분기 내림세를 지속하면서 연간 출하량도 하락 반전

- '22년 스마트폰 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 지정학적 요인 장기화 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11.8% 하락하면서 1년 만에 반락(SA, '23.2월)
- (연간) 코로나19 확산, 고물가·고금리, 라우 전쟁 장기화, 미·중 갈등 등 경기 둔화 요인이 전 세계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스마트폰 수요가 급격히 감소
- 또한 내구성 향상, 혁신적 기술의 부재 등에 따른 스마트폰 교체 주기 장기화도 스마트폰 시장 위축을 야기하면서 '22년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대비 11.8% 감소한 11억 9,280만 대로 반락
  - ※ 참고로 '21년 스마트폰 시장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미국 등 일부 지역에서의 억눌렸던 수요 분출 효과, 폴더블·5G 교체 수요 증가 등을 배경으로 전년 대비 4.5%(13억 5,840만 대) 성장
- (분기별) '21.3분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위축은 6분기 연속 지속됐으며, '22.4분기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강화 등으로 2억 9,600만 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8.9% 하락
- '22.1분기는 반도체 등 부분품 부족에 따른 스마트폰 공급 제한과 더불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중국 봉쇄, 라우 전쟁 발발 등 지정학적 문제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
- 또한 인플레이션 및 지정학적 문제 등의 장기화,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달러화 강세에 따른 대부분 통화의 구매력 약화 등으로 내림세 지속
- 특히 4분기는 시장이 둔화된 상황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이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하면서 중국 정저우 공장 노동자들의 이탈이 발생. 이에 따라 애플이 심각한 생산차질을 겪으면서 시장 위축을 야기
  - ※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은 아이폰14 시리즈의 80%, 특히 아이폰14 프로의 85% 이상을 생산하는 애플의 핵심 공장

그림 1-6 | 연간 및 분기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자료 : SA, 2023.2.



## □ 아이폰이 '22년 최다 판매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

- 애플은 '22년 글로벌 스마트폰 기종별 판매량 10위권 내에 아이폰13 기본형·프로맥스 등 8개 제품을 올리며 호조를 기록(카운터포인트리서치, '23.3월)
  - 애플의 아이폰13이 중국·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선전하며 '22년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의 5%를 차지하며 1위를 달성. 특히 작년 아이폰 전체 판매량의 28%를 점유
    - ※ 아이폰13은 낮은 출시 가격으로 신흥 시장에서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21.9월 공식 출시 후 차기작 출시 전인 '22.8월까지 매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1위를 수성
  - 또한 아이폰13 프로맥스, 아이폰14 프로맥스가 각각 2위와 3위에 자리매김하는 등 애플은 역대 최초로 판매량 상위 10개 중 8개 순위에 단일 브랜드 제품을 올리며 저력을 과시
  - 특히 아이폰14 프로맥스는 노치 제거, A16 바이오닉 칩 탑재 등 일반형 대비 성능 차이가 확대되면서 '22.9월 출시 후 3개월 연속 최대 판매를 달성함에 따라 최초로 일반형보다 많은 판매량을 기록
  - '21년 판매량 1위에 올랐던 아이폰12는 '20.9월 출시 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G 지원, 차기작 출시에 따른 가격 인하 등으로 미국·일본·중국 등에서 호조를 이어가며 최장기간 순위권 내 안착
  - 삼성전자는 보급형 제품인 갤럭시A13이 4위, 갤럭시A03이 10위로 LTE 스마트폰 중 유일하게 상위권에 자리했으나, 주력 플래그십 제품인 갤럭시S는 순위권 밖에 위치
    - ※ 갤럭시A13·A03은 저가 모델로 미국·중국 등 주요 시장 외에도 인도·동남아·중남미 등 지역별 판매량이 고르게 분포. 특히 갤럭시A03은 상위 10개 제품 중 최저가로 중남미·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선전
  - 삼성전자가 보급형부터 프리미엄 제품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플래그십 제품인 갤럭시S·Z 시리즈는 동남아 등 중저가 중심 시장에서의 판매량 확대에 한계가 존재
    - ※ '22년 기준 업체별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SA, '23.2월) : (애플) 891달러, (삼성전자) 272달러
  - 한편 작년 전체 중 상위 10개 스마트폰의 점유율은 19%를 기록했으며 재고 정리, 프리미엄화 전략 등에 따라 업체들이 제품 라인업을 축소하면서 '23년 상위 10개 제품의 점유율은 확대될 전망
    - ※ 업체들이 카니발리제이션(자사 신제품이 기존 주력제품 시장을 잠식) 최소화를 위해 프리미엄 제품에 집중하고 라인업을 축소함에 따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내 활성화 모델 수는 ('21년) 4,200개 이상 → ('22년) 약 3,600개로 감소
- 다만 갤럭시A 시리즈의 인기 등을 기반으로 삼성전자는 '22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수성했으며, 뒤이어 애플이 2위에 자리매김(SA, '23.2월)
  - 삼성전자는 GOS(게임 최적화 서비스) 사태로 갤럭시S22 시리즈 판매량이 목표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A 시리즈 호조, 폴더블 시장 선점 등으로 '22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2억 5,970만 대를 기록하며 12년 연속 점유율 1위(21.7%)를 차지
    - ※ GOS는 고사양 게임 실행 시 발열 최소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기기 성능을 낮추는 기능으로 삼성전자가 갤럭시S22 시리즈에 해당 기능을 의무화하면서 게임 실행 시 버벅거림 등의 현상이 발생. 이에 따라 일부 구매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사건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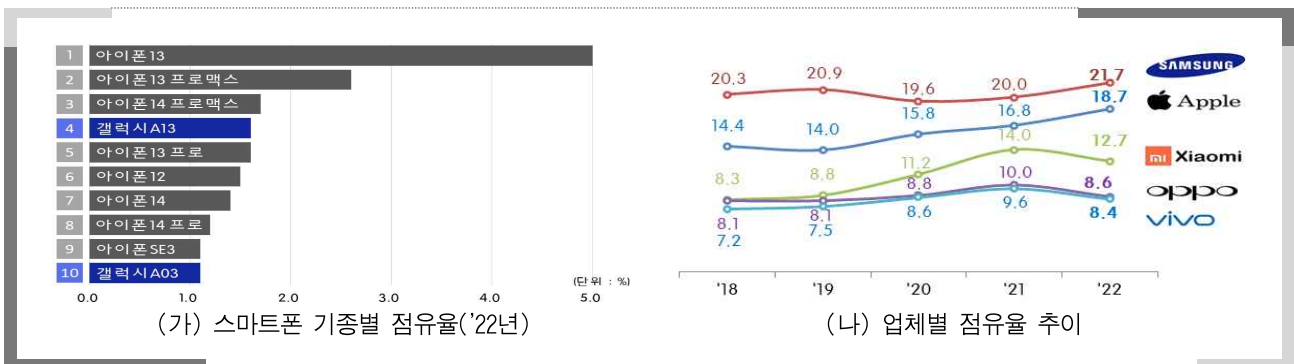
- 한편 삼성전자와 달리 플래그십 제품 중심의 판매 전략을 펼치는 애플은 중국 정저우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 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프리미엄 제품 선호도 증가 등에 따라 점유율을 전년 대비 1.9%p 올리며 18.7%를 차지해 삼성전자를 추격

※ '22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카운터포인트리서치, '23.3월) : (애플) 75%, (삼성전자) 16%

- 중국 내수 시장 침체와 더불어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저소득층의 수요 급감 등으로 저가폰 판매가 부진하면서 샤오미(12.7%)·오포(8.6%)·비보(8.4%) 등 중국 업체들은 점유율이 하락

※ 샤오미(평균판매가격 162달러)·오포(201달러)·비보(219달러) 등 중국 업체는 저가 위주로 제품을 생산

**그림 1-7 전 세계 스마트폰 기종별 점유율 및 업체별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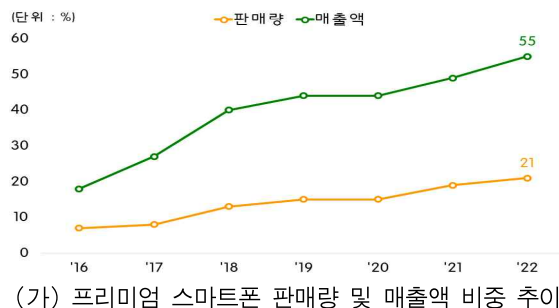
자료 : 카운터포인트리서치, 2023.3. / SA, 2023.2.

## □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에 따라 중국 업체들도 고사양·고가 제품에 투자

- '22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대비 건조한 고소득층의 소비 등으로 프리미엄 시장이 성장하면서 중국 업체들도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
  -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고소득층의 소비 강세 지속, 고가 제품을 오래 사용하려는 경향, 업그레이드 수요 등으로 성숙 시장 및 신흥 시장 전반에 걸쳐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
  - 이에 따라 '22년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대비 12% 위축됐으나, 프리미엄(600달러 이상)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1% 성장한 2억 5,200만 대를 기록(카운터포인트리서치, '23.3월)
    - ※ '22년 전 세계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의 21%에 불과하였으나 매출액 기준으로는 55%를 차지하며 역대 최초로 스마트폰 시장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기록
  - 특히 1,000달러 이상 제품 판매량은 전년 대비 38%나 성장하는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인기가 확대됨에 따라 저가 제품 위주로 생산하던 중국 업체들도 성능을 향상시킨 고가 제품을 출시
- 중국 업체들은 'MWC 2023'에서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에 출시
  - 전 세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가성비를 앞세운 중저가 제품 중심의 판매 전략을 펼치던 중국 업체들도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투자하며 판매 전략을 변경

- 이에 따라 ‘MWC 2023’에서 샤오미, 아너 등 중국 업체들이 프리미엄 제품을 공개하는 등 삼성 전자·애플이 주도하는 고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될 전망
  - ※ MWC 2023(Mobile World Congress 2023)은 '23.2.27일에서 '23.3.2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박람회. ‘Velocity: Unleashing tomorrow’s technology-today’를 주제로 5G·AI·자율주행·디지털 전환 등 혁신기술을 전시
- (샤오미) 퀄컴의 차세대 AP인 스냅드래곤8 2세대 탑재, 고속충전 지원, 라이카(독일 카메라 제조 업체)와 공동 개발한 트리플 카메라 장착 등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프리미엄 제품 샤오미13, 샤오미13 프로 출시 행사를 진행하며 글로벌 시장에 공개
  - ※ '22.12월 중국에 출시된 샤오미13 시리즈는 중국 시장 대비 가격을 높여 128GB 기준 샤오미13 999유로, 샤오미13 프로 1,299유로로 책정해 글로벌 시장에 출시
- 한편 샤오미13 일반형·프로와 함께 출시한 샤오미13 라이트는 퀄컴 스냅드래곤7 1세대를 장착하는 등 사양을 낮추고 낮은 가격(499유로)을 책정해 가성비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들의 구매도 유도할 예정
- (아너) '22.11월 중국에서 출시한 세로로 접히는 형태의 폴더블폰 ‘매직 Vs’ 등을 전시했으며, 512GB 기준 1,599유로의 가격으로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
- 매직 Vs는 퀄컴 스냅드래곤8+ 1세대 장착, 고속충전 지원, 54MP 소니 IMX800 메인 센서가 포함된 트리플 카메라 탑재 등 고성능 기능과 함께 스타일러스 펜도 지원
- 한편 퀄컴 스냅드래곤8 2세대 탑재, 5,000만 화소 3.5배~100배 망원 줌 등 트리플 카메라 장착 등 전작 대비 성능을 높인 플래그십 제품 ‘매직5 프로’도 공개
- (오포) 갤럭시Z 플립과 동일한 ‘클램셸’ 형태의 폴더블 스마트폰 ‘파인드 N2 플립’을 영국·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며 갤럭시Z 시리즈와 경쟁을 펼칠 전망
  - ※ 또한 파인드 N2 플립과 함께 출시한, 갤럭시Z 폴드와 같이 세로로 접히는 형태의 ‘파인드 N2’도 공개
- 파인드 N2 플립은 3.26인치 외부 디스플레이 탑재, 4,300mAh 배터리 용량 적용 등 1.9인치 외부 디스플레이, 3,700mAh 배터리를 적용한 갤럭시Z 플립4보다 상향된 부분이 있으나, 방수 기능 및 무선충전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결점도 존재

그림 1-8 |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량·매출액 비중 추이 및 제품 이미지



(나) 샤오미13·매직 Vs·파인드 N2 플립 이미지

자료 : 카운터포인트리서치, 2023.3. / 언론 자료 재인용



## 1) 수출 동향

### □ 부분품의 증가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완제품이 하락하면서 '23.2월 휴대폰 수출은 반락

- **(품목별)** 부분품은 성장세를 지속했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완제품이 하락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한 10.3억 달러를 기록하며 반락
  - (휴대폰 완제품 : 1.7억 달러,  $\Delta 36.2\%$ ) 미국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신제품 출시('23.2.17일 갤럭시 S23 시리즈 출시)에 따른 수요는 견조했으나,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휴대폰 교체주기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하며 수출은 하락 반전
  - (휴대폰 부분품 : 8.5억 달러,  $4.8\% \uparrow$ ) 상반기 신규 스마트폰 생산 등에 따른 카메라 모듈·AP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확대로 '23.1월 반등 후 2개월 연속 성장세를 지속
    - ※ 주요 생산 거점별 부분품 수출 : 중국(홍콩 포함, 6.1억 달러,  $7.9\% \uparrow$ ), 베트남(1.4억 달러,  $\Delta 16.4\%$ ), 인도(0.1억 달러,  $74.1\% \uparrow$ )
- **(지역별)** 중국(홍콩 포함)·미국 등은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베트남·EU 등은 하락을 기록
  - 중국(홍콩 포함, 6.2억 달러,  $7.5\% \uparrow$ )은 비보·오포 등 자국 업체의 견조한 판매 지속 등으로 완제품( $\Delta 16.6\%$ )이 감소 다만 폭스콘 정저우 공장 등 중국 주요 휴대폰 제조 공장들이 정상화됨에 따라 카메라 모듈·커버(프레임, 힌지 등) 등 부분품( $7.9\% \uparrow$ )이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상승
  - 베트남(1.4억 달러,  $\Delta 14.4\%$ )은 완제품( $149.0\% \uparrow$ )이 세 자릿수 성장을 달성했음에도 카메라 모듈·PCB·커버(프레임, 힌지 등) 등 부분품( $\Delta 16.4\%$ )이 하락하면서 내림세를 지속
  - 미국(1.2억 달러,  $73.5\% \uparrow$ )은 부분품( $\Delta 11.9\%$ )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의 상반기 신제품의 견조한 수요 등에 따라 완제품( $151.8\% \uparrow$ )이 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성장을 견인
  - EU(0.6억 달러,  $\Delta 62.8\%$ )는 부분품( $51.7\% \uparrow$ )은 성장한 반면 완제품( $\Delta 72.3\%$ )이 부진함에 따라 하락 전환

**표 1-8 | 휴대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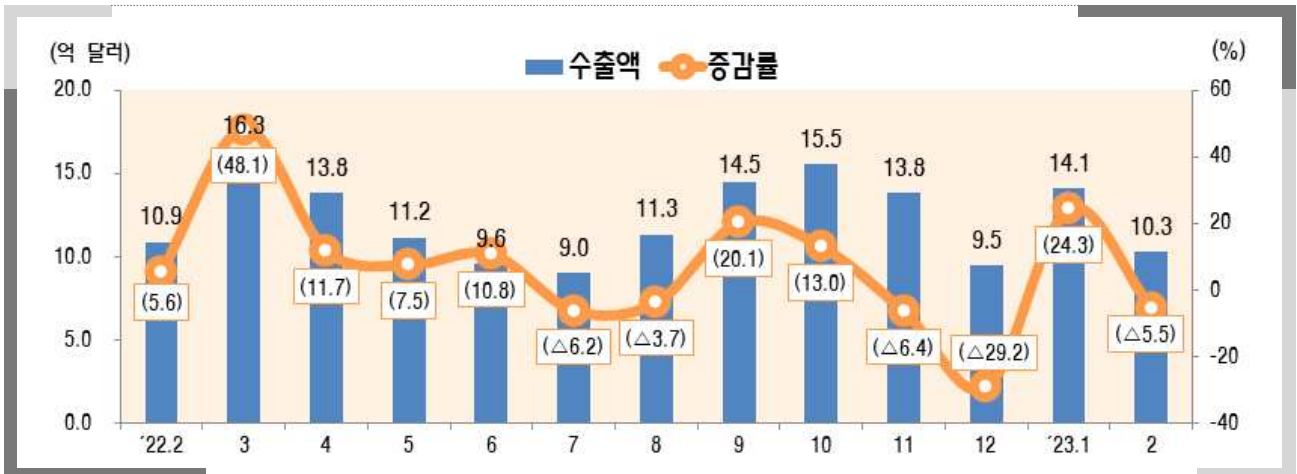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휴대 단말기	10.9 (5.6)	16.3 (48.1)	13.8 (11.7)	11.2 (7.5)	9.6 (10.8)	9.0 ( $\Delta 6.2$ )	11.3 ( $\Delta 3.7$ )	14.5 (20.1)	15.5 (13.0)	13.8 ( $\Delta 6.4$ )	9.5 ( $\Delta 29.2$ )	14.1 (24.3)	10.3 ( $\Delta 5.5$ )
완제품	2.7 ( $\Delta 37.0$ )	7.7 (75.2)	5.7 ( $\Delta 0.6$ )	4.2 (2.0)	4.6 (18.3)	3.0 ( $\Delta 22.2$ )	2.5 ( $\Delta 34.9$ )	4.1 (23.5)	2.9 ( $\Delta 28.8$ )	2.8 ( $\Delta 34.5$ )	0.9 ( $\Delta 76.6$ )	3.4 (174.1)	1.7 ( $\Delta 36.2$ )
부분품	8.1 (36.5)	8.7 (30.3)	8.1 (22.2)	6.9 (11.1)	5.0 (4.6)	6.0 (4.6)	8.8 (11.8)	10.4 (18.9)	12.7 (30.2)	11.0 (5.1)	8.6 ( $\Delta 11.2$ )	10.7 (5.7)	8.5 (4.8)

자료 : IITP, KTSPI





그림 1-9 | 휴대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9 | 휴대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2년 연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73.2	47.9	49.9	중국	6.1	7.8	59.2	14.3	13.6	58.6
2	베트남	18.8	-35.9	12.8	베트남	1.4	-14.4	13.9	2.9	-26.1	11.8
3	미국	10.5	-57.1	7.2	미국	1.2	73.5	11.8	3.1	96.0	12.7
4	독일	5.8	21.2	3.9	필리핀	0.2	2815.6	2.2	0.7	4697.8	3.0
5	영국	5.3	1.0	3.6	독일	0.2	-49.5	1.9	0.6	50.7	2.6
6	오스트리아	5.1	170.3	3.5	일본	0.1	-53.2	0.9	0.3	-21.5	1.2
7	인도	3.8	13.2	2.6	홍콩	0.1	-9.9	0.9	0.1	-32.5	0.6
8	캐나다	2.8	77.7	1.9	네덜란드	0.1	-62.8	0.9	0.2	-28.0	0.8
9	네덜란드	2.8	108.8	1.9	영국	0.1	-52.2	0.8	0.2	15.4	1.0
10	일본	2.3	2.9	1.6	캐나다	0.1	108.1	0.8	0.1	-67.6	0.4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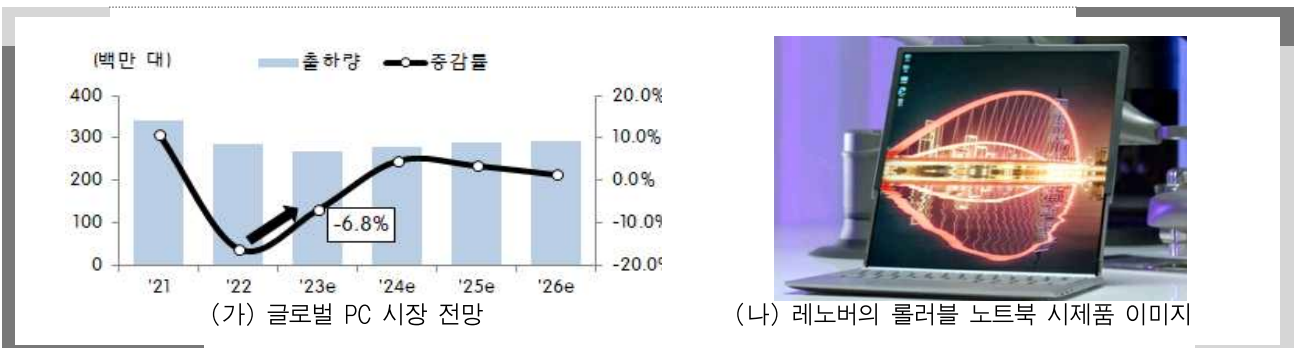
## 5 컴퓨터 및 주변기기

### 1) 수출 환경

#### □ 올 PC 시장은 경제 불확실성 확대, 상반기 수요 부진 등으로 회복기 진입이 어려울 전망

- (시장 전망) '23년 글로벌 PC 시장은 상저하고 양상을 보이며 하락세가 둔화되겠으나 2년 연속 역성장 기조는 지속될 전망
  - '22년 PC 시장(2억 8,405만 대, △16.9%)은 코로나 특수 종료, 러·우 전쟁, 고강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력 약화, 중국의 봉쇄 조치, 부분품 공급난 등으로 두 자릿수 하락 기록(Gartner, '23.2월)
    - ※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19년 PC 출하량은 2억 7,866만 대, 1.4%↑)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
  - 올해(2억 6,768만 대, △6.8%)도 높은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회복 어려움 등으로 하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나 하반기로 시작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이 예상되면서 한 자릿수 감소에 그칠 전망(Gartner, '23.1월)
- 글로벌 시장 침체 속, 레노버가 고성능 신제품을 대거 출시한 가운데 롤러블 제품도 선보여 눈길
  - (Lenovo) '23.2.27~3.2일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MWC 2023(Mobile World Congress)'에 참가해 롤러블 콘셉트의 노트북(프로토타입)을 전시해 주목
  - 펼치기 이전의 화면 크기는 4:3 비율의 12.7인치로 일반 노트북과 비슷하나, 우측 스위치를 눌러 화면을 펼칠 경우 디스플레이가 수직으로 확장되며 8:9 화면비의 15.3인치로 확대되는 점이 특징
    - ※ '22.9월 이미 폼팩터에 변화를 준 폴더블 노트북 '씽크패드 X1 폴드 2세대'를 출시한 바가 있으나 한차례 더 획기적인 롤러블 제품을 선보여 주목. 다만 내구성 등의 문제로 상용화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관측
  - 이외에도 인텔의 13세대 CPU, AMD의 라이젠 7000 시리즈 CPU를 탑재하고 지속가능한 소재를 적용한 씽크패드 시리즈('Z'·'X13'·'T'·'L' 등) 노트북 신제품 등도 대거 공개

그림 1-10 | 글로벌 PC 시장 전망 및 레노버의 롤러블 노트북 시제품 이미지



자료 : Gartner, 2023.1. / 언론 자료 재인용

## □ (태블릿PC) 라우 전쟁 여파, 中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지난해 시장은 하락 국면 지속

- (시장 규모) '22년 태블릿PC 시장(1억 5,135만 대,  $\Delta 2.8\%$ )은 역성장 기록(Gartner, '23.2월)
  - 글로벌 태블릿PC 시장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코로나 특수 종료에 따른 수요 절벽 등으로 '22.3분기(3,609만 대,  $\Delta 10.2\%$ )까지 5분기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22.4분기(4,363만 대,  $16.6\% \uparrow$ ) 애플의 신제품 출시(10.26일) 및 판매 호조 효과 등으로 성장 전환해 눈길
  - 다만 4분기 두 자릿수대의 상승 반등에도 불구하고 '22.상반기(7,163만 대,  $\Delta 8.2\%$ ) 부진을 극복하지 못하며 '22년 전체 시장은 2년 연속 내림세에 그친 것으로 관측
  - ※ 한편 PC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전('19년 태블릿PC 출하량은 1억 2,785만 대,  $\Delta 5.0\%$ )보다는 높은 수준
- (경쟁 현황) 선두 업체들의 태블릿 시장 주도권은 한층 더 강화('21년 점유율 65.6%  $\rightarrow$  '22년 67.6%)된 반면 레노버는 출하량이 크게 감소하며 한 자릿수대 점유율로 추락
  - 애플(7,335만 대,  $2.3\% \uparrow$ )은 4분기 신제품 판매 호조 등으로 완만한 상승을 보이며 1위( $48.5\%$ )를 수성. 삼성전자(2,891만 대,  $\Delta 4.9\%$ )는 수요 부진 속에서도 프리미엄 제품에 집중하는 전략 등으로 소폭 하락에 그치며 2위( $19.1\%$ )를 고수
  - 한편 레노버(1,075만 대,  $\Delta 32.4\%$ )는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수요 감소, 높은 재고 수준 등으로 업체 평균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 점유율도 '21년  $10.2\% \rightarrow$  '22년  $7.1\%$ 로 감소
  - 이어 아마존(1,075만 대,  $\Delta 6.4\%$ ), 화웨이(663만 대,  $31.9\% \uparrow$ )가 각각 4( $5.6\%$ ), 5위( $4.4\%$ )를 차지
  - (지역별) '22년 고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등 좋지 않은 여건이 지속됐으나 북미( $4,419$ 만 대,  $3.9\% \uparrow$ )·아시아/태평양( $2,056$ 만 대,  $4.4\% \uparrow$ ) 등은 성장세를 기록
  - 반면 동유럽( $511$ 만 대,  $\Delta 36.2\%$ )은 라우 전쟁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으며 최악 수준의 낙폭을 기록했으며 서유럽( $3,206$ 만 대,  $\Delta 12.4\%$ ) 또한 에너지 부족, 전쟁 간접 여파 등으로 두 자릿수 감소

그림 1-11 | 글로벌 태블릿PC 시장 규모 및 업체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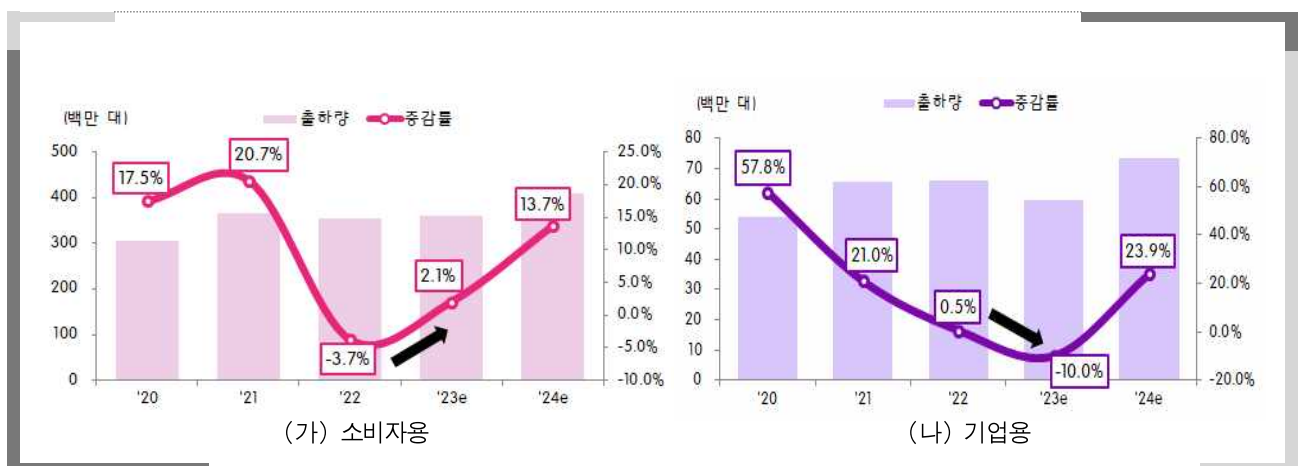


자료 : Gartner, 2023.3.

## □ (SSD) 지난해의 일시적 하락을 딛고 '23년 상승 반전하며 성장 궤도 재진입 전망

- (시장 전망) '23년 SSD 출하량은 전년 대비 0.9% 증가한 4억 5,296만 대로 반등 전망
  - 올해 소비자용 SSD 출하량(3억 6,104만 대, 2.1%↑)은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단되었던 PC·노트북 제조업체의 공장 가동이 재개되고 하반기 경기 회복 전망, 견고한 게이밍 수요 등 긍정적 여건들이 더해지면서 반등, 회복 사이클에 진입할 전망
  - 반면 기업용 SSD 출하량(5,936만 대, △10.0%)은 고물가·고금리 등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요 IT 업체들이 데이터센터·서버용 투자를 보수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두 자릿수 감소를 보이며 반락할 것으로 관측
  - 다만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 등장 등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향후 데이터센터용 SSD 수요도 동반 성장하며 '24년 기업용 SSD 시장은 다시 상승 국면에 올라설 전망
- (업체 동향)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고성능 SSD 신제품을 출시
  - (삼성전자)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전력효율을 구현한 PCIe 4.0 기반의 PC용 NVMe SSD 'PM9C1a'를 출시(1.12일). 연속 읽기·쓰기 성능은 각각 6,000MB/s, 5,600MB/s로 전작 대비 1.6배, 1.8배가량 빨라진 점이 특징
  - 또한 5나노 기반의 컨트롤러와 7세대 V낸드를 탑재해 전작 대비 전력 효율이 최대 70%가량 향상돼 눈길
  - (마이크론) 고성능 데이터센터용 SSD '9400 NVMe'를 출시해 주목(3.9일). 이전 제품 대비 초당 입출력 횟수(160만 회)는 77% 개선하였고 용량(30.72TB)도 두 배가량 확대해 인공지능·머신러닝 등 데이터 처리량이 많은 작업 수행에 효과적

그림 1-12 | 글로벌 소비자용 및 기업용 SSD 시장 전망



자료 : Gartner, 2023.2.



## 2) 수출 동향

## □ '23.2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SSD 수요 급감 등으로 2개월 연속 10억 달러 하회

- (품목별)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SSD 수출이 큰 폭 감소하며 8개월 연속 하향세
  - (컴퓨터 : 0.8억 달러, 2.6%↑) 소형(0.1억 달러, △10.2%) 및 중대형컴퓨터(0.2억 달러, △15.6%) 등은 크게 하락한 반면 부품품(0.4억 달러, 12.6%↑)은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 봉쇄 조치 종료 등에 따라 14개월 만에 부진을 딛고 성장 전환해 눈길
  - (주변기기 : 5.8억 달러, △61.7%) 모니터(1.2억 달러, 21.9%↑), 프린터(0.3억 달러, 1.6%↑) 등은 반등하였으나 SSD(3.7억 달러, △72.0%)는 글로벌 IT 업체들의 데이터센터·서버向 투자 냉각 등으로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8개월 연속 감소
- (지역별) 중국(홍콩 포함)·미국 등 주요 교역국 수출은 하락, 다만 베트남 등은 상승해 눈길
  - 중국(홍콩 포함, 1.8억 달러, △61.1%)은 컴퓨터는 반등(0.4억 달러, 23.3%↑)하였으나 프린터·SSD 등 주변기기(1.5억 달러, △66.7%) 수출이 부진하며 지속 하락
  - 미국(1.6억 달러, △69.6%)은 프린터(0.1억 달러, 7.9%↑)·모니터(0.3억 달러, 10.2%↑) 등의 상승 반전에도 불구하고 SSD 수출(1.1억 달러, △77.4%)의 가파른 감소 행진으로 부진 지속
  - 베트남(0.5억 달러, 35.8%↑)은 모니터 수출(0.3억 달러, 36.9%↑) 호조 등으로 고성장세 기록

표 1-10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15.8 (47.7)	17.9 (36.9)	17.6 (57.7)	17.7 (32.8)	16.9 (13.4)	12.1 (△21.9)	12.6 (△25.4)	15.4 (△20.2)	10.3 (△30.9)	9.7 (△45.2)	11.7 (△29.5)	6.3 (△58.7)	6.5 (△58.6)
컴퓨터	0.8 (△49.8)	0.7 (△61.4)	0.9 (△44.8)	0.9 (△53.0)	0.9 (△51.5)	0.9 (△58.0)	0.7 (△60.1)	0.8 (△60.1)	0.7 (△66.2)	0.8 (△63.0)	1.1 (△52.6)	0.7 (△24.3)	0.8 (2.6)
부품	0.4 (△69.0)	0.4 (△74.8)	0.5 (△62.6)	0.5 (△68.4)	0.5 (△66.8)	0.5 (△71.2)	0.4 (△75.7)	0.4 (△76.8)	0.4 (△77.5)	0.4 (△77.2)	0.6 (△69.1)	0.5 (△15.6)	0.4 (12.6)
주변기기	15.0 (63.9)	17.2 (52.8)	16.7 (75.4)	16.8 (47.5)	16.0 (22.8)	11.2 (△16.3)	11.9 (△21.3)	14.6 (△15.6)	9.6 (△25.2)	8.9 (△42.7)	10.5 (△25.7)	5.6 (△61.0)	5.8 (△61.7)
보조기억 장치	13.2 (69.2)	14.2 (54.9)	14.4 (91.2)	14.1 (45.7)	13.5 (21.0)	8.7 (△22.2)	9.8 (△28.0)	12.3 (△19.8)	7.4 (△31.5)	6.8 (△51.3)	8.1 (△34.3)	3.2 (△73.4)	3.7 (△72.0)
프린터	0.3 (0.5)	0.4 (17.2)	0.4 (△0.7)	0.4 (3.4)	0.4 (△8.2)	0.4 (16.0)	0.4 (62.7)	0.4 (19.1)	0.4 (35.3)	0.3 (△4.4)	0.4 (△2.7)	0.3 (△30.2)	0.3 (1.6)
모니터	1.0 (111.9)	1.2 (119.2)	1.1 (125.8)	1.1 (101.9)	1.0 (72.2)	1.1 (51.7)	1.0 (64.3)	1.1 (55.9)	1.1 (56.1)	1.1 (41.7)	1.2 (35.8)	1.1 (△15.7)	1.2 (21.9)

자료 : IITP, KTSPI



그림 1-13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2년 연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64.0	12.7	37.0	미국	1.6	-69.6	24.3	3.1	-68.3	24.2
2	중국	32.9	-26.5	19.0	중국	1.3	-57.2	19.9	2.2	-67.1	17.5
3	홍콩	18.5	-3.3	10.7	홍콩	0.5	-68.5	7.8	1.1	-70.0	8.5
4	네덜란드	7.2	52.2	4.2	베트남	0.5	35.8	7.0	0.9	25.9	6.8
5	일본	6.8	22.8	4.0	일본	0.3	-23.7	5.1	0.9	9.4	7.0
6	대만	4.4	-10.6	2.5	폴란드	0.3	1.3	5.1	0.5	-34.4	3.7
7	베트남	4.3	194.9	2.5	대만	0.2	-64.5	3.2	0.4	-56.9	3.2
8	싱가포르	4.2	-1.5	2.5	네덜란드	0.2	-76.2	2.8	0.4	-78.3	2.7
9	멕시코	4.0	-15.4	2.3	체코	0.2	-42.0	2.4	0.3	-45.7	2.0
10	폴란드	3.4	36.4	2.0	독일	0.2	-40.7	2.4	0.3	-41.3	2.4

자료 : IITP, KTSPI





## 1) 수출 환경

## □ 올해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은 호조 전망,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각광

- (시장 전망) '23년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749GWh, 45%↑)은 고성장을 지속할 전망
  -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 완화, 친환경 정책 확산,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라인업 확대 등에 따른 전기차로의 교체 가속으로 '23.1월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33.0GWh, 18.1%↑)은 31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데 이어 '23년도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성장 기조가 이어질 전망
  - (경쟁 현황) '23.1월 CATL(11.2GWh, 6.5%↑)은 中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으로 전년 대비 점유율(33.9%)이 3.7%p 하락하였고 성장폭도 시장 평균을 크게 하회하였으나 글로벌 1위를 굳건히 수성
  - BYD(5.8GWh, 78.8%↑)는 내수 시장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23.1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6.2%)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성장세를 지속하며 2위(17.6%) 기록
  - 국내 3사는 전방 수요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점유율이 3.3%p 증가(23.2%)하였으며 LG에너지솔루션(4.3GWh, 51.3%↑), 삼성SDI(1.8GWh, 52.6%↑), SK on(1.5GWh, △1.2%)이 각각 3, 5, 6위를 차지
  - 日 파나소닉(3.7GWh, 45.3%↑)은 테슬라·도요타 전기차 판매 증가 등에 힘입어 4위(11.2%) 기록

## ○ EU의 핵심원자재법 발표 등과 더불어 '25년 폐배터리 시장이 본격 확대될 전망

- '22.2월 EU는 폐배터리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배터리법 수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3.16일 역내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 방안을 담은 핵심원자재법(CRMA)<sup>5)</sup> 초안을 발표
  - ※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에 따르면 폐배터리 회수율 목표는 이동식의 경우 '25년 70% → '30년 80%, 전기 자전거의 경우 동 기간 75% → 80% 등으로 지정
- 게다가 전기차 시장 성장 지속과 함께 '25년 전기차용 이차전지(수명은 통상 5~10년) 교체 주기 도래가 예상되면서 '25년 폐배터리<sup>6)</sup> 시장이 본격 성장 전망
  - ※ 폐배터리 발생량은 '25년e 44GWh → '30년e 338GWh → '40년e 3,339GWh에 달할 전망(SNE리서치, '23.2월)
- 폐배터리 기술을 이용해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을 최대화할 경우 자원의 선순환을 통한 탄소 중립도 이행되고 원자재 공급망 확보 등도 유리해, 원자재 가격 폭등 속에서 폐배터리 시장에 더욱 이목이 집중될 전망

5) '30년까지 제3국에서 생산된 리튬·희토류 등의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주요 목표이며, 세부적으로는 전략적 원자재 연간 소비량의 최소 15% 재활용 등을 달성하겠다는 구상 제시

6) 폐배터리는 진단을 통해 재사용(Reuse, ESS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재활용(Recycling, 이차전지에서 니켈·코발트·리튬 등 유가 금속을 추출)으로 구분

**그림 1-14 | 전기차용 이차전지 및 폐배터리 재활용(Recycling)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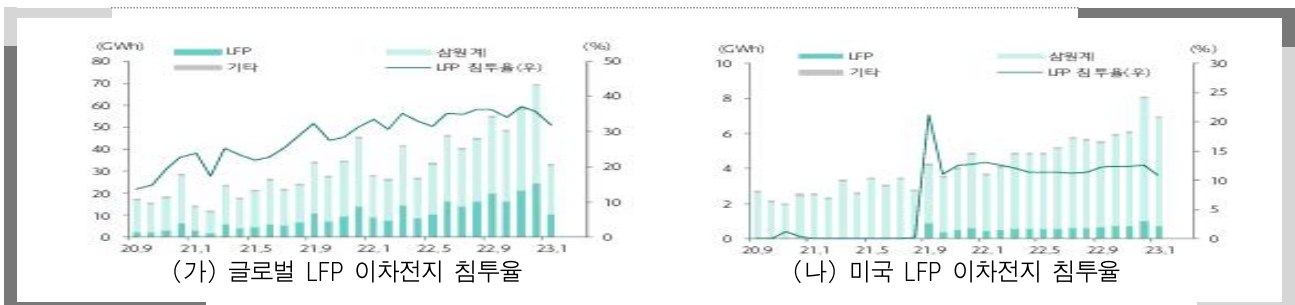
자료 : SNE리서치, 2023.3.

## □ 中 이차전지 시장에서도 가격 공세 예고, 국내 업체는 주력 제품과 함께 LFP 개발에 정진

- **(CATL)** 이차전지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CATL은 이차전지 가격을 큰 폭 인하해 주목, 일각에서는 치킨게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3.6일)
  - '23년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따른 자국 내 전기차 수요 둔화 및 시장 점유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CATL은 '23.3분기부터 LFP(리튬·철·인산) 이차전지 주원료인 탄산리튬 가격(32만 위안/t → 20만 위안/t)을 15%가량 낮춰 책정할 것이라 발표
  - 이러한 핵심 원료 가격 하락에 따라 이차전지 공급 가격도 동반 하락할 것으로 전망. 특히 이 같은 가격 하락 혜택은 '23.3분기 이후 3년간 전체 이차전지 사용량의 80% 이상을 CATL에 의존하고 있는 업체에만 한정해 제공할 것이라 발표. 이는 글로벌 시장 순위 고수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
    - ※ 혜택을 누릴 업체는 중국 완성차 업체인 니오·화웨이·지커 등으로 예상되며 동 업체들은 CATL의 저가 배터리 채용으로 中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따라 대규모 할인 전략에 들어간 테슬라에 대응해 가격 우위를 도모
  - 다만 향후 CATL의 이차전지 가격 공세가 지속될 경우 NCM(니켈·코발트·망간) 이차전지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업체도 가격인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경쟁력 보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 ※ 탄산리튬 가격은 하락한 반면 국내 업체의 주원료인 니켈은 '22.11월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23.1월 정점 기록
- **美, 中과의 '기술 제휴'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해 포드-CATL 협력에 차질 발생**
  - 지난 '22.12월 포드는 CATL과 미시간주에 35억 달러를 투자해 연 40만GWh 규모의 이차전지 합작 공장 설립을 추진. 포드가 공장 지분 100%를 보유하고 CATL은 LFP 이차전지 기술만을 제공한 뒤 로열티 수익을 지급받는 구조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sup>7)</sup> 허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
  - 이에 美 상원 의원은 '중국 기술을 사용해 만드는 전기차 이차전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법안'을 상원에 발의(3.9일)하며 중국과의 기술 제휴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 이로 인해 포드-CATL 간 합작 건설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되며 향후 귀추에 주목

7) IRA 규정상 미국산 이차전지 원료·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고 미국에서 최종 조립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규정되어 있으나 기술 관련 규제는 미비

- **(국내 업체)** 기존 NCM 이차전지에 주력했던 국내 업체는 中이 주도하고 있는 LFP 이차전지로 사업 영역 확장을 예고 중국의 굴기에 맞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
  - 기존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 주행거리, 충전 시간 등의 측면에서 성능이 뛰어난 NCM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하이엔드 시장을 공략
  - 하지만 최근 전기차 이차전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CATL의 가격 인하 정책, 완성차 업체들의 LFP 이차전지 채택 증가 등으로 국내 업체는 LFP 이차전지(NCM 대비 가격이 20~30% 저렴)로도 사업 확장을 결정
- ※ 주요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등도 원가 절감을 위해 LFP 이차전지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로 국내 업체의 LFP 시장 진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

**그림 1-15 | 글로벌 및 미국 LFP 이차전지 침투율**


자료 : SNE리서치, 하나증권, 3.20. 재인용

- **(LG에너지솔루션)** ‘인터배터리 2023(3.15~17일)’서 ESS용 LFP 이차전지 시제품을 공개. ’23년 중국 난징 공장 일부 라인을 LFP 이차전지(ESS용)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고 ’24년엔 美 미시간주 제2공장에 신규 LFP 생산라인(전기차용)을 추가 구축할 예정
  - ※ 현재 한국 충북 오창 공장의 파일럿 라인을 통해 전기차용 LFP 이차전지 생산을 테스트 중인 상황
- 또한 동 사는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도입을 밝힌 차세대 4680(지름 46mm, 높이 80mm) 이차전지 양산 라인을 오창 공장에 구축 시작(3.6일). 4680 이차전지는 연내 양산될 예정이며 기술력·양산능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며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방침
  - ※ 주요 경쟁사인 파나소닉은 국내 업체보다 다소 늦은 ’24.3월 말부터 4680 이차전지 양산을 시작할 전망
  - ※ 한편 ’22.10월 LG에너지솔루션의 사내 독립기업으로 출범한 쿠루는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 전기이륜차용 배터리팩을 충전이 아닌 교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을 선보이며 ’23년 내 사업 본격 시작을 예고
- **(SK on)** 동 사는 기존 파우치형 NCM 이차전지에 주력해왔으나 이번 인터배터리 2023서 각형 이차전지(삼성SDI, CATL의 주력 품목) 실물을 첫 공개. 충전 속도가 매우 빠른 점 등이 장점이며 다양한 폼팩터 개발을 통해 완성차 업체의 요구에 맞춰 수주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
- 이외에도 고가의 코발트를 제외한 ‘코발트 프리(Co-Free)’ 이차전지, 영하 20도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도 주행거리가 개선된 LFP 이차전지 시제품, 차세대 전고체 이차전지 등을 공개

※ 한편 SK on은 국내 3사 중 전기차용 LFP 이차전지를 처음으로 생산한 업체

- (삼성SDI) 3.8일 美 GM과 합작사 설립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이목이 집중. GM은 기존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을 지속해왔으나 전기차용 이차전지 수급 안정화 등을 위해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벗어나 삼성SDI를 새로운 파트너사로 채택해 주목

※ 삼성SDI가 주력하고 있는 원통형 이차전지는 여러 개를 넣을 경우 빈 공간이 생기는 단점이 있으나 각형·파우치형과 달리 공통 규격이 존재하는 장점이 있어 대규모 공정 시 안전성·효율성 측면에서 우수

- 양사는 총 3~5조 원을 투자해 '26년까지 연간 30~50GWh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합작 공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원통형·각형 이차전지는 GM에 납품될 예정

〈이차전지 품팩터별 특징〉					
종류	제조업체	이미지	적층 단면	장점	단점
파우치형	LGES, SK on			- 불용공간 최소화, 고밀도 배터리셀 가능 - 다양한 모양 제작 가능	- 복잡한 공정과 난이도
각형	CATL, BYD, 삼성SDI, 파나소닉			- 알루미늄캔 외피로 둘러싸여 비교적 안전 - 대량생산에 용이	- 상대적으로 복잡한 공정
원통형	LGES, 파나소닉, 삼성SDI			- 긴 역사와 안정적인 생산방식 - 원가 경쟁력 우위	- 상대적으로 에너지밀도 열위

주 : 는 각각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자료 : DS투자증권 재인용

## 2) 수출 동향

### □ '23.2월 축전지 수출은 전년 대비 25.3% 증가한 8.7억 달러로 3개월 연속 성장

- (품목별) 반도체 수급난 완화에 따른 전기차 생산 확대 등으로 2월 기준 역대 최대치 기록
  - ※ 역대 2월 축전지 수출 Top5(억 달러) : (1위) '23년 8.7, (2위) '22년 6.9, (3위) '21년 6.3, (4위) '20년 5.7, (5위) '19년 5.5
- (축전지 : 8.2억 달러, 29.6%↑) 전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 시행 등으로 전기차용(2.7억 달러, 71.2%↑), ESS용(2.0억 달러, 106.6%↑) 축전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오름세
- (부분품 : 0.5억 달러, △20.2%) 미국·폴란드 등은 반등했으나 중국(홍콩 포함) 등으로의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3개월 연속 하락 곡선
- (지역별) 독일·중국(홍콩 포함) 등은 하락세가 지속되나 미국·헝가리 등은 상승 기록
  - 미국(4.0억 달러, 84.7%↑)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등으로 축전지(3.9억 달러, 86.1%↑) 등의 수요 호조와 더불어 부분품(0.1억 달러, 44.2%↑) 반등 등으로 장기간 성장 지속
  - 독일(0.7억 달러, △12.1%)은 '23년 전기차 보조금 축소, 구매력 약화 등으로 축전지(0.7억 달러, △12.2%) 수요가 위축되면서 5개월 연속 하락, 다만 감소폭은 전월 동기 대비 10.5%p 둔화
  - 헝가리(0.5억 달러, 65.8%↑)는 부분품(0.1억 달러, △21.4%)이 하락 전환하였으나 축전지 수요 (0.4억 달러, 105.9%↑) 회복 등에 힘입어 성장 전환하며 2개월 만에 수출 상위 3위를 재탈환



표 1-12 축전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축전기	6.9 (10.8)	8.7 (9.3)	8.1 (12.4)	8.5 (15.8)	8.0 (△1.6)	8.8 (12.1)	9.4 (35.9)	9.5 (30.8)	8.0 (17.0)	7.3 (△1.0)	9.6 (30.0)	8.0 (9.7)	8.7 (25.3)
축전기	6.3 (14.4)	7.9 (11.8)	7.4 (15.1)	7.8 (18.2)	7.3 (△0.9)	8.2 (15.0)	8.7 (41.3)	8.8 (34.2)	7.5 (19.1)	6.7 (△1.3)	8.9 (32.4)	7.5 (13.8)	8.2 (29.6)
부분품	0.6 (△16.2)	0.7 (△16.3)	0.7 (△12.4)	0.7 (△8.7)	0.6 (△14.1)	0.7 (△15.2)	0.7 (△10.7)	0.6 (△7.3)	0.5 (△9.5)	0.6 (1.5)	0.6 (△0.2)	0.5 (△25.6)	0.5 (△20.2)

자료 : IITP, KTSPI

그림 1-16 축전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3 축전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2년 연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41.1	50.0	41.1	미국	4.0	84.7	45.7	7.8	76.8	46.9
2	독일	10.4	5.0	10.4	독일	0.7	-12.1	8.5	1.4	-17.5	8.6
3	중국	6.0	-28.8	6.0	헝가리	0.5	65.8	6.1	0.7	6.8	4.1
4	일본	4.7	35.0	4.7	일본	0.3	34.2	3.8	0.7	4.7	4.2
5	베트남	4.6	17.9	4.6	중국	0.3	-43.5	3.5	0.7	-40.6	4.1
6	폴란드	3.2	-44.4	3.2	대만	0.3	317.3	3.3	0.3	125.9	1.9
7	헝가리	3.1	20.7	3.1	베트남	0.3	-21.2	3.1	0.5	-35.1	2.9
8	인도	2.4	353.3	2.4	슬로베니아	0.2	306.2	2.8	0.4	170.9	2.2
9	대만	2.2	190.9	2.2	인도	0.2	93.5	2.7	0.6	161.7	3.5
10	호주	1.9	-8.3	1.9	벨기에	0.2	591.2	2.5	0.4	386.9	2.4

자료 : IITP, KTSPI



## 7 SW

### 1) 수출 환경

#### □ 중국·미국 등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23년 글로벌 SW 시장은 호조세를 이어갈 전망

- (시장 전망) '23년 글로벌 SW 시장 규모는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IT서비스·패키지SW가 동반 성장하면서 전년 대비 6.9% 증가한 2조 1,686억 달러에 이를 전망(Gartner, '22.12월)
  - 5G·AI·IoT 등 첨단 산업 성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업무 확장성·유연성 향상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 보편화 등 업체들의 SW 수요가 증가하며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기대
  - (IT서비스 : 1조 3,126억 달러, 5.5%↑) 인프라 구현 및 관리 서비스, 하드웨어 지원 분야는 감소하나 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 등으로 서비스형 인프라(IaaS), 컨설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구현 및 관리 서비스 분야가 확대되면서 오름세 유지 전망
  - (패키지SW : 8,560억 달러, 9.3%↑) 사용자 경험 향상, 운영 효율성 개선, 생산성 증대 등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디지털화가 확대. 이에 따라 인프라 및 기업 애플리케이션 SW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
  - 한편 클라우드 도입·디지털 전환 등으로 클라우드 보안 위협, 랜섬웨어 고도화, AI 활용 해킹 등 기업이 보호해야 할 인프라·데이터가 증가하면서 확대된 보안 서비스 수요도 시장 성장을 견인할 전망
- (지역별) 중국·남미 등 대부분의 지역이 성장하는 반면 일본은 내림세 지속 예상
  - 중국(11.2%↑)·남미(10.1%↑)의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되는 가운데 북미(9.8%↑)·중동/아프리카(6.8%↑)·아시아/태평양(4.9%↑) 등 신흥 및 선진 시장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를 예상
  - 코로나19 진정세에 따른 경제 활동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 엔화 약세 등으로 더딘 경제 회복에 보수적 SW시장 상황까지 더해져 일본(△0.8%)은 유일하게 2년 연속 하락

※ 일본 SW 시장 증감률 추이 : ('21년) 3.9% → ('22년E) △12.1% → ('23년E) △0.8%

그림 1-17 전 세계 및 지역별 SW 시장 전망






자료 : Gartner, 2022.12.



## □ 국내 IT 서비스 업체는 물류, 5G, 앱 서비스 등 사업 연구·개발·확대에 집중

- 삼성SDS는 물류 사업 확장, LG CNS는 5G 특화망 기술 역량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SK C&C는 앱 개발 및 안정성 확보 등 국내 주요 IT 서비스 기업들은 사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

**표 1-14**    **국내 IT서비스 업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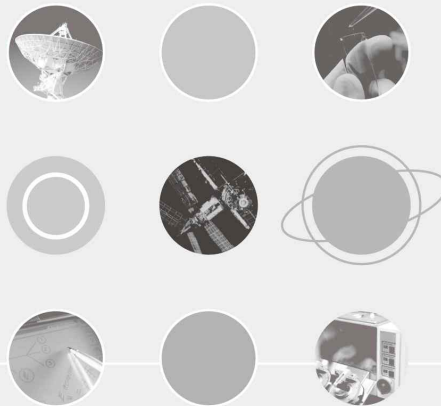
업 체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물류 플랫폼 ‘첼로스퀘어’를 베트남에 공식 출시하는 등 물류 사업의 글로벌 확장을 본격화</li> <li>-아시아의 차세대 주요 물류 거점 국가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되는 베트남에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첼로스퀘어를 출시. 이에 따라 ‘23.3.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시 기념 런칭 행사 ‘첼로스퀘어 2023 컨퍼런스’를 개최해 베트남 물류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제품을 소개</li> <li>※베트남은 풍부한 노동력, 낮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물류량이 많은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이 존재. 또한 최근 미·중 갈등에 따른 기업들의 탈중국화로 베트남이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li> <li>-첼로스퀘어는 물류 서비스가 필요한 베트남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위험 요소를 줄여주는 물류 서비스 도구로서 베트남의 해운 및 물류 산업 발전 촉진에 핵심 역할을 할 전망</li> <li>※첼로스퀘어는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수출입 시 견적·계약·운송·추적·정산 등 물류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AI·IoT 등 신기술을 적용한 IT 기반 수출입 물류 서비스</li> <li>-한편 동 사는 수출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으나, 올해는 북미, 유럽 등 수입 비중이 큰 국가에 집중해 시장 상황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방어하고 신규 고객 발굴에 주력할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물류 등 산업 현장에서의 이음5G 활용도 확대, 고객 비즈니스 경쟁력 혁신 등 이음5G 사업 본격화를 위해 경희대학교와 ‘이음5G 구축 및 연구·개발’을 위한 MOU 체결</li> <li>-경희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통해 스마트팩토리의 설비 상태를 파악하고 이상 징후를 예측·유지·보수하는 ‘스마트팩토리 예지보전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는 등 이음5G를 기반으로 제조·물류 등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솔루션과 서비스 연구·개발을 확대할 계획</li> <li>※이음5G는 공장, 건물 등 특정 범위에 한해 정부에 주파수를 신청함으로써 이동통신 3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5G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 맞춤형 네트워크. 별도의 전용 주파수를 이용해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및 우수한 보안을 강점으로 데이터 실시간 전송·수집·분석이 가능</li> <li>-또한 경희대학교 내 이음5G를 확대 구축해 무인항공기(UAV)·무인운송로봇(AGV)·자율주행로봇(AMR) 등의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드론 배송, 순찰·안내로봇 관련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li> <li>-한편 동 사는 ‘22.3월 이음5G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업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부세종청사 디지털전환 프로젝트 수주, 5G 오픈랩 개소 등 5G 기술 역량 확보 및 선도를 위해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NH농협은행 모바일 뱅킹 앱의 기능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확대한 ‘뉴NH윌뱅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li> <li>-은행권 최초로 오픈 소스를 활용한 플랫폼 환경을 적용해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낮췄으며, 시스템 전반에 걸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플랫폼(PaaS)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MSA)를 적용해 안정적 시스템 운영과 무중단 앱 개발 및 배포를 지원</li> <li>※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시스템 기능을 소단위로 설계함에 따라 각 기능이 독립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어 서비스 중단 없이 신규 기능 개발·수정·배포가 가능</li> <li>-또한 백업 체제를 갖춘 ‘블루 - 그린’ 배포 방식을 채택해 신규 서비스 배포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li> <li>※블루 - 그린은 신규 시스템 환경을 그린으로 배포하고 기존 시스템 환경은 블루로 백업 운영해 신규 서비스 버전에 문제 발생 시 백업 환경을 갖춘 블루를 긴급 적용해 기존 시스템이 운영을 맡는 구조</li> <li>-앱 성능도 개선함에 따라 사용 속도를 30% 이상 향상시켰으며, 사용자 급증 시 자동으로 시스템 성능을 확장시키는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li> </ul>

자료 : 언론 보도 정리



# II

## 트레이드 G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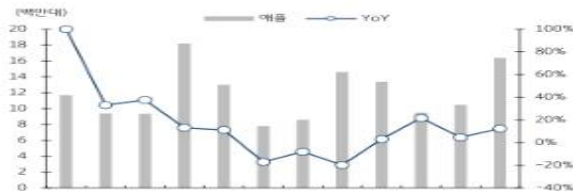
## Ⅱ 트레이드 GPS<sup>8)</sup>

### 1 중국 - 카메라 모듈

□ 中 코로나19 봉쇄 조치 종료, 경제활동 재개 등의 효과로 하반기 IT기기 등의 수요 개선이 기대됨에 따라 스마트폰용·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도 회복기에 진입 전망

- (스마트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경기 침체 등으로 부진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을 배경으로 정저우 폭스콘 공장 가동 재개, 멀티 카메라 채용 보편화 등이 맞물리며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수요 회복이 기대
- '22년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고강도 코로나19 봉쇄 정책, 거시경제 위축 등으로 전년 대비 14% 가량 큰 폭 감소하며 5년 연속 역성장을 지속(카운터포인트리서치, '23.2월)
  - ※ (참고) '22년 中 스마트폰 시장 내 업체별 점유율(%) : (1위) 비보(19.2), (2위) 애플(18.0), (3위) 오포(17.5), (4위) 옌이(16.7), (5위) 샤오미(13.9)
- 반면 올해 스마트폰 시장(4.4억 대, 2%↑)은 폭스콘 공장 생산 재개, 하반기 중국 경기 회복 등으로 반등이 전망되면서 멀티카메라 채용 보편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폴디드 줌 카메라 채택 확대 등에 따라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시장도 수혜가 기대(KB증권, '22.12월)
  - ※ 폴디드 줌은 고배율 줌 적용이 가능하며 카메라 렌즈가 툭 튀어나온 디자인(일명 카툰튀) 해결이 가능한 카메라 기술로, 스마트폰 시장의 상향평준화에 따라 카메라 차별성이 경쟁 요소로 부각되며 동 기술에 주목
  - ※ 애플이 마·중 갈등 심화, 봉쇄 조치 등 생산 차질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고자 '25년까지 아이폰 전체 생산량의 25%를 중국 → 인도로 이전할 것이라 발표해 중국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 스마트폰 이외에도 XR기기·전장용 등 신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中 카메라 모듈 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

그림 2-1 중국 내 아이폰 출하량 전망 및 카메라 모듈 주요 기능



(가) 중국 내 아이폰 출하량 전망



(나) 카메라 모듈 주요 기능

자료 : 카운터포인트리서치, KB증권, 2022.12. / 교보증권, 2022.5. 재인용

8) 트레이드 GPS는 ICT 유망시장, 품목에 대한 동향 및 ICT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

- **(전장용)**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차 보급 가속을 위한 정책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면서 카메라 모듈 신성장동력으로 中 자율주행차 시장이 주목
  -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국이자 판매 시장인 중국은 거대한 자율주행차 시장 구축에 가장 유망한 국가로 中 정부의 적극적인 자율주행 보급 확대 정책 등이 더해지면서 中 자율주행차 시장 확장은 가속화될 전망
  - 먼저 '15년 '중국 제조 2025' 선언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으며 '20.10월 '신에너지 자동차 기술 로드맵 2.0'을 발표하며 자율주행차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단 표 참조)
  - 또한 '22.8월 선전시는 중국 최초로 '완전 자율 주행' 도로 운행을 일부 허용하였으며 11월 공신부는 자율주행차 도로주행 시범 운행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등 정부의 구체적인 법규 마련과 더불어 中 자율주행차 시장이 확장되면서 관련 전장용 카메라 모듈 수요도 강세를 보일 전망
    - ※ 카메라는 자율주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로 교통 신호 및 표지판 인식, 사각지대 탐지, 차선 이탈 등을 판단하고 사물의 거리 정보 등을 제공. 자율주행 기술에 따라 레벨 3에서는 최소 5대, 레벨 4·5는 8대 이상의 카메라가 탑재(Waymo)
  - 중국 전장용 카메라 시장은 '16년 20억 위안 → '20년 64억 위안(CAGR33.8%↑) 규모로 고성장한 데 이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및 자율주행차 보급 확대 등에 힘입어 '25년엔 290억 위안('22~'25년 CAGR 29%↑) 규모에 이를 전망(더구루, '22.12월, 원소스 화정산업연구원)

**표 2-1 중국 정부의 자율주행 산업 관련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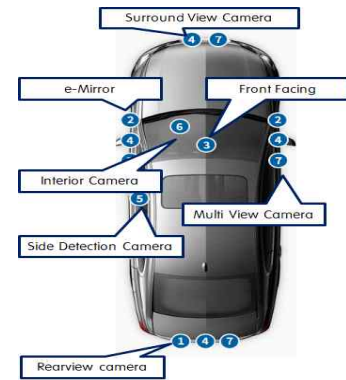
발표시점	정책명	자율주행 산업 관련 주요 내용
2015년	중국 제조 2025	• 첨단제조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10대 집중 육성 산업을 지정. 차세대 정보 기술, 로봇틱스, 신에너지 자동차 3개의 분야에서 '자율주행' 산업을 언급
2020년 2월	자율주행차 혁신 발전 전략	• 직접적인 자율주행 산업 육성책으로 발개위와 공신부가 공동으로 동 법안을 발표 - '25년까지 중국 표준 자율주행차 기술, 산업 생태계, 도로 인프라, 법규, 관리 감독 체계를 전면 완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표
2020년 10월	에너지절약과 신에너지 자동차 기술 로드맵 2.0	• 자율주행 차량의 광범위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술 로드맵을 제시 - (~'25년) 자율주행 레벨 2~3단계 차량 비중이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확대 - (~'30년) 레벨 2~3단계 차량 연간 판매량은 70% 이상을, 레벨 4단계 차량은 20% 이상을 목표로 제시
2022년 8월	자율주행차 운송 안전 서비스 지침	• 교통운수부는 자율주행 산업 확대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세부 지침 등을 마련 - 교통 상황이 단순하고 주변 여건이 통제될 경우 자율주행차를 통한 택시여객 운송이 가능하며 해당 운수업 영위를 위해서는 등록 절차가 필수 - 레벨 3~4단계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운수업의 경우 운전자를 배치해야하며 레벨 5단계는 원격 운전자 또는 안전요원 배치가 필수 ※ 중국 광둥성 선전시는 '22.8.1일부터 중국 최초로 사람 없이 주행하는 '완전 자율 주행' 차량의 도로 운행을 부분적으로 허용
2022년 11월	스마트 커넥티드 카 진입 및 시범 운행에 관한 통지	• 자율주행 차량 상업화를 위해 시범도시 내에서 시험 운행에 도입할 것이라 발표 - '21.4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신부는 베이징·상하이·광저우·우한·청사우시 6개의 1차 시범 도시 선정에 이어 12월 충칭·선전·샤먼·난징·청두·지난·허페이·창저우·우후·취저우 10개의 도시를 2차 시범 도시로 추가 선정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그림 2-2 | 자율주행차 기술 등급 및 전장용 카메라 모듈 주요 제품**

단계	기술 정의	정의
Lv0	전통적 주행	- 모든 운전은 운전자가 수행
Lv1	부분 보조 주행	- 운전자가 주행, 시스템은 조향·가감속 등만 자동화해 운전자가 도움 받는 수준
Lv2	보조 주행	- 운전자가 주행,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보조 주행(차간거리·차선 유지 등) 가능
Lv3	조건 자율주행	- 시스템이 주행,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운전자는 돌발상황 대비가 필요
Lv4	고도 자율주행	- 시스템이 주행, 특정 도로조건에서 모든 안전 제어가 가능(운전자 개입 불필요)
Lv5	완전 자율주행	- 시스템이 주행, 탑승자는 목적지만 입력, 운전 대와 페달 제어가 가능하며 무인 주행이 가능

(가) 자율주행차 기술 등급



(나) 전장용 카메라모듈 주요 제품(7종)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삼성전기 재인용

- (기타) 메타버스 시장 성장과 함께 XR기기 등의 출하 증가로 카메라 모듈 수요처가 확대
  - 中 공신부 등 5개의 부서가 ‘가상현실과 산업 응용 융합 발전 행동 계획’을 공개하며 ‘26년까지 VR(가상현실) 산업 규모를 3,500억 위안 이상으로 육성할 것이라 발표(KITA, ’22.11월)
  - 구체적으로는 가상현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10개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중견 기업을 육성하며 10개의 산업 공공서비스 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 또한 ’26년까지 중국 내 가상현실 (AR·VR 등) 기기 판매도 2,500만 대 돌파 등을 목표로 제시
    - ※ ’22.상반기 중국 가상현실 기기 판매량은 58.6만 대 수준. ’26년까지 20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 밝혀 급성장 기대
  - 이러한 전망 신시장 수요 증가와 함께 가상현실기기向 카메라 모듈 시장도 동반 성장할 전망
    - ※ XR기기의 경우 외부 전방 확인을 위한 메인카메라 2대, 거리 인식을 위한 ToF<sup>9)</sup>, 6DoF<sup>10)</sup> 보조 카메라 2~4대, 내부 눈 움직임을 위한 카메라 2대, 보안 로그인을 위한 홍채 인식 카메라 등 총 10대 이상의 카메라가 탑재

## □ ’23년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으로 업체 간 수주 경쟁이 치열

- 글로벌 업체들은 스마트폰 폴디드 줌 대거 채용, 전장용 수요 증가 등으로 수익성 제고에 집중
  - (삼성전기)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 시리즈에 카메라 모듈을 지속 공급해왔던 동 시는 ’23.10월 출시 예정인 ‘픽셀8’ 시리즈(올해 700~800만 대 출하 예상)의 카메라 모듈도 전량 수주에 성공
  - 픽셀8 보급형 제품에는 일반적인 직통(Vertical) 형태의 카메라 모듈을, 고급형 제품(‘픽셀8 프로’)에는 폴디드 줌<sup>11)</sup>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예정이며 ’23.2분기 말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

9) ToF(Time of Flight)는 비행시간 거리 측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적외선 파장을 통해 물체로 발사한 빛이 튕겨져 돌아오는 거리를 시간으로 계산하여 사물의 입체감과 공간 정보, 움직임을 인식

10) 6자유도(Six degrees of freedom, 6DoF)는 여섯 개의 운동 방향으로, 즉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는 방향을 의미

11) 폴디드 줌은 잠망경 원리를 응용한 구조로 빛을 굴절시켜 가로로 배열된 렌즈, 센서를 통과하며 카메라 모듈 두께 증가 없이 긴 초점 거리 확보가 가능해 고배율 광학줌 구현이 가능

- ※ 구글은 ‘픽셀6 프로(’21년 출시)’에 삼성전기의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을 적용한 바가 있으며 이어 출시한 ‘픽셀7(’22.10월 출시)’ 시리즈 등에도 동 부품을 탑재해 삼성전기와 협업을 강화
- 한편 동 사는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 비중을 낮추고자 샤오미·오포·비보 등 중화권 업체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는 전략에 집중. ’22년 삼성전기의 매출액 내 삼성전자와 종속기업 비중은 전년 대비 6.6%p 축소된 28.6%로 집계되었고 반면 샤오미는 7.4%→10.4%로 두 자릿수 진입
- 다만 ’22년 글로벌·중국 경제의 전반적 침체 등으로 스마트폰 등의 구매력이 위축되면서 4분기(광학통신솔루션 부문, △16%) 실적 악화를 겪었으나 올해는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가 확대됨에 따라 전장용 비중을 확장해 나가며 수익성 회복에 매진할 방침
- ※ 현재 자동차 1대당 적용되는 카메라 수는 대략 5대 전후이나 자율주행 3단계 진입 이후에는 약 12~15대가 탑재될 예정
- (LG이노텍) 애플의 주요 카메라 모듈 공급사인 동 사는 ’23년 광학솔루션 부문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563억 원을 투자해 신모델과 신사업에서의 생산능력을 확대할 방침
- ※ ’23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15’의 최고가 라인 ‘프로맥스’에 처음으로 폴디드 줌 카메라가 채택돼 주목. 해당 카메라 모듈은 LG이노텍이 단독 공급할 예정이며 기본·플러스 라인의 4,800만 화소 모듈도 공급 예정
- 특히 올해 상반기 애플의 XR기기 출시 예고,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이 가시화되면서 XR기기·전장용 카메라 모듈 수요 폭증 등으로 수혜를 받을 전망
- ※ 메타버스·전장용 시장 성장으로 3D 센싱 모듈(사물을 3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AR·VR 구현에 유리) 수주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22.12월 LG디스플레이 파주 P7공장 일부를 임대해 생산설비를 확장
- (서니옵티컬)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S23(’23.2월)’ 시리즈에 카메라 모듈 메인 공급사로 지정된 동 사는 ‘울트라’ 모델 후면의 폴디드 줌과 초광각 카메라 모듈 2종을 공급
- ※ 갤럭시S23 시리즈 생산 비중은 울트라가 대략 50%수준으로 높고, 이어 일반형 30%, 플러스 20%를 차지. 울트라 모델 비중 확대에 따라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서니옵티컬의 입지도 크게 확장된 것으로 풀이
- 또한 ’23.8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Z 플립5’, ‘갤럭시Z 폴드5’ 등 폴더블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2차 협력사로 지정되는 등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장악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
- ※ 동 사는 ‘갤럭시Z 폴드3(’21.8월 출시)’에서는 전면 카메라 부품만 공급하였으나 ‘갤럭시Z 폴드4(’22.8월 출시)’부터 후면 카메라 부품 공급망까지 진출하며 악진 고부가 폴디드 줌 기술과 가격경쟁력 등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

**그림 2-3 직통(버티컬) vs 폴디드 줌 작동원리 차이 및 3D 센싱 카메라 모듈 기술**



자료 : 언론 자료 인용



## □ (수출 동향) 스마트폰에 이어 전장용 등의 카메라 모듈 수요가 증가하면서 성장 지속

- (전체)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 가동 재개, 중국 정부의 자율주행기술 보급 확대 정책 등으로 對중국 카메라 모듈 수출은 호조
- (연간) '20년(22.3억 달러, 25.2%↑)은 스마트폰의 멀티 카메라 성능 및 탑재 대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3년 만에 반등하며 20억 달러대를 상회하는 수출액을 기록
- '21년(43.2억 달러, 93.3%↑)은 고화소 카메라 1대, 저화소 카메라 2대가 탑재된 '트리플 카메라'가 스마트폰 시장 내 대세로 자리잡으며 카메라 모듈 수요가 큰 폭 증가
- '22년(54.4억 달러, 26.1%↑)은 스마트폰 시장의 정체, '아이폰14' 생산 차질 등으로 성장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자율주행기능 강화 추세,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 등으로 전장용 시장으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며 對중국 카메라 모듈은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
- '23년(2월 누적, 12.4억 달러, 61.6%↑)도 메타버스 시장의 빠른 확대로 XR기기용 등 신수요처가 확대되면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 (월별)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19 봉쇄 조치, 폭염·가뭄에 따른 전력난 등으로 중국 내 폭스콘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카메라 모듈 수요가 급감하며 '22.7월 수출(1.6억 달러, △21.4%)은 주춤
- 다만 중국의 로보택시 시범운행 확대 정책 등으로 새로운 전장용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22.10월(8.7억 달러, 59.0%↑) 사상 최고치를 기록. '23.2월(5.2억 달러, 54.3%↑)도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

그림 2-4 | 對중국 카메라 모듈 월별 및 연간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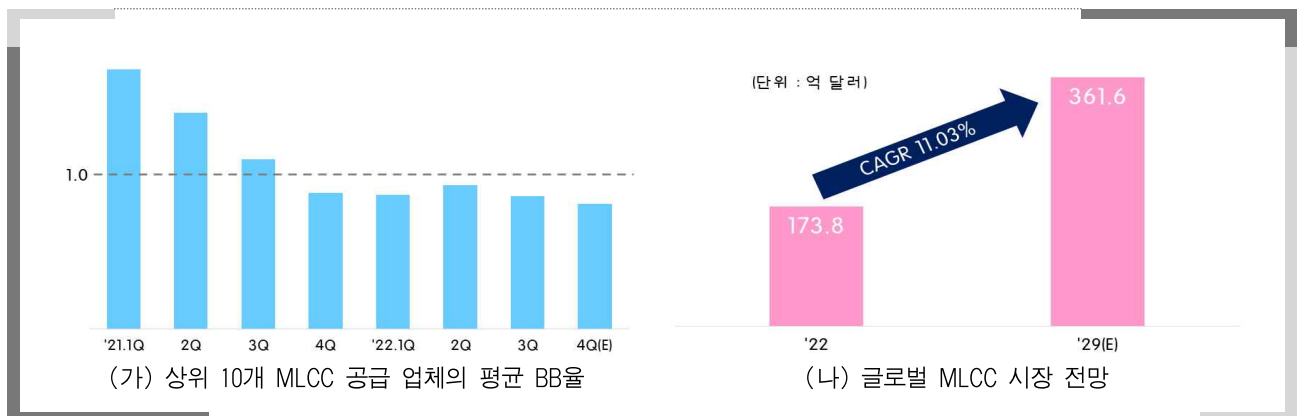
주 : 카메라 모듈 수출은 HSK코드 8525801090, 8529909910과 신규코드인 8525892000, 8529903020 등을 합한 값  
 자료 : IITP, KTSPi

## 2 축전기(MLCC 등)

### □ 부진했던 글로벌 MLCC 시장은 IT제품 시장 회복 등 호재 작용으로 성장을 기대

- 전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IT제품 수요 감소 등으로 MLCC 시장도 위축됐으나,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첨단 기술 발전 등이 성장을 견인하면서 MLCC 시장 확대를 예측
  - 코로나19 확산, 라우 전쟁, 고물가·고금리 등 글로벌 경제 악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전 세계 스마트폰·TV·PC 등 IT제품 수요도 감소
  - 완제품 수요 둔화로 글로벌 MLCC 시장은 공급 과잉이 발생해 업황이 침체. 이에 따라 전 세계 상위 10개 MLCC 공급 업체의 평균 BB율은 '21.4분기부터 1보다 낮은 수치를 유지(TrendForce, '22.11월)
    - ※ BB(Book-to-Bill)율은 수주액(Book)을 출하액(Bill)으로 나눈 값으로 1보다 크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호황을 나타내며, 1보다 작으면 공급 과잉 및 업황 침체를 의미
  - 다만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에 따른 세트 제품 수요 회복, 기술 고도화, 자동차의 전장화 등 시장 성장 요인이 종합적으로 발생하면서 향후 MLCC 수요 증가를 기대
  - 한편 '22년 173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던 글로벌 MLCC 시장 규모는 이후 연평균 11.03%의 성장을 거듭해 '29년 361억 6,000만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QYResearch, '23.1월)
    - ※ MLCC(Multilayer Ceramic Capacitors)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일정량씩 내보내 회로에 전류가 균일하게 흐르도록 조절하며, 부품 간 전자파 간섭현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반도체가 쓰이는 IT기기에 필수인 부품

그림 2-5 | MLCC 공급 업체 평균 BB율 및 시장 전망



자료 : TrendForce, 2022.11. / QYResearch, 2023.1.

### □ 기술 고도화, 5G 시장 성장, 전장용 부품 사용 확대 등으로 MLCC 소비량은 증가

- **(IT제품)** 스마트폰·TV·PC 등 IT제품 시장 회복 기초, 상위 기술을 적용한 제품 수요 확대에 따른 탑재량 증가 등의 요인이 MLCC 시장 성장을 견인



-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IT제품 소비 약세로 스마트폰용 MLCC 수요가 부진. 다만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 효과,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인기 상승, 아이폰15 시리즈 조기 생산 등에 따른 반등을 기대
  - ※ 아이폰14 시리즈 판매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애플은 아이폰15 시리즈에 새로운 사양을 탑재할 예정. 이에 따라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23.6월로 생산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
- 또한 스마트폰이 5G 이동통신·멀티카메라 등 다기능·고성능화됨에 따라 MLCC 탑재량도 증가
  - ※ 4G 스마트폰에는 약 600개의 MLCC가 필요했으나, 통신 기술의 복잡성 등으로 5G 스마트폰에는 약 1,300개 탑재
- 글로벌 TV 시장에서는 70인치 이상 초대형 제품 점유율이 ('21년) 18.4% → ('22년) 20.1% → ('23년E) 21.4%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20%를 돌파하는 등 TV의 대형화와 함께 고화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MLCC 시장도 동반 성장을 기대(OMDIA, '23.3월)
  - ※ 4K UHD TV는 한 대당 약 2,000개의 MLCC가 필요했으나, 8K UHD TV에는 약 10,000개의 MLCC를 탑재
- 한편 전 세계 PC·태블릿PC 시장도 '23년부터 '27년까지 연평균 1.9% 성장하는 등 IT제품 시장 회복 기조에 따라 MLCC 수요는 호조세를 이어갈 전망(IDC, '23.3월)
- **(통신장비)** 5G 통신망 구축에 따른 장비 수요 증가와 더불어 장비 제품에 탑재되는 MLCC 소요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온라인 거래 증가, 라이브 커머스 활성화, 동영상 미디어 서비스(OTT) 소비 증가 등으로 5G 기반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및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5G 수요도 확대
  - 또한 AR·VR,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IoT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일반 업체들의 기업 맞춤형 5G 특화망 구축이 활성화
    - ※ 글로벌 5G 특화망 시장은 '22년 16.1억 달러에서 '30년 410.2억 달러로 연평균 49.9%성장을 기대(그랜드뷰리서치)
  - 이에 따라 5G 인프라 확장을 위해 대형 기지국뿐만 아니라 스몰셀(초소형기지국) 수요도 증가하면서 '27년까지 1,300만 개의 스몰셀이 구축되고, '28년에는 5G 스몰셀 수가 4G를 추월할 전망(ABI리서치, '22.8월)
    - ※ 5G는 3~30GHz의 고대역·고주파수인 '밀리미터파'를 이용해 주파수가 낮은 4G 대비 속도가 빠른 반면 전송 거리가 짧고 장애물에 취약. 이에 따라 인프라 확장을 위해 5G 스몰셀을 조밀하게 구축하는 것이 실용적
  -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통신장비용 MLCC는 4G 기지국의 경우 약 10,000개가 사용되나, 5G 기지국은 약 16,000개로 탑재량이 증가함에 따라 5G 활성화는 곧 MLCC 수요 확대를 의미
- **(전장용)** 전기차 보급 확대,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적용에 따른 자동차 전장부품 시장 성장 등과 더불어 전장용 MLCC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소비 심리 악화 등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탄소 중립 정책 시행 등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 또한 인포테인먼트,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자율주행 등 스마트 기술 적용이 증가하면서 자동차용 전장부품 시장이 유망 분야로 부상
  - 이에 따라 과거 기계식 제어가 전자식 제어로 전환되고, 대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IC(집적회로)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MLCC 탑재량도 증가

- 한편 고금리 등으로 소비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테슬라가 구매 촉진을 위해 '23.1월, 3월 두 차례 가격을 인하. 이에 따라 비야디(BYD) 등 업체간 가격 경쟁이 점화되면서 전기차 판매량 확대와 함께 전장용 MLCC 수요도 증가를 기대

※ 테슬라 모델별 가격 인하 추이(기본형 기준, 단위 : 달러) : (모델S) 10만 4,990 → 9만 4,990 → 8만 9,990, (모델X) 12만 990 → 10만 9,990 → 9만 9,990

- 자동차의 전장화 등으로 전장용 MLCC 시장 규모는 '23년 29억 달러에서 '26년 40억 달러로 3년간 연평균 37.9%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측(서울경제, '23.2월)

※ 전체 MLCC 시장 내 전장용의 비중은 '22년 19%에서 '24년 22%로 증가할 전망(유안타증권, '23.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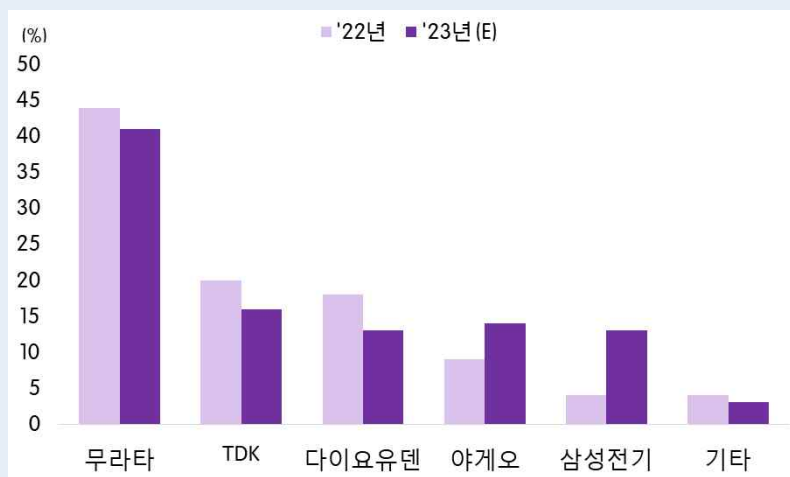
- 한편 전장용 MLCC는 고신뢰성, 장수명, 고전압, 고내구성 등이 요구됨에 따라 ASP(평균판매 가격)가 IT용 대비 3~4배를 상회. 또한 향후 기술 발전으로 전장용 MLCC가 대형·저용량에서 소형·고용량으로 전환되면서 ASP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시장 성장세는 확대될 전망

#### ○ (참고) 글로벌 전장용 MLCC 시장 점유율

- 전 세계 전장용 MLCC 시장의 선두 업체인 일본 무라타, TDK, 다이요유덴 등은 후발 업체들의 성장 등으로 '23년 점유율 하락을 예상
- '16년 전장용 MLCC 시장에 진입한 삼성전기는 파워트레인·ABS용, 고온·고압·고신뢰성 MLCC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부품 및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
- 이에 따라 삼성전기는 '23년 글로벌 전장용 MLCC 시장에서 전년 대비 9%p 증가한 13% 점유율을 기록하며 선두 업체들을 추격할 전망

※ 한편 글로벌 MLCC 시장에서 삼성전기는 약 20% 내외의 점유율을 차지해 무라타에 이어 2위에 자리매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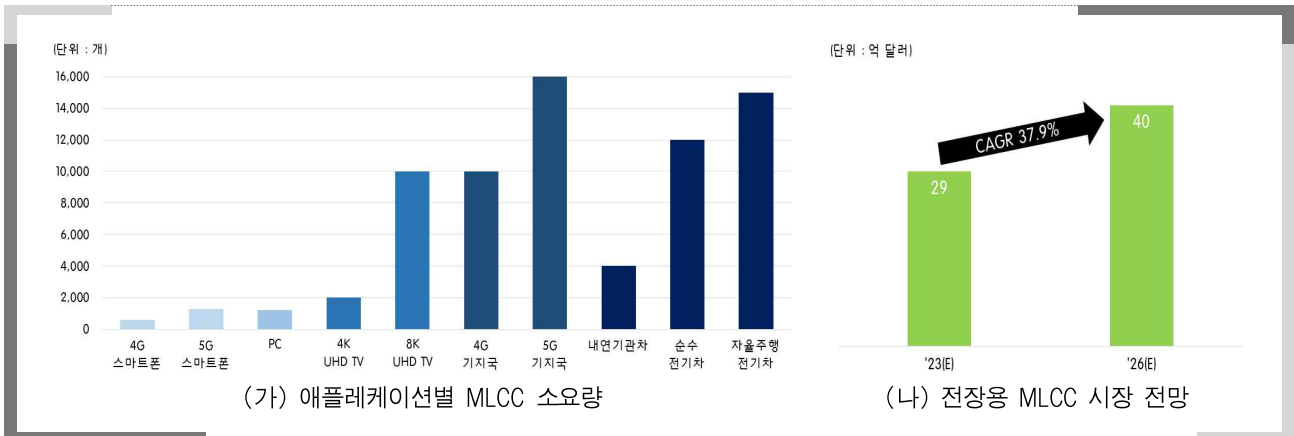
〈글로벌 전장용 MLCC 시장 점유율〉



자료 : TrendForce, 2023.2.



그림 2-6 | 애플리케이션별 MLCC 소요량 및 전장용 MLCC 시장 전망





자료 : KB증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유안타증권 재인용 / 서울경제, 2023.2. 재인용

## □ (업체 동향) MLCC 시장 호조로 업체들은 설비투자·신제품 출시 등으로 경쟁력 확보

- IT제품의 고성능화, 5G 시장 확대, 자동차의 전장화 등에 따른 MLCC 소요량 증가에 대비해 글로벌 MLCC 업체들은 설비투자 확대, 독자적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도모

표 2-2 | 주요 MLCC 업체 동향

업 체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LCC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공장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li> <li>-전기차·자율주행차 개발 및 생산 가속화, 5G 스마트폰 수요 증가 등에 따른 MLCC 시장 성장에 대비해 연간 생산·설비투자를 확대할 계획</li> <li>-이에 따라 연간 설비투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450억 엔을 투입해 중국 장쑤성 기존 부지에 공장을 신설하고 MLCC 생산 능력을 매년 약 10%씩 증강할 방침</li> <li>※MLCC를 공급하는 중국 자회사 우시무라타전자 공장의 5만 1,000㎡ 부지에 생산·저장·에너지 관리 등이 가능한 3개 건물을 세우고 신규 라인을 구축할 예정</li> <li>-신설 예정인 공장의 규모는 단일 설비투자로는 사상 최대 수준에 달하며 '22.11월 착공을 시작해 '24.4월 준공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4월 자동차 파워트레인에 적용 가능한 고온 특성의 MLCC를 개발해 전장 부품 시장을 공략</li> <li>-일본 무라타, TDK 등 해외 업체에서 독점 생산하던 사용환경 150℃를 보증하는 고신뢰성 파워트레인용 MLCC 13종을 개발해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에 공급</li> <li>※파워트레인(자동차 구동장치)은 자동차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많은 전력 소모와 발열로 내부 동작 온도가 150℃까지 상승. 이에 따라 고온에서 용량 감소 없이 정상 동작이 가능한 원재료 개발 및 고난이도 공법 기술이 필요</li> <li>-3.2mm×2.5mm, 22μF의 고용량 제품부터 1.6mm×0.8mm, 220nF의 소형 제품까지 다양한 크기와 용량으로 구성</li> <li>※패럿(F)은 전기 용량 단위로 1F은 1C의 전하를 주었을 때 전위가 1V가 되는 전기 용량. 1μF은 1F의 100만분의 1, 1nF은 1F의 10억분의 1에 해당</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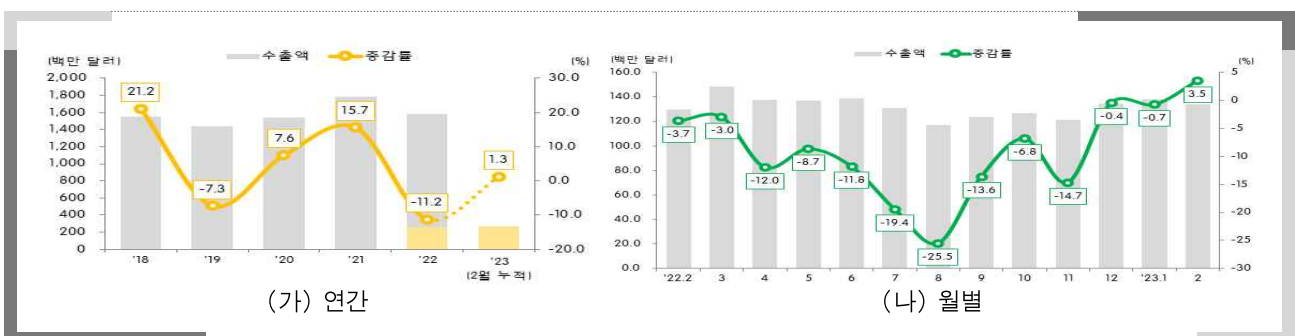
자료 : 언론 보도 정리



## □ (수출 동향) 최첨단 기술 발전, 전장용 수요 증가 등으로 '23.2월 축전기 수출은 성장

- (전체) 다기능·고성능 스마트폰 소비 증가, 5G 이동통신 확대, 자동차의 전장화 등으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MLCC 등 축전기 수출은 회복세에 진입했으며 향후 지속 성장을 기대
- (연간) '21년 수출(17억 8,609만 달러, 15.7%↑)은 각 국의 탄소 중립 정책 등에 따른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전장 산업 수요 증가, 5G 스마트폰 판매량 확대 등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 하며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
  - ※ 축전기 역대 상위 연간 수출(억 달러) : (1위, '21년) 17.86, (2위, '22년) 15.86, (3위, '18년) 15.48
- '22년 수출(15억 8,564만 달러, △11.2%)은 전장용·산업용의 견조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등에 따른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정책, 스마트폰·PC 등 IT 기기 소비 감소 등으로 반락
- '23년 수출(2월 누적 기준, 2억 7,254만 달러, 1.3%↑)은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에 따른 세트 제품 수요 회복 기대와 더불어 5G,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적용 확대 등으로 상승 전환
- (월별) 코로나19 확산, 라·우 전쟁, 고물가·고금리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요인에 따른 전 세계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에 '21년 역대 최고 수출 달성에 따른 높은 기저효과까지 더해져 '21.11월 이후 14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이후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각 국의 방역 규제 완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사업 가속화 등에 따른 MLCC 수요 증가로 '23.2월(1억 3,410만 달러, 3.5%↑) 반등 시현

그림 2-7 연간 및 월별 축전기(MLCC 등)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2-3 축전기(MLCC 등)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축전기	129.6 (△3.7)	148.5 (△3.0)	137.6 (△12.0)	137.0 (△8.7)	138.9 (△11.8)	130.9 (△19.4)	117.1 (△25.5)	123.8 (△13.6)	126.7 (△6.8)	121.4 (△14.7)	134.7 (△0.4)	138.4 (△0.7)	134.1 (3.5)

자료 : IITP, KTSPI





## □ EU, 친환경 산업의 역내 유출 방지를 위해 이른바 ‘매칭 보조금’ 정책을 도입(3.9일)

- EU 집행위는 美 IRA(인플레이션감축법), 中 보조금 정책 등에 맞서 '25년 말까지 녹색 산업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를 시행
  - 러·우 전쟁, 에너지·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2.3월 도입된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Framework, '23.12.31일 만료)’를 한차례 수정·확대한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TCTF)’를 발표
  - TCTF는 전기차용 이차전지,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탄소포집·이용 기술 등과 관련된 친환경 기업들이 EU 역내에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원활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주 목적
    - ※ 즉 美의 자국우선주의적인 IRA에 맞대응해 역외 투자 전환 및 생산시설 이전 등에 대한 위험이 있는 EU 녹색 업체들의 역내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
  - 이를 위해 친환경 산업 관련 업체에 '25.12.31일까지 제3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매칭 보조금’ 제도를 전격 도입했으며 이외에도 청정 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 지급 절차 간소화 등도 개편
    - ※ 매칭 보조금은 유럽경제지역(EEA) 역외 이전 위험이 높은 개별 기업에 대해 제3국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금액 또는 EEA 지역 내 투자를 유지할 인센티브로써 필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
  - 한편 미국·유럽 등의 경쟁적인 보조금 정책 전쟁 속 한국 기업들도 보조금 수혜를 누리기 위해 현지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국외 이전 위험이 고조 이에 따라 국내 투자 또한 위축될 우려가 확대되면서 일각에서는 무역 적자 탈출을 위한 국내 투자 유인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

표 2-4 미국 vs EU 주요 보조금 정책

미국	주요 내용	EU	주요 내용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기업에 세액 공제와 보조금 등 총 3,690억 달러 혜택 제공</li> <li>• 북미에서 최종 생산된 전기차에 최대 7,500 달러 세액 공제 제공</li> <li>-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이차전지를 사용한 경우 3,750달러,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사용한 경우 3,750달러</li> </ul>	그린딜 산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년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핵심 원자재 수입 비율을 EU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하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 공개</li> <li>• '30년까지 주요 탄소 중립 제조 역량을 EU 연간 수요 40%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표인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도 공개</li> </ul>
반도체 과학법 (Chips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지급</li> <li>- 단 '가드레일(10년간 중국 반도체에 투자 금지)' 조항 및 초과수익 공유, 생산 및 연구 시설 공개 등 조건이 존재</li> </ul>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 (TCT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차용 이차전지 등 친환경 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제3국(해외)'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li> </ul>

## □ EU, ‘유럽판 IRA’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잇따라 발표

- EU는 원자재 공급망 안정·다각화를 위한 대책을 잇달아 공개, 통상 환경이 더욱 치열
  - 미·중 패권 경쟁, 러·우 전쟁 등으로 공급망 위기가 고조됐던 EU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필요성, 자국 시장 보호에 대한 중요성 등이 대두되면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 산업법’ 초안을 연이어 발표(3.16일)
  - 공개된 2건의 법안 초안은 앞으로 1~2년간 집행위, 유럽의회,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입법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세부사항도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돼 예의주시가 필요.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 한국 정부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계획 수립에 만전
  - ※ 일각에서는 동 법안들이 국내 업체의 공급망 다변화를 이끌어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제기

**표 2-5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세부 사항**

법안	세부 사항
<b>핵심원자재법 (Critical Raw Materials Ac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주요 목적)</b> '30년까지 우려국에 대한 핵심원자재 의존도 90% → 65% 감축을 목표로 제시</li> <li>- EU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고자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공개. 특정국에 대한 전략 원자재<sup>12)</sup>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EU 내 가공'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30년까지 전략 원자재 특정국 수입 비율을 역대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할 방침</li> <li>※EU는 현재 주요 원자재의 90% 이상(희토류 98%, 리튬 97%, 마그네슘 93% 등)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특정국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li> <li>- 구체적으로는 EU의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 대비 역대 채굴량은 최소 10% 이상, 가공량은 40% 이상, 재활용은 최소 15% 이상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며 제3의 단일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전략 원자재 수입처(아프리카 등)도 다변화할 방침</li> <li>※해당 규정 이행을 위해 '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를 구성하고 '원자재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며 동 프로젝트에 대해 인허가 우선순위 부여 및 심사기간 단축 등도 지원할 계획</li> <li>- 아울러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역대 대기업<sup>13)</sup> 중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급망 자체 감사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으며 EU내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공동구매 시스템 등도 구축할 것이라 예고</li> <li>- 마지막으로 회원국별 오염물질 수집, 폐기물 재활용, 영구자석 재활용 등 관련 방안도 마련할 것을 규정</li> <li>• <b>(국내 업체 영향)</b> 해당 법안은 美 IRA와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 현지 조달 요구 조건 등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역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감사를 시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폴란드·헝가리 등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은 기업 정보공개 요구 등의 부담이 우려</li> <li>※(참고) 이러한 흐름 속 유럽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이차전지 업체 또한 원재료인 수산화리튬 수입 중국 비중이 높아 향후 EU의 추가적인 세부 규정 발표 시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韓 정부도 현재 대비책을 마련 중인 상황</li> </ul>
<b>탄소중립산업법 (Net-Zero Industry Ac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주요 목적)</b> '30년까지 탄소중립 기술 EU 역대 생산능력 40% 달성을 목표로 제시</li> <li>- 미국 IRA에 맞서 역대 친환경 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책 일환으로 EU집행위는 8가지의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을 지정하였으며, 제조 역량 또한 '30년까지 40%까지 끌어올릴 계획</li> <li>※탄소중립 기술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지열에너지, 수전해장치, 바이오메탄, 탄소포집·저장, 그리드 등 8가지로 명시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30년까지 태양광(30GW), 풍력(36GW), 히트펌프(31GW), 배터리(550GWh), 수전해장치(100GW) 생산능력 확보를 제시. 배터리 기준 550GWh 규모는 역대 수요의 90%에 해당하는 수준</li> <li>- 이를 위해 탄소중립 기술 관련 역대 신규 사업의 경우 최대 18개월 이내에 허가토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며 보조금 지급 절차 등도 간소화할 예정</li> <li>- 또한 EU 내에서 탄소중립 기술 관련 공공조달 입찰 심사 시, 특정국 부품 의존도 65% 초과 여부와 지속가능성·회복력 등을 고려하여 15~30% 수준의 가중치 부여도 의무화</li> </ul>



- 美·EU, IRA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유럽산 핵심광물을 포함하기 위한 공식 협상에 착수
  - 美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은 ①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이차전지를 사용한 경우 ②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경우 각각 3,75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 특히 핵심광물 비율은 연도별로 점차 늘어날 예정('27년 80% 이상)
  - 다만 EU는 미국과 FTA 협정을 맺고 있지 않아 유럽산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 판매 시 IRA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어 美 전기차 시장 경쟁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
    - ※ (참고) 국내 이차전지 업체는 미국의 IRA 시행에 따라 '22년부터 미국의 FTA 국가인 호주·칠레 등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며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
  - 이에 EU는 IRA 보조금 조건은 유럽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 반발하며 IRA 규정 수정을 요구. 또한 3.9일 EU는 '제3국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 등도 시행하며 미국에 압박을 강화
  - 마침내 3.10일 美·EU는 전기차 등에 대한 보조금 투명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보조금 대화'를 진행 하였고 공동성명을 통해 EU에서 추출·처리된 핵심 광물도 IRA 세액공제 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정된 핵심 광물 협정'에 대한 협상을 공식적으로 착수했음을 밝혀 눈길

- 독일·이탈리아 등의 반대로 EU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법안 투표가 무기한 연기 되면서 퇴출 계획에 제동(3.3일)
  - '22.10월 EU 회원국, 유럽의회, EU 집행위원회는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휘발유·경유 등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코자 3자 협상을 통해 '35년부터 27개 회원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탄소 배출량을 100% 감축하는 법안에 합의
  - 법안의 최종 승인을 위해서는 27개 회원국 중 55%에 해당하는 15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한 국가들의 전체 인구가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인 경우(가중다수결제) 표결 결과가 인정
  - 해당 법안 도입을 위해 '23.3월 초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자동차 강국 중 하나인 독일이 합성연료(e-fuel)<sup>14)</sup>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경우 탄소 저감 효과가 존재하므로 이와 관련된 예외 조항을 해당 법안에 포함할 것을 강력 요구하며 비승인시 표결에 불참할 것이라 예고
    - ※ 이탈리아 정부도 내연기관차 퇴출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왔으며 '내연기관차 완전 판매 금지' 시점을 EU가 제시한 목표보다 늦추기 위해 프랑스·독일과 연대할 것이라 경고. 이외에도 폴란드·불가리아 등도 반대 입장
  - 이에 따라 EU의 '내연기관차 완전 판매 중단' 법안 관련 투표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향후 귀추에 주목
    - ※ 3.23일 EU 집행위는 독일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35년 이후 친환경 합성연료(e-fuels)만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경우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12) 배터리용 니켈·리튬·천연흑연·망간·구리·갈륨·영구 자석용 희토류 등 총 16가지 원자재를 정의

13)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 5,000만 유로(약 2,100억 원) 이상인 기업

14) 전기분해로 얻은 수소를 대기 중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질소 등과 결합시켜 만든 인공 연료를 의미

## □ 美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세부사항 발표, 韓 반도체 업계 對中 투자 불확실성은 여전

- 미국은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규정을 공개하며 對中 압박을 강화
  - 美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상 미국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업에 대해 우려국(중국·북한·러시아·이란 등) 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3.21일)
  -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우려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이 현재 생산능력의 5% 이내(첨단 반도체)로 제한되며 범용 반도체의 경우는 10% 미만까지 허용. 미국은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후 동 세부 규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
    - ※ 범용 반도체는 28nm 이상의 로직칩, 18nm 초과 D램, 128단 미만의 낸드플래시로 '22.10월 발표된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 기준과 동일
  - 또한 첨단 반도체 판단 기준도 기존 ‘고도의 생산기술이 필요한 반도체’ → ‘국가 안보상 필요한 반도체’로 수정해 엄격한 제한을 적용할 것이라 공표. 즉, 범용(보급형) 반도체라 하더라도 미국 안보에 중요한 경우 첨단 반도체로 분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며 대중 압박을 강화해 나가는 모습
    - ※ 범용 반도체가 퀀텀(양자) 컴퓨팅이나 특수 군사 기능 분야 등에서 사용될 경우 중국 내 생산을 차단할 방침. 다만 사실상 미국이 첨단 및 범용 반도체 분류 기준을 변경할 권한을 보유해 대중 압박 카드로도 사용할 것으로 추정
- (국내 영향) 美 가드레일 조항은 기술 공정을 통한 생산능력 개선을 용인해 국내 업체 우려가 일단락, 다만 향후 추가적인 對中 장비 수출통제 공산이 높아 예의주시가 필요
  - 美 공개한 가드레일 세부 규정에 대해 국내 업계는 기존 우려(중국 내 가동 중단 및 전면 철수 등 극단적 상황 발생)와 달리 생산능력(양적)에 제한을 두어 ‘기술 공정(질적)’ 개선(웨이퍼당 생산되는 반도체 칩 증가)을 통한 생산 확장 등은 가능해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는 의견이 다수
    - ※ 앞서 '22.8.9일 발표된 ‘반도체지원법’에서는 ‘실질적 확장’(material expansion) 자체를 금지하였으나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통해 제한적 증설을 허용하며 조건이 완화되었다는 평가. 다만 범용 반도체 기준은 2년 한시 적용이며 '24.8.9일까지 범용 반도체 기준을 재지정하고 향후 8년간 2년마다 개정을 명시해 대중 반도체 견제망은 더욱 촘촘해질 전망
  - 즉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 규모를 현상 유지하고 첨단공정으로 기술을 개선하여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행보를 보일 전망
  - 다만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조치’ 등으로 향후 기술 개선을 위한 새로운 장비 도입 등이 원활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해 韓 정부는 의견수렴 기간(60일) 동안 미국과의 추가 협의도 지속 진행할 것이라 발표
    - ※ 최근 200단 이상의 낸드플래시가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반도체 업체들은 공정 개선(기존 128단 등)을 위해 새로운 반도체 장비 반입이 필요. 한국은 美 정부로부터 수출통제 조치 1년 유예를 획득한 상황(뒷장 참고)
  - 또한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분류 기준을 기술 → 안보로 수정함에 따라 대중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중국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입지도 점차 좁아질 수 있어 부정적 요소가 상존



- (참고) '23.2.28일 미 상무부는 반도체 제조역량 제고를 위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공개. 경제·안보에 큰 비중을 둔 6개의 심사기준 중 일부 조항에 국내 기업의 기밀 제출 및 초과 이익 공유 등을 요구해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수익이 전망치를 초과할 경우 미국과 이익 공유<sup>15)</sup>, 미국 국방부 요구 시 최첨단 반도체 우선 공급 등의 기준을 제시

#### ○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조치' 관련 세부 사항

- '22.10월 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조치'는 첨단 반도체 장비·기술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반도체(특정 기술)를 생산하는 업체에 장비·기술을 수출할 경우 美 정부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특정 기술 반도체는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핀펫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 등을 의미

- 중국 내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중국 기업인 경우 美 '거부 추정 원칙'에 따라 장비·기술 수출은 전면 금지되고 외국 기업인 경우에는 건별로 개별 심사 절차가 필요

- 이에 한국 업체들은 미국 정부에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나 미국 정부가 한국 업체에는 한시적이고 포괄적인 허가를 허용하며 1년의 유예 기간('22.10~'23.10월)을 부여

※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생산 공장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어 여러 장비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 이에 미국이 해당 입장을 배려한 조치로 풀이

- 다만 '23.10월 유예기간이 종료될 경우 연장 가능성에 대한 여부, 연장 시 조건 강화 가능성, 내년 및 내후년 유예 종료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또한 '23.4월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돼 韓 반도체 업체의 우려가 지속

※ 최근 논의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산 이외에도 일본·네덜란드 등의 최첨단 반도체 장비까지 중국 수출을 차단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돼 국내 업체의 경우 중국 공장 현상 유지조치도 어려워질 전망

표 2-6 국내 업체 중국 반도체 공장 현황 및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

업체명	위치	생산품	현황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
SAMSUNG	시안	낸드플래시	전체 낸드 생산량 40%	1
	쑤저우	후공정	-	• 보조금 수령 시 다른 국가에서 사용 금지 • 보조금 수령 후 10년간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 '실질적 확장' 시 보조금 전액 반환(우려국: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SK hynix	우시	D램	전체 D램 생산량 48%	2
	충칭	후공정	-	- 첨단 반도체 : 생산능력 5% 이상 확장 불가* - 범용(legacy) 반도체 <sup>16)</sup> ** : 생산능력 10% 이상 확장 불가
	다롄	낸드플래시 (옛 인텔 공정)	전체 낸드 생산량 20%	3

15) 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해당

16) '24.8.9일까지 범용 반도체 재지정 및 향후 8년간 2년마다 개정



## □ 日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3년 6개월 만에 철회

- 한·일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장기간 중단됐던 한·일 간 대화가 재개되면서 양국 간 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조성
- (원인) 지난 '18.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확정 판결에 반발해 '19.7월 일본은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통제를 감행. 이어 8월 화이트리스트<sup>17)</sup>에서도 한국을 제외
- '19.9월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 11월 일시적인 해빙모드가 조성되었으나 양측의 이견차가 지속되면서 '20.6월 WTO 분쟁 절차가 재개
- (수출 규제 해제) 한일 정상회담이 종료된 3.16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WTO 제소(3.23일 취하)를 동시 철회기로 합의
- 또한 한국은 3.23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에 착수하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3.23~4.12일). 마찬가지로 일본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논의 중이며 양측 모두 원상회복까지는 최소 두 달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 韓 '가의 1(미국 등 28개국)', '가의 2(일본 1개국)'로 나눈 구분을 '가'지역으로 통합하고, 전략물자 수출 시 절차적 편의 제고(허가 심사 기간 15→5일로 축소) 등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단순한 수출규제 조치 해소의 의미가 아닌 한·일 신뢰 재구축 초석을 다지는 것에 의미가 있다 평가

**표 2-7 | 한일 수출규제 분쟁 일지**

날짜	주요 사항	날짜	주요 사항
'18.10월	•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책임 인정 판결	6월	• 한국 '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 결정
'19.7월	• 일본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한국 수출 규제 발표	7월	• DSB(무역분쟁 해결기구), '일본 수출규제' 패널 설치 확정
8월	• 일본 수출절차 간소화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 한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9월	• 한국, WTO에 '일본 수출규제' 제소 및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23.6월	•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제3자 변제' 방안 발표
11월	• 한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CSOMA-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및 WTO 제소 절차 잠정 중단		• 한일 수출규제 협의 진행 동안 WTO 분쟁해결 절차 잠정 중단
12월	• 일본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 일부 완화	14~16일	• 산업부-경제산업성(日)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 관리 정책 대화 개최
	• 한국 일본에 수출규제 관련 입장 밝히라 통보	16일	• 일본,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한국 수출 규제 해제
'20.5월	• 일본 기한까지 수출규제 원상복귀에 대한 비전향적 답변	23일	• 한국,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취하

자료 : 연합뉴스, 2023.3.16. / 언론 자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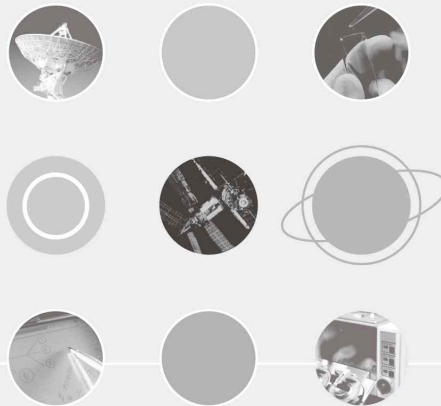
17)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를 의미





# III

## 부록



### III 부록

#### 1 ICT 생산 통계

표 3-1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잠정)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감률	비중	12월 당월			연간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ICT 전체	5,252,245	9.4	100.0	435,177	-9.2	100.0	5,342,861	1.7	100.0
○ 정보통신방송기기	3,684,065	10.9	70.1	288,143	-14.2	66.2	3,695,523	0.3	69.2
- 전자부품	2,301,413	12.4	43.8	168,364	-20.3	38.7	2,282,139	-0.8	42.7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4,420	16.4	3.3	10,915	-31.1	2.5	174,387	0.0	3.3
- 통신 및 방송기기	387,675	3.6	7.4	32,822	-7.4	7.5	378,199	-2.4	7.1
- 영상 및 음향기기	92,022	10.7	1.8	7,204	-17.3	1.7	92,924	1.0	1.7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728,536	9.2	13.9	68,838	6.5	15.8	767,874	5.4	14.4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842,324	4.2	16.0	77,844	8.1	17.9	873,807	3.7	16.4
- 통신서비스	373,863	1.7	7.1	31,586	-4.5	7.3	376,350	0.7	7.0
· 유선통신서비스	100,651	-0.2	1.9	8,870	0.1	2.0	102,129	1.5	1.9
· 무선통신서비스	252,120	2.7	4.8	20,897	-6.8	4.8	252,506	0.2	4.7
· 통신재판매 및 중개서비스	21,092	-0.2	0.4	1,819	1.1	0.4	21,715	3.0	0.4
- 방송서비스	201,835	3.3	3.8	19,817	18.5	4.6	217,970	8.0	4.1
· 지상파방송서비스	38,896	8.8	0.7	4,611	34.9	1.1	40,868	5.1	0.8
· 유료방송서비스	70,042	3.8	1.3	6,447	10.9	1.5	76,932	9.8	1.4
·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92,371	0.8	1.8	8,718	17.0	2.0	99,686	7.9	1.9
· 기타방송서비스	526	1.0	0.0	43	-6.1	0.0	484	-8.0	0.0
- 정보서비스	266,626	8.7	5.1	26,440	19.3	6.1	279,486	4.8	5.2
· 정보인프라서비스	43,841	1.3	0.8	3,917	1.3	0.9	45,960	4.8	0.9
· 정보매개 및 제공서비스	222,785	10.3	4.2	22,523	23.0	5.2	233,526	4.8	4.4
○ 소프트웨어	725,855	8.3	13.8	69,190	-3.4	15.9	773,531	6.6	14.5
- 패키지 소프트웨어	167,332	7.3	3.2	15,969	-4.6	3.7	165,737	-1.0	3.1
- 게임 소프트웨어	145,061	0.8	2.8	14,563	-3.4	3.3	164,831	13.6	3.1
- IT 서비스	413,462	11.6	7.9	38,658	-3.0	8.9	442,963	7.1	8.3

자료 : KEA, KAIT, 2023.3.



## 2

## 2023년 2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표 3-2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2015년	5,267.6	1,728.7	-1.9	4,365.0	913.3	3.6	902.6	815.4
2016년	4,954.3	1,624.6	-6.0	4,061.9	898.1	-1.7	892.3	726.5
2017년	5,736.9	1,975.7	21.6	4,784.8	1,020.7	13.7	952.2	955.0
2018년	6,048.6	2,203.4	11.5	5,352.0	1,071.2	4.9	696.6	1,132.2
2019년	5,422.3	1,768.6	-19.7	5,033.4	1,083.7	1.2	388.9	684.9
2020년	5,125.0	1,835.1	3.8	4,676.3	1,126.3	3.9	448.7	708.8
2021년	6,444.0	2,276.1	24.0	6,150.9	1,350.2	19.9	293.1	925.8
2022년	6,835.8	2,332.3	2.5	7,313.7	1,524.9	12.9	-477.8	807.4
1/4분기	1,734.0	617.2	26.1	1,779.0	366.1	18.4	-45.0	251.1
2/4분기	1,771.1	607.4	12.3	1,835.3	378.1	18.5	-64.2	229.3
3/4분기	1,740.2	594.2	-2.7	1,923.0	396.8	16.4	-182.8	197.4
4/4분기	1,590.5	513.6	-19.2	1,776.4	383.9	0.7	-185.9	129.7
상반기	3,505.1	1,224.6	18.9	3,614.3	744.2	18.5	-109.2	480.4
하반기	3,330.7	1,107.8	-11.1	3,699.4	780.7	8.1	-368.7	327.1
1월	554.6	196.1	20.4	606.1	123.4	14.5	-51.5	72.6
2월	541.6	188.5	23.6	534.8	114.0	24.0	6.7	74.5
3월	637.9	232.6	33.6	638.1	128.7	17.5	-0.2	103.9
4월	578.4	199.3	16.9	602.1	121.4	12.5	-23.7	77.9
5월	615.9	202.0	13.9	631.7	126.1	19.9	-15.8	75.9
6월	576.8	206.0	6.8	601.5	130.5	23.3	-24.7	75.5
7월	602.4	193.1	-0.9	652.6	132.3	16.8	-50.2	60.7
8월	566.1	192.7	-4.8	660.3	135.2	18.7	-94.2	57.5
9월	571.8	208.5	-2.3	610.1	129.3	13.7	-38.4	79.1
10월	524.3	178.5	-10.3	591.7	137.6	13.6	-67.4	40.9
11월	517.7	166.2	-22.7	588.5	128.3	0.5	-70.8	37.9
12월	548.5	168.8	-23.7	596.2	117.9	-10.9	-47.7	50.9
2023년	963.8	259.1	-32.6	1,143.3	232.2	-2.2	-179.6	26.9
1월	462.8	131.0	-33.2	589.3	122.3	-0.9	-126.5	8.7
2월	501.0	128.2	-32.0	554.0	110.0	-3.6	-53.0	18.2

자료 : IITP, KTSPI

**표 3-3 | 주요 ICT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233,232	2.5	100.0	12,817	-32.0	100.0	25,912	-32.6	100.0
○전자부품	166,917	1.1	71.6	8,183	-40.0	63.8	16,597	-40.5	64.1
- 반도체	130,865	1.7	56.1	6,111	-41.5	47.7	12,263	-42.5	47.3
· 메모리반도체	73,753	-10.5	31.6	2,921	-53.9	22.8	5,689	-55.6	22.0
· 시스템반도체	50,670	27.5	21.7	2,691	-25.5	21.0	5,592	-25.2	21.6
- 디스플레이	24,413	-1.0	10.5	1,303	-42.2	10.2	2,767	-39.9	10.7
- 전자관	6	20.3	0.0	1	282.9	0.0	2	277.6	0.0
- 수동부품	2,148	-8.4	0.9	181	6.1	1.4	364	2.3	1.4
PCB	5,952	2.8	2.6	331	-33.1	2.6	695	-30.7	2.7
- 접속부품	3,312	-0.8	1.4	241	-6.9	1.9	477	-13.2	1.8
- 기타전자부품	148	-7.6	0.1	11	-7.1	0.1	22	-16.8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293	-0.5	7.4	655	-58.6	5.1	1,288	-58.6	5.0
- 컴퓨터	1,019	-55.6	0.4	78	2.6	0.6	152	-12.5	0.6
- 주변기기	16,274	7.8	7.0	577	-61.7	4.5	1,136	-61.4	4.4
· 디스플레이장치	1,325	77.8	0.6	120	21.9	0.9	225	0.8	0.9
· 프린터(부분품포함)	460	10.8	0.2	34	1.6	0.3	60	-15.1	0.2
· 보조기억장치	13,456	3.9	5.8	370	-72.0	2.9	691	-72.7	2.7
○통신 및 방송기기	17,648	5.4	7.6	1,246	-4.4	9.7	2,820	5.5	10.9
- 통신기기	17,573	8.7	7.5	1,241	-4.5	9.7	2,810	6.0	10.8
· 유선통신기기	1,210	26.5	0.5	86	-6.4	0.7	149	-18.4	0.6
· 무선통신기기	16,363	7.6	7.0	1,155	-4.3	9.0	2,661	7.7	10.3
휴대폰(부분품 포함)	14,672	4.9	6.3	1,027	-5.5	8.0	2,437	9.7	9.4
- 방송용 장비	2,901	33.2	1.2	214	0.8	1.7	373	-13.4	1.4
○영상 및 음향기기	74	-87.0	0.0	5	27.5	0.0	10	-49.8	0.0
- 영상기기	2,153	-9.1	0.9	146	-17.9	1.1	274	-27.2	1.1
· TV	1,250	-18.1	0.5	81	-27.6	0.6	148	-36.0	0.6
LCD TV	735	-31.0	0.3	43	-44.7	0.3	79	-49.3	0.3
TV 부분품	48	42.8	0.0	2	-69.8	0.0	2	-73.6	0.0
· 셋탑박스	664	-34.5	0.3	39	-45.4	0.3	73	-49.8	0.3
- 음향기기	18	-17.8	0.0	2	14.0	0.0	3	25.1	0.0
- 기타 영상음향기기	840	4.8	0.4	61	-5.2	0.5	118	-15.3	0.5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62	65.0	0.0	4	119.0	0.0	8	45.9	0.0
-가정용전기기기	29,222	12.2	12.5	2,586	20.5	20.2	4,934	11.9	19.0
-사무용기기	5,863	2.7	2.5	521	-0.5	4.1	964	-12.6	3.7
-의료용기기	343	-19.7	0.1	28	61.6	0.2	48	30.5	0.2
-전기 장비	2,790	8.8	1.2	227	5.5	1.8	425	1.3	1.6
· 일차전지 및 축전지	13,578	13.9	5.8	1,170	19.6	9.1	2,275	11.7	8.8

자료 : IITP, KTSPI



표 3-4 주요 ICT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52,491	12.9	100.0	10,996	-3.6	100.0	23,221	-2.2	100.0
○ 전자부품	89,481	19.9	58.7	5,846	-11.2	53.2	12,026	-11.3	51.8
- 반도체	75,146	21.8	49.3	4,938	-10.4	44.9	10,126	-10.3	43.6
· 메모리반도체	25,094	16.3	16.5	1,478	-30.6	13.4	3,014	-29.6	13.0
· 시스템반도체	41,292	31.2	27.1	2,876	4.7	26.2	5,855	4.3	25.2
- 디스플레이	4,970	28.5	3.3	256	-33.4	2.3	569	-30.6	2.4
- 전자관	75	17.1	0.0	5	65.2	0.0	10	7.1	0.0
- 수동부품	2,563	-8.5	1.7	189	-6.8	1.7	380	-11.0	1.6
PCB	3,561	14.8	2.3	207	-19.8	1.9	449	-16.5	1.9
- 접속부품	2,375	-5.7	1.6	186	0.8	1.7	369	-2.8	1.6
- 기타전자부품	697	60.0	0.5	59	76.3	0.5	111	31.9	0.5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454	4.2	11.4	1,630	6.1	14.8	3,287	-4.8	14.2
- 컴퓨터	10,112	-1.2	6.6	710	-28.6	6.5	1,696	-22.1	7.3
- 주변기기	7,341	12.7	4.8	920	69.9	8.4	1,591	24.7	6.9
· 디스플레이장치	1,341	22.9	0.9	86	-34.4	0.8	200	-26.8	0.9
· 프린터(부분품포함)	941	-2.2	0.6	77	1.5	0.7	159	3.2	0.7
· 보조기억장치	3,814	17.6	2.5	670	182.3	6.1	1,045	65.1	4.5
○ 통신 및 방송기기	15,182	-7.2	10.0	1,080	-0.3	9.8	2,622	19.6	11.3
- 통신기기	15,010	-5.1	9.8	1,068	-0.3	9.7	2,598	19.9	11.2
· 유선통신기기	1,890	-11.3	1.2	166	24.4	1.5	320	12.4	1.4
· 무선통신기기	13,120	-4.1	8.6	901	-3.8	8.2	2,278	21.0	9.8
휴대폰(부분품 포함)	9,280	-8.8	6.1	578	-11.1	5.3	1,638	28.7	7.1
- 방송용 장비	5,730	1.6	3.8	489	16.3	4.5	960	7.4	4.1
○ 영상 및 음향기기	172	-68.5	0.1	12	-2.0	0.1	23	-3.7	0.1
- 영상기기	3,596	-8.1	2.4	260	-12.7	2.4	551	-15.4	2.4
· TV	2,088	-15.2	1.4	132	-29.9	1.2	278	-33.8	1.2
LCD TV	1,444	-23.6	0.9	95	-32.5	0.9	195	-38.4	0.8
TV 부분품	779	-16.2	0.5	59	-31.2	0.5	120	-32.2	0.5
· 셋탑박스	377	-34.4	0.2	16	-43.5	0.1	35	-56.5	0.2
- 음향기기	192	-10.4	0.1	8	-58.5	0.1	18	-49.4	0.1
- 기타 영상음향기기	1,174	6.9	0.8	99	20.0	0.9	201	13.7	0.9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334	-5.3	0.2	29	8.2	0.3	72	31.7	0.3
- 가정보용기기	26,778	14.5	17.6	2,180	14.7	19.8	4,736	21.8	20.4
- 사무용기기	4,639	1.7	3.0	277	-24.9	2.5	632	-18.1	2.7
- 의료용기기	37	14.8	0.0	3	8.6	0.0	6	21.1	0.0
- 전기 장비	2,379	4.1	1.6	183	-11.0	1.7	396	-1.1	1.7
· 일차전지 및 축전지	11,088	34.3	7.3	1,061	50.6	9.7	2,364	58.2	10.2

자료 : IITP, KTSPI

**표 3-5 | 주요 IC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정보통신방송기기	233,232	152,491	80,742	12,817	10,996	1,821	2,690
○전자부품	166,917	89,481	77,436	8,183	5,846	2,337	4,571
- 반도체	130,865	75,146	55,718	6,111	4,938	1,172	2,136
· 메모리반도체	73,753	25,094	48,660	2,921	1,478	1,444	2,674
· 시스템반도체	50,670	41,292	9,378	2,691	2,876	-185	-263
- 디스플레이	24,413	4,970	19,444	1,303	256	1,047	2,198
- 전자관	6	75	-69	1	5	-4	-9
- 수동부품	2,148	2,563	-416	181	189	-7	-16
PCB	5,952	3,561	2,392	331	207	124	246
- 접속부품	3,312	2,375	937	241	186	55	108
- 기타전자부품	148	697	-549	11	59	-48	-89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293	17,454	-161	655	1,630	-975	-2,000
- 컴퓨터	1,019	10,112	-9,093	78	710	-632	-1,544
- 주변기기	16,274	7,341	8,933	577	920	-343	-455
· 디스플레이장치	1,325	1,341	-16	120	86	34	25
· 프린터(부분품포함)	460	941	-482	34	77	-43	-99
· 보조기억장치	13,456	3,814	9,642	370	670	-301	-354
○통신 및 방송기기	17,648	15,182	2,465	1,246	1,080	166	198
- 통신기기	17,573	15,010	2,564	1,241	1,068	173	211
· 유선통신기기	1,210	1,890	-680	86	166	-80	-172
· 무선통신기기	16,363	13,120	3,243	1,155	901	253	383
휴대폰(부분품 포함)	14,672	9,280	5,393	1,027	578	449	799
- 방송용 장비	2,901	5,730	-2,829	214	489	-276	-587
○영상 및 음향기기	74	172	-98	5	12	-7	-13
- 영상기기	2,153	3,596	-1,444	146	260	-114	-277
· TV	1,250	2,088	-838	81	132	-50	-130
LCD TV	735	1,444	-709	43	95	-53	-116
TV 부분품	48	779	-730	2	59	-58	-117
· 셋탑박스	664	377	287	39	16	23	38
- 음향기기	18	192	-174	2	8	-7	-14
- 기타 영상음향기기	840	1,174	-334	61	99	-38	-83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62	334	-272	4	29	-25	-64
- 가정용전기기기	29,222	26,778	2,445	2,586	2,180	406	198
- 사무용기기	5,863	4,639	1,224	521	277	244	332
- 의료용기기	343	37	305	28	3	25	42
- 전기 장비	2,790	2,379	411	227	183	44	29
· 일차전지 및 축전지	13,578	11,088	2,490	1,170	1,061	109	-89

자료 : IITP, KTSPI





표 3-6 주요 지역별 ICT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감률	비중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전세계	233,232	2.5	100.0	12,817	-32.0	100.0	25,912	-32.6	100.0
○ 아시아	180,075	2.0	77.2	9,516	-35.3	74.3	19,383	-36.2	74.8
- 중국(홍콩 포함)	102,270	-4.9	43.8	5,130	-39.4	40.0	10,382	-41.2	40.1
- 일 본	4,429	2.7	1.9	311	-4.8	2.4	617	-7.8	2.4
- ASEAN	53,710	9.5	23.0	3,071	-30.3	24.0	6,442	-29.3	24.9
· 싱가포르	6,924	45.0	3.0	305	-39.3	2.4	710	-30.1	2.7
· 인 니	1,122	25.7	0.5	95	14.7	0.7	184	6.2	0.7
· 말 련	2,944	17.4	1.3	217	-6.6	1.7	421	-5.8	1.6
· 태 국	1,530	13.0	0.7	123	15.0	1.0	245	-5.8	0.9
· 베트남	36,636	4.3	15.7	2,112	-31.7	16.5	4,418	-31.1	17.0
- 대 만	14,755	16.4	6.3	661	-43.5	5.2	1,288	-42.8	5.0
- 인 도	4,533	63.0	1.9	315	-3.6	2.5	598	-10.0	2.3
○ 북미	30,226	5.0	13.0	1,721	-20.0	13.4	3,457	-19.7	13.3
- 미 국	29,141	4.3	12.5	1,652	-20.7	12.9	3,329	-19.7	12.8
- 캐나다	955	33.7	0.4	57	-5.2	0.4	107	-24.2	0.4
○ 유럽	15,893	4.0	6.8	1,085	-23.4	8.5	2,107	-19.8	8.1
- 유럽연합	13,732	7.5	5.9	928	-23.5	7.2	1,810	-19.8	7.0
· 독 일	3,516	-0.2	1.5	201	-27.3	1.6	421	-20.4	1.6
· 프랑스	901	6.7	0.4	64	-23.7	0.5	133	-14.2	0.5
· 이탈리아	596	27.0	0.3	39	10.9	0.3	73	-2.4	0.3
- 영 국	1,062	1.7	0.5	45	-17.6	0.4	96	-2.6	0.4
- 러시아	482	-39.0	0.2	42	-56.0	0.3	69	-58.1	0.3
○ 중동	1,680	5.4	0.7	143	7.8	1.1	279	5.7	1.1
- 사우디	327	43.2	0.1	24	28.8	0.2	42	5.5	0.2
- UAE	522	5.8	0.2	43	36.1	0.3	89	15.4	0.3
○ 중남미	4,382	1.8	1.9	281	-23.1	2.2	538	-23.7	2.1
- 브라질	1,439	-1.3	0.6	88	-32.2	0.7	175	-31.0	0.7
- 멕시코	2,670	6.4	1.1	172	-17.3	1.3	323	-19.0	1.2
- 칠 레	68	-43.0	0.0	4	-48.1	0.0	10	-42.4	0.0
○ 대양주	685	-5.0	0.3	52	-11.4	0.4	92	-26.2	0.4
- 호 주	599	-3.0	0.3	48	-5.3	0.4	84	-23.4	0.3
○ 아프리카	280	-9.4	0.1	18	16.5	0.1	56	54.9	0.2
※ 브 릅 스	85,990	4.8	36.9	4,780	-32.7	37.3	9,632	-34.9	37.2

자료 : IITP, KTSPI

**표 3-7 주요 지역별 ICT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감률	비중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전세계	152,491	12.9	100.0	10,996	-3.6	100.0	23,221	-2.2	100.0
○ 아시아	126,723	12.2	83.1	9,566	0.4	87.0	19,758	-0.7	85.1
- 중국(홍콩 포함)	64,726	8.4	42.4	3,877	-20.8	35.3	9,290	-11.8	40.0
- 일 본	13,590	13.5	8.9	942	-5.3	8.6	2,170	9.3	9.3
- ASEAN	25,741	10.3	16.9	1,934	-6.8	17.6	4,122	-2.1	17.8
· 싱가포르	4,701	15.3	3.1	239	-30.2	2.2	587	-19.3	2.5
· 인 니	783	-15.4	0.5	60	-25.6	0.5	116	-26.3	0.5
· 말 련	4,055	12.6	2.7	306	0.6	2.8	660	10.4	2.8
· 태 국	2,115	5.4	1.4	155	-13.9	1.4	324	-3.4	1.4
· 베트남	12,225	9.4	8.0	1,047	1.9	9.5	2,158	1.7	9.3
- 대 만	22,536	26.8	14.8	1,522	-1.8	13.8	2,874	-8.7	12.4
- 인 도	116	10.1	0.1	8	-4.9	0.1	18	6.6	0.1
○ 북미	9,000	-1.0	5.9	644	-4.3	5.9	1,314	-1.1	5.7
- 미 국	8,563	-1.8	5.6	615	-4.1	5.6	1,255	-1.1	5.4
- 캐나다	307	24.7	0.2	21	-8.6	0.2	43	12.8	0.2
○ 유럽	8,719	10.0	5.7	645	-6.2	5.9	1,343	3.3	5.8
- 유럽연합	7,614	10.7	5.0	557	-7.7	5.1	1,186	4.3	5.1
· 독 일	3,523	7.3	2.3	262	-9.1	2.4	540	-0.4	2.3
· 프랑스	1,204	29.5	0.8	73	-23.3	0.7	177	-0.3	0.8
· 이탈리아	377	6.0	0.2	31	20.5	0.3	57	13.0	0.2
- 영 국	572	1.8	0.4	51	29.6	0.5	88	11.4	0.4
- 러시아	18	-28.1	0.0	1	-61.3	0.0	1	-77.4	0.0
○ 중동	666	1.7	0.4	49	-4.3	0.4	161	26.3	0.7
- 사우디	1	-53.1	0.0	0	-78.9	0.0	0	131.8	0.0
- UAE	9	-80.2	0.0	0	1.5	0.0	1	34.7	0.0
○ 중남미	925	-6.0	0.6	83	28.4	0.8	168	23.1	0.7
- 브라질	7	-54.4	0.0	0	19.8	0.0	2	26.6	0.0
- 멕시코	913	-5.4	0.6	82	28.3	0.7	166	23.0	0.7
- 칠 레	2	88.1	0.0	0	-1.9	0.0	0	58.3	0.0
○ 대양주	119	4.2	0.1	6	-24.4	0.1	13	-22.0	0.1
- 호 주	98	23.6	0.1	4	-31.6	0.0	9	-24.2	0.0
○ 아프리카	13	-27.5	0.0	1	220.3	0.0	2	-63.4	0.0
※ 브 릅 스	63,474	8.3	41.6	3,850	-20.2	35.0	9,202	-11.0	39.6

자료 : IITP, KTSPI



표 3-8 주요 지역별 ICT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수출	수입	수지	2월 당월			2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전세계	233,232	152,491	80,742	12,817	10,996	1,821	2,690
○ 아시아	180,075	126,723	53,352	9,516	9,566	-49	-374
- 중국(홍콩 포함)	102,270	64,726	37,544	5,130	3,877	1,252	1,092
- 일 본	4,429	13,590	-9,161	311	942	-631	-1,553
- ASEAN	53,710	25,741	27,968	3,071	1,934	1,136	2,319
· 싱가포르	6,924	4,701	2,223	305	239	67	123
· 인 니	1,122	783	340	95	60	35	68
· 말 련	2,944	4,055	-1,110	217	306	-89	-239
· 태 국	1,530	2,115	-585	123	155	-32	-79
· 베트남	36,636	12,225	24,411	2,112	1,047	1,065	2,260
- 대 만	14,755	22,536	-7,781	661	1,522	-861	-1,586
- 인 도	4,533	116	4,418	315	8	307	579
○ 북미	30,226	9,000	21,226	1,721	644	1,077	2,143
- 미 국	29,141	8,563	20,578	1,652	615	1,037	2,074
- 캐나다	955	307	648	57	21	36	64
○ 유럽	15,893	8,719	7,174	1,085	645	441	764
- 유럽연합	13,732	7,614	6,118	928	557	371	625
· 독 일	3,516	3,523	-7	201	262	-61	-119
· 프랑스	901	1,204	-303	64	73	-9	-43
· 이탈리아	596	377	219	39	31	8	16
- 영 국	1,062	572	489	45	51	-6	7
- 러시아	482	18	464	42	1	41	67
○ 중동	1,680	666	1,014	143	49	93	118
- 사우디	327	1	326	24	0	24	41
- UAE	522	9	513	43	0	43	87
○ 중남미	4,382	925	3,457	281	83	198	370
- 브라질	1,439	7	1,431	88	0	88	173
- 멕시코	2,670	913	1,757	172	82	90	158
- 칠 레	68	2	66	4	0	4	9
○ 대양주	685	119	566	52	6	46	79
- 호 주	599	98	501	48	4	43	74
○ 아프리카	280	13	267	18	1	17	54
※ 브릭스	85,990	63,474	22,516	4,780	3,850	930	430

자료 : IITP, KTSPI

###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표 3-9 중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12월 당월			연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2,557	23.5	100.0	1,095	-16.6	100.0	12,587	0.2	100.0
○ 전자부품	3,468	32.9	27.6	301	-15.4	27.5	3,511	1.2	27.9
- 반도체	2,463	31.2	19.6	220	-15.2	20.1	2,636	7.0	20.9
- 디스플레이 패널	327	33.9	2.6	12	-53.1	1.1	151	-54.0	1.2
- 전자관	1	39.3	0.0	0	4.5	0.0	1	-4.9	0.0
- 수동부품	173	49.9	1.4	27	22.1	2.5	202	16.8	1.6
- PCB	209	38.1	1.7	15	-21.2	1.4	199	-4.5	1.6
- 접속부품	258	31.1	2.1	22	-11.9	2.0	269	4.4	2.1
- 기타 전자부품	36	50.6	0.3	4	-0.8	0.4	52	44.0	0.4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437	20.4	19.4	189	-26.7	17.3	2,537	4.1	20.2
- 컴퓨터	1,681	21.4	13.4	115	-36.5	10.5	1,566	-6.8	12.4
- 주변기기	755	18.2	6.0	75	-4.1	6.8	971	28.5	7.7
· 디스플레이장치	216	33.2	1.7	12	-48.0	1.1	217	0.5	1.7
· 프린터(부품포함)	142	10.2	1.1	13	-9.0	1.2	150	5.9	1.2
· 보조기억장치	184	6.2	1.5	13	-22.7	1.2	138	-25.2	1.1
· 저장 매체	34	8.3	0.3	22	411.9	2.0	291	749.1	2.3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80	25.2	1.4	14	-21.7	1.3	176	-2.4	1.4
○ 통신 및 방송기기	2,751	15.6	21.9	220	-32.8	20.1	2,441	-11.3	19.4
- 통신기기	2,611	15.3	20.8	219	-30.3	20.0	2,431	-6.9	19.3
· 유선통신기기	538	7.9	4.3	46	-25.9	4.2	548	1.9	4.4
· 무선통신기기	2,073	17.4	16.5	142	-43.7	12.9	1,501	-27.6	11.9
- 방송국용 기기	132	22.1	1.1	9	-26.9	0.8	107	-19.5	0.8
○ 영상 및 음향기기	836	21.4	6.7	79	11.3	7.3	879	5.1	7.0
- 영상기기	402	19.2	3.2	27	-21.9	2.4	326	-19.0	2.6
- 음향기기	269	14.7	2.1	24	-3.7	2.2	272	1.2	2.2
- 기타 영상음향기기	165	41.5	1.3	21	66.7	1.9	184	12.0	1.5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3,065	24.5	24.4	306	1.8	27.9	3,219	5.0	25.6
- 가정용 기기	1,182	22.5	9.4	85	-22.2	7.8	1,094	-7.4	8.7
- 사무용 기기	49	23.1	0.4	6	7.4	0.5	59	20.4	0.5
- 의료용 기기	182	12.5	1.5	15	-10.6	1.4	157	-13.6	1.3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68	10.5	2.1	27	7.1	2.5	249	-7.3	2.0
- 전기 장비	1,384	31.6	11.0	171	19.1	15.6	1,644	18.8	13.1
· 건전지 및 축전지	362	50.0	2.9	80	80.0	7.3	636	75.8	5.1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0 중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12월 당월			연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8,213	20.9	100.0	630	-21.4	100.0	7,553	-8.0	100.0
○전자부품	5,857	22.7	71.3	466	-19.9	73.9	5,656	-3.4	74.9
- 반도체	4,977	24.4	60.6	394	-22.1	62.5	4,762	-4.3	63.0
- 디스플레이 패널	314	6.1	3.8	33	27.8	5.2	405	28.7	5.4
- 전자관	2	18.3	0.0	0	-36.6	0.0	2	-18.1	0.0
- 수동부품	223	24.7	2.7	17	-13.6	2.6	190	-14.9	2.5
- PCB	123	13.3	1.5	8	-37.3	1.2	107	-12.7	1.4
- 접속부품	212	17.2	2.6	14	-21.5	2.3	186	-12.4	2.5
- 기타 전자부품	5	11.1	0.1	0	-33.4	0.0	4	-4.2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531	17.8	6.5	40	-14.9	6.4	512	-3.5	6.8
- 컴퓨터	43	49.5	0.5	4	-18.9	0.6	44	1.7	0.6
- 주변기기	488	15.7	5.9	36	-14.4	5.7	469	-3.9	6.2
· 디스플레이장치	5	-34.3	0.1	0	35.8	0.1	4	-23.6	0.1
· 프린터(부품포함)	63	12.3	0.8	5	-3.2	0.8	54	-14.2	0.7
· 보조기억장치	292	13.9	3.6	16	-37.1	2.5	230	-21.4	3.0
· 저장 매체	48	1.3	0.6	10	100.9	1.5	109	129.1	1.4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80	47.5	1.0	5	-23.9	0.8	72	-9.7	1.0
○통신 및 방송기기	635	24.6	7.7	24	-61.8	3.8	277	-56.4	3.7
- 통신기기	575	28.5	7.0	24	-58.9	3.8	276	-52.1	3.7
· 유선통신기기	93	34.6	1.1	9	17.2	1.5	102	9.1	1.3
· 무선통신기기	482	27.4	5.9	5	-89.6	0.8	60	-87.5	0.8
- 방송국용 기기	27	8.3	0.3	2	-2.4	0.3	25	-9.8	0.3
○영상 및 음향기기	233	18.5	2.8	24	-8.6	3.8	259	11.4	3.4
- 영상기기	186	25.6	2.3	18	-16.3	2.9	190	1.6	2.5
- 음향기기	38	-10.4	0.5	3	-18.9	0.4	39	1.6	0.5
- 기타 영상음향기기	8	52.6	0.1	1	-20.8	0.1	7	-12.4	0.1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958	10.8	11.7	77	-8.8	12.2	849	-11.4	11.2
- 가정용 기기	218	12.3	2.7	15	-19.5	2.4	194	-11.0	2.6
- 사무용 기기	4	-2.7	0.1	1	191.8	0.2	4	-14.2	0.1
- 의료용 기기	136	20.5	1.7	12	-10.5	1.9	116	-14.6	1.5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94	8.2	4.8	30	-12.0	4.8	314	-20.3	4.2
- 전기 장비	205	8.8	2.5	15	-13.6	2.4	187	-9.0	2.5
· 건전지 및 축전지	74	4.2	0.9	5	-29.2	0.7	62	-15.8	0.8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1 미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12월 당월			연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847	12.4	100.0	262	1.9	100.0	3,020	6.1	100.0
○전자부품	1,013	19.3	35.6	82	-8.4	31.3	1,045	3.2	34.6
- 반도체	776	20.7	27.2	61	-11.3	23.4	783	0.9	25.9
- 디스플레이 패널	35	12.4	1.2	3	-23.1	1.0	34	-3.1	1.1
- 전자관	3	7.1	0.1	0	-22.7	0.1	4	2.7	0.1
- 수동부품	38	21.3	1.3	3	-7.5	1.2	41	7.5	1.3
- PCB	12	-2.2	0.4	1	-5.1	0.4	13	9.8	0.4
- 접속부품	146	16.5	5.1	14	11.2	5.2	167	14.5	5.5
- 기타 전자부품	2	7.0	0.1	0	7.6	0.1	3	32.6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390	9.2	13.7	37	5.0	14.2	420	7.7	13.9
- 컴퓨터	167	9.7	5.9	15	-6.1	5.8	176	4.9	5.8
- 주변기기	222	8.9	7.8	22	14.4	8.4	244	9.9	8.1
· 디스플레이장치	15	-0.5	0.5	1	11.4	0.6	18	21.7	0.6
· 프린터(부품포함)	35	3.9	1.2	3	14.4	1.3	35	1.7	1.2
· 보조기억장치	52	1.8	1.8	6	48.8	2.1	55	7.3	1.8
· 저장 매체	72	18.5	2.5	7	0.5	2.5	81	12.4	2.7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49	10.7	1.7	5	7.4	1.9	55	11.2	1.8
○통신 및 방송기기	388	12.2	13.6	40	9.1	15.4	394	1.5	13.0
- 통신기기	347	11.9	12.2	39	18.5	15.0	382	10.1	12.6
· 유선통신기기	169	4.9	5.9	20	38.4	7.8	196	15.7	6.5
· 무선통신기기	178	19.4	6.2	17	-7.8	6.5	167	-6.1	5.5
- 방송국용 기기	28	15.9	1.0	3	12.4	1.1	30	5.0	1.0
○영상 및 음향기기	85	1.3	3.0	9	12.4	3.3	104	21.2	3.4
- 영상기기	33	-1.7	1.2	2	-21.7	0.9	30	-7.4	1.0
- 음향기기	36	-1.6	1.3	3	9.6	1.3	38	5.6	1.3
- 기타 영상음향기기	16	16.2	0.6	1	-23.2	0.5	17	6.1	0.6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971	8.2	34.1	94	7.4	35.7	1,058	9.0	35.0
- 가정용 기기	169	9.2	6.0	14	-5.5	5.4	170	0.3	5.6
- 사무용 기기	9	8.7	0.3	1	8.9	0.4	11	13.8	0.4
- 의료용 기기	278	6.1	9.8	28	14.3	10.7	301	8.2	10.0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97	7.3	10.4	27	-1.7	10.3	297	0.2	9.8
- 전기 장비	217	11.6	7.6	21	6.8	8.0	251	15.6	8.3
· 건전지 및 축전지	52	5.3	1.8	5	9.0	1.9	58	11.9	1.9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2 미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12월 당월			연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6,323	19.8	100.0	551	-10.3	100.0	6,986	10.5	100.0
○ 전자부품	1,110	24.2	17.6	103	-2.5	18.7	1,247	12.4	17.9
- 반도체	860	23.7	13.6	81	-2.4	14.7	967	12.5	13.8
- 디스플레이 패널	36	18.2	0.6	2	-25.0	0.4	29	-18.4	0.4
- 전자관	3	7.2	0.0	0	-24.3	0.0	3	-4.1	0.0
- 수동부품	42	39.5	0.7	4	-10.0	0.7	50	17.9	0.7
- PCB	23	34.0	0.4	2	-9.0	0.4	28	18.5	0.4
- 접속부품	139	23.0	2.2	13	7.5	2.4	162	16.5	2.3
- 기타 전자부품	7	44.2	0.1	1	-8.3	0.1	9	31.4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570	14.1	24.8	123	-16.8	22.3	1,668	6.2	23.9
- 컴퓨터	983	11.8	15.5	75	-17.3	13.7	1,015	3.3	14.5
- 주변기기	587	18.0	9.3	47	-16.1	8.6	653	11.2	9.3
· 디스플레이장치	101	30.0	1.6	6	-44.9	1.1	112	11.1	1.6
· 프린터(부품포함)	140	20.1	2.2	12	0.5	2.1	147	4.7	2.1
· 보조기억장치	104	21.6	1.6	6	-38.4	1.1	111	6.3	1.6
· 저장 매체	162	11.6	2.6	14	-14.5	2.6	183	12.8	2.6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80	10.4	1.3	10	23.0	1.8	100	25.6	1.4
○ 통신 및 방송기기	1,265	16.2	20.0	117	-22.7	21.2	1,343	6.2	19.2
- 통신기기	1,139	16.9	18.0	114	-18.1	20.7	1,305	14.6	18.7
· 유선통신기기	443	9.6	7.0	45	-2.7	8.2	536	20.9	7.7
· 무선통신기기	696	22.2	11.0	65	-29.7	11.8	727	4.4	10.4
- 방송국용 기기	117	9.1	1.9	9	-14.4	1.7	127	8.4	1.8
○ 영상 및 음향기기	462	29.5	7.3	37	-11.6	6.6	562	21.7	8.0
- 영상기기	187	16.0	3.0	10	-31.3	1.8	160	-14.3	2.3
- 음향기기	164	34.0	2.6	12	-23.3	2.3	183	11.7	2.6
- 기타 영상음향기기	111	51.6	1.8	8	-28.9	1.4	130	16.6	1.9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916	22.6	30.3	172	1.7	31.2	2,166	13.0	31.0
- 가정용 기기	575	26.8	9.1	43	-15.1	7.8	612	6.5	8.8
- 사무용 기기	28	15.2	0.4	3	19.9	0.5	35	25.8	0.5
- 의료용 기기	363	16.8	5.7	33	2.5	6.0	396	9.0	5.7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00	11.9	4.7	27	-3.0	4.9	307	2.3	4.4
- 전기 장비	651	28.5	10.3	64	13.9	11.6	795	22.2	11.4
· 건전지 및 축전지	161	53.9	2.5	24	54.9	4.3	248	53.8	3.5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3 | 일본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엔,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1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73,306	17.2	100.0	193,456	11.6	100.0	12,628	0.3	100.0
○ 전자부품	90,410	17.4	52.2	102,999	13.9	53.2	6,867	-2.0	54.4
- 반도체	54,546	17.5	31.5	64,471	18.2	33.3	4,574	0.1	36.2
- 디스플레이 패널	7,618	4.2	4.4	7,828	2.8	4.0	395	25.1	3.1
- 전자관	287	10.0	0.2	307	6.8	0.2	21	3.7	0.2
- 수동부품	11,593	23.5	6.7	12,360	6.6	6.4	752	-17.8	6.0
- PCB	3,336	11.7	1.9	4,250	27.4	2.2	267	2.1	2.1
- 접속부품	12,240	20.5	7.1	12,783	4.4	6.6	795	-6.0	6.3
- 기타 전자부품	789	51.8	0.5	999	26.5	0.5	63	-20.5	0.5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4,224	14.3	8.2	15,562	9.4	8.0	1,078	5.7	8.5
- 컴퓨터	1,040	4.7	0.6	1,168	12.3	0.6	91	38.1	0.7
- 주변기기	13,184	15.1	7.6	14,393	9.2	7.4	988	3.4	7.8
· 디스플레이장치	1,339	16.0	0.8	1,242	-7.2	0.6	88	12.1	0.7
· 프린터(부품포함)	9,404	16.5	5.4	10,168	8.1	5.3	698	6.5	5.5
· 보조기억장치	177	-3.9	0.1	143	-18.8	0.1	7	-38.2	0.1
· 저장 매체	1,699	10.7	1.0	2,210	30.1	1.1	153	-11.5	1.2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566	10.1	0.3	630	11.3	0.3	42	13.2	0.3
○ 통신 및 방송기기	7,342	12.5	4.2	4,601	-37.3	2.4	341	23.5	2.7
- 통신기기	4,131	9.7	2.4	4,574	10.7	2.4	339	23.6	2.7
· 유선통신기기	1,071	-2.0	0.6	1,321	23.4	0.7	101	17.0	0.8
· 무선통신기기	3,060	14.5	1.8	1,607	-47.5	0.8	93	2.0	0.7
- 방송국용 기기	2,902	13.3	1.7	3,568	22.9	1.8	194	-9.0	1.5
○ 영상 및 음향기기	6,029	13.8	3.5	9,276	53.9	4.8	495	-4.3	3.9
- 영상기기	2,379	23.1	1.4	2,156	-9.4	1.1	137	-2.8	1.1
- 음향기기	483	8.0	0.3	540	12.0	0.3	40	29.1	0.3
- 기타 영상음향기기	3,167	8.6	1.8	3,039	-4.0	1.6	127	-6.3	1.0
○ 정보통신응용 · 기반기기	55,301	18.6	31.9	61,017	10.3	31.5	3,847	2.0	30.5
- 가정용 기기	11,579	18.3	6.7	11,948	3.2	6.2	669	-6.2	5.3
- 사무용 기기	416	12.5	0.2	413	-0.6	0.2	27	-0.3	0.2
- 의료용 기기	6,656	11.7	3.8	7,675	15.3	4.0	545	13.7	4.3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2,045	22.0	12.7	23,497	6.6	12.1	1,454	-2.0	11.5
- 전기 장비	14,605	17.6	8.4	16,166	10.7	8.4	1,061	5.6	8.4
· 건전지 및 축전지	7,746	24.9	4.5	8,678	12.0	4.5	592	8.0	4.7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4 일본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엔,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1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73,331	15.5	100.0	212,548	22.6	100.0	20,004	12.2	100.0
○ 전자부품	47,567	30.0	27.4	66,186	39.1	31.1	5,167	8.9	25.8
- 반도체	37,305	31.7	21.5	53,372	43.1	25.1	4,140	8.1	20.7
- 디스플레이 패널	1,904	13.1	1.1	2,055	7.9	1.0	137	219.3	0.7
- 전자관	127	6.0	0.1	159	25.1	0.1	8	-32.8	0.0
- 수동부품	1,413	27.8	0.8	1,779	25.9	0.8	137	-6.0	0.7
- PCB	1,620	24.4	0.9	1,961	21.1	0.9	170	-7.2	0.8
- 접속부품	4,505	25.3	2.6	5,644	25.3	2.7	462	2.8	2.3
- 기타 전자부품	692	49.7	0.4	1,216	75.6	0.6	112	43.0	0.6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8,054	0.6	16.2	33,350	18.9	15.7	3,056	3.3	15.3
- 컴퓨터	16,259	-4.0	9.4	18,232	12.1	8.6	1,734	4.3	8.7
- 주변기기	11,795	7.7	6.8	15,118	28.2	7.1	1,322	2.0	6.6
· 디스플레이장치	1,897	22.1	1.1	1,970	3.9	0.9	177	-4.1	0.9
· 프린터(부품포함)	3,880	2.3	2.2	4,967	28.0	2.3	438	8.8	2.2
· 보조기억장치	2,450	8.9	1.4	2,744	12.0	1.3	233	-10.2	1.2
· 저장 매체	1,570	-0.5	0.9	3,185	102.8	1.5	247	4.6	1.2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998	12.7	1.2	2,253	12.7	1.1	227	6.6	1.1
○ 통신 및 방송기기	36,793	16.2	21.2	38,978	5.9	18.3	4,877	17.7	24.4
- 통신기기	33,546	16.5	19.4	38,702	15.4	18.2	4,856	18.1	24.3
· 유선통신기기	8,387	8.9	4.8	10,050	19.8	4.7	879	-14.6	4.4
· 무선통신기기	25,158	19.2	14.5	26,736	6.3	12.6	3,805	33.2	19.0
- 방송국용 기기	2,721	10.1	1.6	3,448	26.7	1.6	319	10.7	1.6
○ 영상 및 음향기기	12,284	7.9	7.1	15,923	29.6	7.5	1,610	23.6	8.1
- 영상기기	6,839	8.3	3.9	6,228	-8.9	2.9	519	-5.9	2.6
- 음향기기	3,276	3.7	1.9	3,626	10.7	1.7	326	-1.0	1.6
- 기타 영상음향기기	2,169	13.9	1.3	2,897	33.6	1.4	467	182.0	2.3
○ 정보통신응용 · 기반기기	48,633	14.2	28.1	58,111	19.5	27.3	5,294	13.3	26.5
- 가정용 기기	15,308	12.3	8.8	16,120	5.3	7.6	1,331	2.4	6.7
- 사무용 기기	726	0.0	0.4	761	4.8	0.4	98	26.8	0.5
- 의료용 기기	7,468	13.7	4.3	8,646	15.8	4.1	787	17.5	3.9
- 측정 제어 분석기기	9,850	13.4	5.7	11,145	13.1	5.2	1,018	13.3	5.1
- 전기 장비	15,280	18.0	8.8	20,630	35.0	9.7	1,974	18.5	9.9
· 건전지 및 축전지	2,857	24.6	1.6	4,342	52.0	2.0	420	42.4	2.1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5 | 대만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11월 당월			11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634	25.7	100.0	229	-5.3	100.0	2,674	12.0	100.0
○ 전자부품	2,053	27.9	78.0	179	-5.2	78.2	2,123	14.1	79.4
- 반도체	1,812	28.4	68.8	164	-2.7	71.5	1,933	17.9	72.3
- 디스플레이 패널	102	22.5	3.9	5	-40.6	2.0	61	-36.0	2.3
- 전자관	0	10.4	0.0	0	11.2	0.0	0	-21.1	0.0
- 수동부품	42	30.5	1.6	3	-27.4	1.2	35	-8.6	1.3
- PCB	66	17.4	2.5	6	-10.0	2.5	65	9.0	2.4
- 접속부품	30	35.7	1.1	2	-18.6	1.0	29	4.4	1.1
- 기타 전자부품	0	24.1	0.0	0	-21.7	0.0	0	-0.1	0.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36	14.0	9.0	21	-4.3	9.3	228	6.4	8.5
- 컴퓨터	88	7.8	3.4	9	8.3	4.1	95	19.5	3.6
- 주변기기	148	18.0	5.6	12	-12.4	5.2	133	-1.3	5.0
· 디스플레이장치	7	10.3	0.3	0	-16.9	0.2	6	-7.5	0.2
· 프린터(부품포함)	3	24.0	0.1	0	-4.9	0.1	4	15.5	0.1
· 보조기억장치	8	11.7	0.3	0	-23.4	0.2	7	-11.7	0.2
· 저장 매체	106	15.1	4.0	6	-36.4	2.6	82	-15.8	3.1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24	38.6	0.9	5	74.4	2.0	36	68.9	1.3
○ 통신 및 방송기기	127	16.0	4.8	13	12.0	5.8	141	23.8	5.3
- 통신기기	112	15.5	4.3	12	12.2	5.2	127	26.8	4.7
· 유선통신기기	78	17.3	3.0	9	23.8	3.8	91	30.9	3.4
· 무선통신기기	34	11.5	1.3	3	-10.3	1.4	36	17.5	1.3
- 방송국용 기기	14	19.5	0.5	1	23.9	0.6	14	12.6	0.5
○ 영상 및 음향기기	83	31.6	3.1	4	-38.5	1.8	51	-33.0	1.9
- 영상기기	76	30.9	2.9	4	-39.6	1.6	46	-35.6	1.7
- 음향기기	6	42.8	0.2	0	-42.4	0.1	5	-5.6	0.2
- 기타 영상음향기기	0	16.3	0.0	0	153.4	0.1	1	80.9	0.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34	22.6	5.1	11	-8.1	4.9	131	6.7	4.9
- 가정용 기기	27	19.5	1.0	2	-10.0	1.0	25	4.4	0.9
- 사무용 기기	7	19.7	0.3	1	-14.4	0.3	7	8.3	0.3
- 의료용 기기	7	14.0	0.3	1	-8.2	0.3	7	4.5	0.3
- 측정 제어 분석기기	43	21.2	1.6	4	4.9	1.7	42	6.5	1.6
- 전기 장비	51	27.2	1.9	4	-16.0	1.8	50	8.3	1.9
· 건전지 및 축전지	10	19.6	0.4	1	1.9	0.4	12	34.8	0.4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6 대만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11월 당월			11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440	10.6	100.0	115	-12.3	100.0	1,436	9.5	100.0
○ 전자부품	1,076	12.8	74.7	84	-14.8	73.2	1,086	10.7	75.6
- 반도체	957	12.7	66.5	76	-14.2	65.7	979	12.1	68.1
- 디스플레이 패널	19	-4.8	1.3	1	-23.6	0.9	14	-17.5	1.0
- 전자관	0	8.5	0.0	0	-27.8	0.0	0	-6.3	0.0
- 수동부품	34	24.6	2.3	2	-32.9	1.8	28	-9.0	1.9
- PCB	36	16.3	2.5	3	-2.5	2.9	39	18.8	2.7
- 접속부품	28	13.2	1.9	2	-23.9	1.7	25	-4.0	1.7
- 기타 전자부품	2	45.5	0.1	0	-23.0	0.1	2	-3.8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92	6.8	6.4	6	-17.9	5.4	87	3.2	6.0
- 컴퓨터	34	11.7	2.3	3	-9.1	2.2	34	8.7	2.3
- 주변기기	59	4.2	4.1	4	-22.9	3.2	53	0.0	3.7
· 디스플레이장치	8	24.5	0.5	1	-37.4	0.5	7	-6.9	0.5
· 프린터(부품포함)	4	-10.3	0.3	0	-7.1	0.3	4	-3.5	0.2
· 보조기억장치	12	8.2	0.8	1	34.4	0.7	9	-19.1	0.6
· 저장 매체	27	-3.0	1.9	2	-33.3	1.4	24	1.5	1.7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8	18.1	0.5	0	-32.0	0.4	10	33.4	0.7
○ 통신 및 방송기기	84	1.4	5.8	7	-1.8	6.5	79	4.8	5.5
- 통신기기	76	1.3	5.3	7	0.2	6.1	75	9.2	5.2
· 유선통신기기	24	4.5	1.7	2	16.6	2.0	24	7.7	1.6
· 무선통신기기	52	-0.1	3.6	5	-6.3	4.1	51	9.9	3.6
- 방송국용 기기	5	4.4	0.3	0	8.2	0.4	4	-0.1	0.3
○ 영상 및 음향기기	25	2.8	1.8	2	-18.2	1.7	21	-11.5	1.4
- 영상기기	17	13.0	1.2	1	-25.2	0.9	13	-16.4	0.9
- 음향기기	6	-3.4	0.4	1	32.0	0.6	5	1.3	0.4
- 기타 영상음향기기	3	-28.6	0.2	0	-54.3	0.2	2	-7.0	0.2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63	4.9	11.3	15	2.9	13.1	164	10.9	11.4
- 가정용 기기	40	9.0	2.8	3	-14.5	3.0	39	5.8	2.7
- 사무용 기기	2	10.2	0.1	0	9.2	0.2	2	32.0	0.2
- 의료용 기기	15	-8.4	1.1	2	38.7	1.7	16	17.6	1.1
- 측정 제어 분석기기	68	4.8	4.7	6	4.7	5.2	67	7.4	4.6
- 전기 장비	37	7.1	2.6	4	5.0	3.2	40	19.4	2.8
· 건전지 및 축전지	12	11.7	0.8	1	35.8	1.3	15	43.2	1.1

자료 : Uncomtrade, KITA



## 4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표 3-17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전·전자·통신기기		소프트웨어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직접판매 (수출)	2020	19,267	26.4	55,019	-41.4	1,071	17.8
	2021	15,008	-22.1	49,134	-10.7	1,005	-6.2
	2022p	11,168	-25.6	60,029	22.2	287	-71.4
	2020.1/4	4,142	11.9	12,866	-40.0	183	22.0
	2/4	3,814	-5.5	14,052	-38.4	230	0.9
	3/4	7,722	110.4	14,965	-41.1	258	79.2
	4/4	3,589	-6.2	13,136	-45.7	400	3.4
	2021.1/4	4,239	2.3	10,759	-16.4	210	14.8
	2/4	4,450	16.7	17,117	21.8	225	-2.2
	3/4	3,612	-53.2	12,744	-14.8	235	-8.9
	4/4	2,707	-24.6	8,514	-35.2	335	-16.3
	2022.1/4	2,449	-42.2	47,739	343.7	88	-58.1
	2/4	2,867	-35.6	4,298	-74.9	63	-72.0
	3/4	2,824	-21.8	3,996	-68.6	90	-61.7
	4/4p	3,028	11.9	3,996	-53.1	46	-86.3
직접구매 (수입)	2020	52,136	4.0	338,031	-27.0	15,106	17.2
	2021	65,502	25.6	363,035	7.4	20,402	35.1
	2022p	88,573	35.2	296,493	-18.3	12,724	-37.6
	2020.1/4	12,348	-6.3	90,812	-36.0	3,191	2.7
	2/4	11,167	6.4	73,828	-34.0	3,572	20.1
	3/4	9,492	0.9	59,015	-39.7	3,763	13.2
	4/4	19,129	12.2	114,376	2.6	4,580	31.4
	2021.1/4	19,096	54.6	131,603	44.9	6,856	114.9
	2/4	12,646	13.2	66,291	-10.2	4,170	16.7
	3/4	12,098	27.5	56,992	-3.4	3,839	2.0
	4/4	21,662	13.2	108,149	-5.4	5,537	20.9
	2022.1/4	24,298	27.2	77,508	-41.1	3,609	-47.4
	2/4	18,972	50.0	63,235	-4.6	3,107	-25.5
	3/4	20,429	68.9	72,027	26.4	2,997	-21.9
	4/4p	24,874	14.8	83,723	-22.6	3,011	-45.6

주 : p는 잠정치

자료 : 통계청



## 5

## 주요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표 3-18 주요 ICT 부문별 수출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47.2	10.6	51.3	14.9	45.5	40.3	121.3	36.1	106.4	34.5	61.3	49.7
2006	52.5	14.2	76.1	29.1	55.9	48.5	110.5	43.0	104.4	40.8	55.1	45.6
2007	62.6	22.2	93.6	48.3	53.3	47.4	108.6	49.1	111.1	50.2	70.3	58.4
2008	52.6	23.8	89.4	51.1	63.1	59.2	95.7	50.8	124.5	62.8	91.6	78.4
2009	50.1	24.1	112.9	78.9	65.1	62.2	79.4	57.5	99.1	58.9	53.0	46.9
2010	81.3	38.3	144.2	100.5	85.3	81.3	94.5	69.1	92.3	60.3	69.9	62.9
2011	80.2	62.9	132.3	110.8	98.2	93.0	99.2	81.7	92.3	66.9	79.2	72.1
2012	79.7	87.7	125.0	108.9	118.5	113.2	105.3	88.5	77.6	63.8	89.8	80.6
2013	90.3	83.8	119.4	107.3	136.1	130.7	102.0	91.6	91.4	80.0	95.0	85.9
2014	99.4	89.8	116.1	111.9	116.5	112.2	95.3	89.5	96.8	86.6	100.4	92.9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9.1	115.7	75.5	83.8	91.6	99.2	103.7	108.2	91.8	92.4	104.2	110.0
2017	156.8	146.9	93.9	88.5	113.0	126.4	142.0	150.5	71.1	73.5	124.9	139.2
2018	203.6	177.6	75.8	86.6	106.5	112.5	137.4	153.5	61.5	67.7	137.8	154.7
2019	156.2	200.1	29.8	40.3	101.8	110.4	51.4	64.4	73.4	85.2	135.5	156.3
2020	171.8	240.4	23.7	33.6	105.7	117.8	46.8	59.3	70.9	82.9	135.4	165.6
2021	220.5	284.1	23.2	27.9	122.3	125.4	52.2	68.1	89.3	107.0	158.5	191.6
2022	222.7	328.8	23.6	37.8	121.5	109.4	52.1	72.1	87.1	110.7	157.0	187.9
'22.1월	217.8	294.7	29.4	42.0	123.8	106.5	67.1	88.1	85.8	102.2	151.9	183.0
<b>2월</b>	<b>212.4</b>	<b>286.1</b>	<b>27.1</b>	<b>39.3</b>	<b>118.8</b>	<b>102.1</b>	<b>63.4</b>	<b>83.6</b>	<b>81.3</b>	<b>99.3</b>	<b>151.2</b>	<b>180.6</b>
3월	269.3	360.6	32.5	47.9	136.7	116.8	68.1	90.2	105.0	128.1	180.9	215.8
4월	218.4	294.6	27.8	42.0	128.7	111.1	81.6	106.5	87.0	105.8	153.7	179.0
5월	236.4	319.6	26.1	40.5	130.4	113.3	69.3	90.8	71.1	87.4	159.6	187.0
6월	255.3	347.7	20.4	33.3	124.5	109.2	56.1	75.6	73.7	94.4	148.6	180.6
7월	234.0	344.8	22.5	37.0	125.9	110.4	38.7	51.8	73.6	95.4	148.9	175.6
8월	227.7	339.8	21.9	36.6	122.5	108.8	33.8	46.3	82.8	107.1	152.8	185.0
9월	243.7	373.0	18.1	31.2	122.9	109.5	43.1	60.8	102.0	133.9	171.4	208.0
10월	191.7	332.4	19.2	33.1	114.5	102.9	33.8	51.6	108.7	142.4	155.6	185.4
11월	177.6	312.3	18.4	31.5	108.4	115.6	27.9	42.6	101.5	135.6	150.1	179.7
12월	188.0	335.9	19.1	32.6	101.3	108.0	42.7	65.2	72.2	96.4	159.9	193.6
'23.1월	122.4	237.7	15.8	27.3	98.5	104.8	22.4	34.2	84.6	113.1	127.7	151.6
<b>2월</b>	<b>122.9</b>	<b>243.7</b>	<b>17.5</b>	<b>30.3</b>	<b>92.5</b>	<b>98.6</b>	<b>21.4</b>	<b>33.7</b>	<b>67.3</b>	<b>90.1</b>	<b>143.4</b>	<b>171.6</b>

자료 : 한국은행

**표 3-19** | 주요 ICT 부문별 수입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65.7	26.7	50.9	22.2	89.9	50.9	69.1	42.9	45.3	31.5	64.5	56.6
2006	67.7	33.2	51.5	21.9	98.1	59.9	80.9	56.7	52.9	40.0	71.1	66.0
2007	79.2	44.0	55.5	24.2	103.1	67.6	88.8	66.4	54.5	43.6	71.7	66.3
2008	83.4	52.9	68.9	31.1	110.5	76.8	84.3	68.8	60.6	49.4	72.4	67.7
2009	70.0	49.3	56.2	33.7	105.5	79.1	74.5	67.5	47.4	40.9	60.4	56.5
2010	81.8	60.4	84.2	53.6	118.8	86.3	100.4	94.8	59.6	53.6	82.4	79.1
2011	85.9	68.8	83.8	61.8	121.9	97.8	101.1	95.1	75.1	68.8	93.0	85.8
2012	83.9	74.4	90.0	71.9	122.0	108.3	96.2	88.8	49.7	46.2	103.0	97.0
2013	90.3	82.5	80.9	72.0	133.5	120.7	98.0	95.7	54.7	52.4	97.2	92.5
2014	94.9	92.0	97.9	89.8	123.6	117.9	103.7	101.3	80.2	78.7	99.7	94.5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5.2	96.7	76.2	83.9	86.5	91.5	109.9	111.1	106.3	108.9	100.8	100.0
2017	107.4	109.9	95.2	104.1	100.0	110.3	130.4	134.2	115.5	125.3	119.7	118.3
2018	115.3	119.7	105.5	134.1	96.1	105.2	140.6	143.7	114.5	130.1	124.6	121.6
2019	123.2	154.0	34.0	41.6	94.0	103.8	122.1	127.4	139.4	158.3	117.4	115.8
2020	135.9	184.8	29.3	34.5	100.4	111.7	136.0	140.9	127.2	152.4	122.8	121.8
2021	166.9	228.6	29.1	24.4	133.0	139.6	167.6	171.5	143.2	170.9	142.1	137.2
2022	204.2	298.7	35.2	51.9	131.2	137.5	171.4	178.0	135.2	167.3	144.5	144.9
'22.1월	187.8	263.0	46.4	51.4	137.2	140.9	239.5	243.6	127.7	152.2	135.4	132.4
<b>2월</b>	<b>180.3</b>	<b>252.5</b>	<b>41.2</b>	<b>48.0</b>	<b>121.0</b>	<b>124.0</b>	<b>182.9</b>	<b>186.1</b>	<b>120.1</b>	<b>142.9</b>	<b>131.0</b>	<b>126.8</b>
3월	197.5	276.5	37.9	45.9	138.2	141.8	194.3	199.2	154.8	184.6	150.8	146.1
4월	186.1	261.6	37.1	47.0	138.9	142.8	172.8	178.2	137.3	167.7	150.6	146.4
5월	196.7	277.8	38.2	52.0	136.4	143.8	166.4	172.3	142.8	176.6	141.9	140.0
6월	218.6	309.2	33.6	50.0	141.0	148.9	145.1	151.1	126.8	156.5	148.5	147.9
7월	220.4	327.0	28.5	44.9	135.5	143.7	170.6	178.5	122.9	151.7	149.1	149.8
8월	220.6	328.2	35.0	58.4	132.5	140.5	148.3	154.1	156.6	195.8	143.8	145.8
9월	216.0	323.9	31.8	55.5	132.3	140.6	183.8	193.4	121.1	152.0	135.5	138.3
10월	215.7	337.9	30.8	55.4	130.8	137.7	153.7	162.4	206.4	260.4	142.2	146.3
11월	224.8	346.2	30.2	55.2	119.9	126.1	154.5	162.1	107.2	137.8	141.6	148.3
12월	186.3	285.2	31.3	58.4	110.9	117.3	144.6	150.6	98.8	127.1	163.6	169.6
'23.1월	168.1	264.0	38.9	73.6	117.0	123.2	209.2	216.3	153.6	198.2	153.1	156.6
<b>2월</b>	<b>160.3</b>	<b>251.8</b>	<b>32.1</b>	<b>60.6</b>	<b>101.6</b>	<b>106.0</b>	<b>203.4</b>	<b>209.1</b>	<b>109.9</b>	<b>143.2</b>	<b>121.4</b>	<b>124.0</b>

자료 : 한국은행

“월간 ICT 산업 동향”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미래정책단 동향분석팀에서 수행하는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사업 결과의 일부로 산출된 것입니다.

- ◎ 사업 책임자 : 임진국
- ◎ 과제 책임자 : 허창희
- ◎ 참여 연구원 : 조성선, 이효은, 권요안, 홍수표, 조일구, 반치호, 최동렬, 유영신, 장예지, 김채리, 김도현
- ◎ 위촉 연구원 : 최경석, 이유리, 이유경

본 자료의 내용을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미래정책단 동향분석팀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전화 : (042) 612-8240, 팩스 : (042) 612-8209